

**An Analytical Study of the 21st Century Turkish Worldview
For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21 세기 터키인 세계관 분석 연구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ssiology

by

Seung Yeoul Lee

May, 2012.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pproval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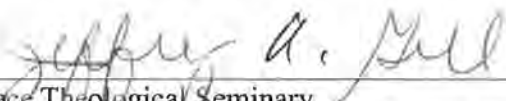
This dissertation entitled
An Analytical Study of the 21st Century Turkish Worldview
For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21 세기 터키인 세계관 분석 연구

Written
by
Seung Yeou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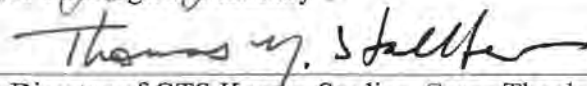
Doctor of Missiology

has been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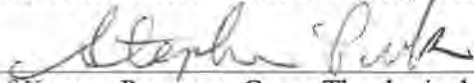
Approval



Dean, Grace Theological Seminary



Executive Director of GTS Korean Studies,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rector of Korean Program, Grace Theological Seminary

No Part of this dissert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author and the Committee for the Doctor of Missiology Degree.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ABSTRACT

LEE, SEUNG YEOUL
2012

An Analytical Study of the 21st Century Turkish Worldview For Effective Communication

Grace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ssiology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globalization. Not much is influenced by the geographical restrictions of nation states. The world needs to survive in coexistence, and one way of this survival i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However, the world politics are multi-polarized and multi-civilized. Different cultures and religions are especially exclusive. People boast and keep their so-called culture and traditions, but traditions change and differ based on different ethnic groups, time periods, and environments. Thus, it is difficult to send across a good message because of differences in existing cultures and traditions.

The researcher has had communication problems with the Turkish people while living in Turkey for 15 years. The researcher realized that it was because he was trying to only get across his message without understanding their worldview. Thus, the researcher has decided to study their worldview and has brought up several questions.

First, what logical basis is needed to communicate with a different culture?

Second, what general worldview is needed to understand the Turkish worldview?

Third, would it be possible to form an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and religion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Turkish worldview?

In order to study the Turkish worldview with these questions, the researcher formed a documented survey based on information from references and life experiences.

The researcher planned to survey individuals in order to study and organize the Turkish worldview. Firstly, the area of study was restricted to Turkey in the Middle East. The study was especially focused mostly on the worldview of the university elites. The reason for the centered study was to focus on the university students who will lead Turkey in the next 50 year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first chapter, the purpose and objectives, questions and range, former research materials and term definitions,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research are introduced.

In the second chapter, the definition of worldview, location, change, function, features and more are outlined through the study of the theoretical concept of worldview.

In the third chapter, terminology, the Turkish environment,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economy, family, traditions, national spirit, language, religion, and mindset are dealt with through the survey of the Turkish worldview. The foundation of the Turkish worldview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study of Turkey in Central Asia and the settlement of Turkey in Anatolia.

In the fourth chapter, the actual method and process of the study of the 21st century Turkish worldview is outlined. The 100 questions given out in the field for the survey are categorized as follows:

- A1. 10 questions about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A101-A110)
- B2. 5 questions about foreig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ulture (B201-B205)
- C3. 8 questions about the economic crisis (C301-C308)
- D4. 12 questions about family and traditions (D401-D412)

E5. 13 questions about national spirit and the society (E501-E513)

F6. 17 questions about national spirit and religion (F601-F617)

G7. 28 questions about the mindset (G701-728),

H8. 7 questions about Korea and Turkey (H801-H807)

In the fifth chapter, the 100 survey questions concerning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foreig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ulture, economic crisis, family and traditions, national spirit and the society, national spirit and religion, mindset, and the relationship with Korea went through a frequency analysis with the use of SPSS 1.8. After analysis with diagrams and graphs, some ideas applicable to actual communication are proposed.

In the sixth chapter, evaluation, contribution, and suggestions for the next researcher are provided. This research is the result of 859 students out of 6,224 students from 81 provinces of a nation with the population of 7.3 million. It has a 95-percent confidence level with plus or minus 3.5-percent error. The value of this research is providing an effective way of communication with the Turkish people as well as others in the Middle East based on the study of fundamental worldviews.

All messengers going to or already in the field around the world in different cultures should keep something in mind. More research about the field and the people, and also mutual confidence with them are needed. For better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the Turkish people, the attitude to learn about them is needed.

Mentor: Dr. Stephen Park

국문초록

2012

이 승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21세기 터키인 세계관 분석 연구

Grace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ssiology

21 세기는 세계화 시대이다. 이제는 국가라는 지리적인 제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는 공존가운데 생존해야 하는데 생존을 위한 방법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그러나 세계 정치는 다극화, 다문화화 되어 있다. 특히 문화와 종교는 아주 배타적이다. 사람들은 소위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고 지키지만, 전통도 민족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달라서 좋은 메시지가 있어도 기존의 여러 문화와 전통 때문에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연구자는 터키에서 15 년 동안 거주하면서 터키인들과 의사소통 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를 직면했다. 그들의 세계관을 잘 알지 못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을 연구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문화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터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세계관은 무엇인가?

셋째, 터키인들의 세계관을 통하여 다른 문화와 종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 입문이 가능한가?

위와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하여 세계관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과 삶을 통하여 얻은 내용을 설문지로 문서화하였다. 개개인을 조사하고 세계관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의 범위는 중동지역 중에서 터키로 제한하였다. 집중 연구는 터키인들 중에 특별히 엘리트인 대학생들의 세계관을 위주로 다루었다. 이유는 터키인들의 향후 50 년을 바라보면서 터키를 앞으로 이끌고 갈 대학생들을 선택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전개에 있어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 동기와 목적, 문제제기와 범위, 기존 연구 조사와 용어 정의, 연구 절차와 방법을 언급하였다.

2 장에서는 세계관의 이론적 개념 고찰을 통하여 세계관의 정의, 위치, 변화, 기능, 요소 등을 약술하였다.

3 장에서는 터키 세계관에 관한 개관으로 명칭과 터키의 환경, 주변 국가와의 관계, 경제, 가족, 전통, 민족, 언어, 종교, 그리고 의식구조를 다루고 중앙아시아에서의 터키와 아나톨리아에 정착한 터키를 언급함으로써 터키 세계관의 기초를 살펴보았다.

4 장에서는 21 세기 터키인의 세계관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 방법과 과정을 약술하였다.

현장에서 주어진 설문조사의 100 문항은 A1. 지리적 환경 10 문항(A101-A110), B2. 외교와 국제문화 5 문항(B201-B205), C3. 경제문제 8 문항(C301-C308), D4. 가족과 전통 12 문항(D401-D412), E5. 민족과 국가사회 13 문

항(E501-D513), F6. 민족과 종교 17 문항(F601-F617), G7. 의식구조 28 문항(G701-728), H8. 한국과 터키 7 문항(H801-H807) 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5 장에서는 지리적 환경, 외교와 국제문화, 경제 문제, 가족과 전통, 민족과 국가 사회, 민족과 종교, 의식구조, 한국과의 관계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들을 SPSS 1.8 을 통해 빈도분석 하였다. 도표와 그래프를 작성하여 설문조사 100 문항의 모든 내용을 연구 분석한 다음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6 장에서는 결론으로 평가와 기여도, 그리고 다음 연구자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7,300 만 인구 국가의 81 개 도에서 모인 6,224 명 가운데 859 명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 9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5%오차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가치는 터키를 비롯한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인 세계관들을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또는 현장에 있는 모든 메시지 전달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잡아야 할 것이 있다. 현장과 현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그들과의 신뢰가 필요하다. 터키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들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멘토: Dr. Stephen Park

헌 정

이 논문을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님(이 명규), 어머님(안 봉녀)께 바칩니다.

감사의 글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시고 그레이스 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공부를 시작하게 하신 김연택 박사님과 서류를 준비해주신 현유헌 박사님, 친구인 한성기 박사님, 그리고 공부에 정착을 도와주신 진충웅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학교에서 세계종교를 강의해주신 Dr. John T. Kim 교수님,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시고 문화인류학을 강의해주신 Dr. Mikel Neumann 교수님, 사역의 철학을 강의해주신 Dr. Kenneth Bickel 교수님, 연로하신데도 열정으로 사역의 전략을 강의해주신 Dr. Tom Julien 교수님, 복음의 열정을 강의해주신 Dr. Matthew S. Harmon 교수님, 학교에서 고안된 다문화 사역, 의사소통, 상황화 원리, 사회조사 방법, 선교역사 등에 관한 강의와 새로운 도전을 주고 모든 것을 지도해주신 명석하신 Dr. Thomas M. Stallter 교수님, 학교생활을 안내해주시고 논문지도를 해주신 Dr. Stephen Park 교수님, 행정으로 도와주신 Dr. Rachel Park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공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고 손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공부를 하며 힘을 주고 격려 해준 유럽의 동료인 송우석, 안순철, 박용관에게 감사 드립니다.

학교로 가던 중 유럽의 아이슬랜드 화산 폭발로 비행기가 8 시간이나 연착되기도 했지만 학교에 잘 도착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비행기 타는 당일 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무사히 떠날 수 있었던 날들을

이 응

2012년 5월

기를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사소함을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

이 큰 용 힘을 모든 분들이 터키를 사랑하고 터키인들과의 원활한 의

결려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복사님, 누님인 이복다 권사님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 후원으로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격려해주시는 장모님 안완숙 집사님과 형님인 이종진

격려해주고 모든 것을 도와준 아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전

영아와 원고 교정을 도와준 딸 영은이와 아들 창호에게 감사하고, 늘

고한 아내인 인희와 현지인 하자트에게 감사 드립니다.

님들과 응답해준 학생들께 감사 드립니다. 설문지의 터키어 번역을 위하여 주

서 허락을 해주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지를 할 때 도와주신 교수

문은의 설문조사를 위하여 N 대학교 총장님과 N 도의 경찰청과 도에

교제를 제공해주신 신반포중앙 교회와 건성봉 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공부하는데 필요한

목 차

ABSTRACT	i
국문초록	iv
헌 정	vii
감사의 글	viii
목 차	x
도표 목록	xiv
그래프 목록	xvii
1. 서론	1
1.1.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1.2. 연구의 문제제기와 범위	6
1.3. 기존의 연구 검토와 용어 정의	8
1.4. 연구의 절차와 방법	10
2. 세계관의 이론적 개념 고찰	13
2.1. 세계관의 정의	13
2.2. 세계관의 위치	17
2.3. 세계관의 변화	20
2.4. 세계관의 기능	27
2.5. 세계관의 요소	30
3. 터키인의 세계관 기초연구	33
3.1. 터키 개관	33

3.1.1. 명칭과 지리적 환경	33
3.1.2. 주변국과의 관계와 경제	35
3.1.3. 가족과 전통	37
3.1.4. 민족 구성과 언어.....	41
3.1.5. 종교	46
3.1.6. 의식구조.....	48
3.1.7. 한국과 터키의 관계	52
3.2. 중앙아시아에의 고티르크(Göktürk)	53
3.2.1. 튀르크 민족과 문화	53
3.2.2. 유목생활과 나그네	56
3.2.3. 이슬람 이전 튀르크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의 접촉	58
3.2.4. 튀르크 문화의 토속 관행.....	61
3.3. 아나톨리아에 정착한 튀르크.....	64
3.3.1. 아랍인의 의식 구조	64
3.3.2. 아나톨리아에 정착한 튀르크의 환경과 사회 구조.....	70
3.4. 근대 터키의 사상.....	77
3.4.1. 케말리즘.....	77
3.4.2. 누르시즘.....	83
4. 21 세기 터키인의 세계관 연구.....	90
4.1. 현지 조사의 필요성	90

4.2. 설문조사.....	91
4.2.1. 설문조사의 어려움	91
4.2.2. 설문지 작성	92
4.2.3. 현장 설문지 조사 방법	93
4.3. 데이터 분석 방법.....	94
5. 21세기 터키인의 세계관 연구 질문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해석	96
5.1. 지리적 환경	96
5.2. 외교와 국제문화.....	104
5.3. 경제 문제.....	107
5.4. 가족과 전통	112
5.5. 민족과 국가사회.....	120
5.6. 민족과 종교	128
5.7. 의식구조.....	138
5.8. 한국과 터키	154
6. 연구 방법론의 평가와 결론	159
6.1. 연구 방법론에 대한 평가.....	159
6.2. 본 연구의 가치와 현실적 기여도.....	161
6.3. 본 연구가 제시한 세계관을 사용하기 위한 제안.....	162
6.4. 계속적인 연구 내용과 미래의 연구방향	168
6.5. 결론	169

부록	174
터키인들의 세계관 연구를 위한 설문지	174
TÜRKLERİN DÜNYA GÖRÜŞLERİ HAKKINDA BİR ANKET.....	184
참고도서	192
약력	198

도표 목록

(도표 이름은 설문 번호를 말한다.)

도표 1 <A101>	96
도표 2 <A102>	97
도표 3 <A103>	97
도표 4 <A104>	98
도표 5 <A105>	99
도표 6 <A106>	100
도표 7 <A107>	100
도표 8 <A108>	101
도표 9 <A109>	102
도표 10 <A110>	102
도표 11 <B201>	104
도표 12 <B202>	105
도표 13 <B203>	105
도표 14 <B204>	106
도표 15 <B205>	106
도표 16 <C301>	108
도표 17 <C302>	108
도표 18 <C303>	109
도표 19 <C304>	109
도표 20 <C305>	110
도표 21 <C306>	110
도표 22 <C307>	111
도표 23 <C308>	111
도표 24 <D401>	113
도표 25 <D402>	114
도표 26 <D403>	114
도표 27 <D404>	115
도표 28 <D405>	115
도표 29 <D406>	116
도표 30 <D407>	116
도표 31 <D408>	117
도표 32 <D409>	117
도표 33 <D410>	118
도표 34 <D411>	118

도표 35 <D412>	119
도표 36 <E501>	121
도표 37 <E502>	121
도표 38 <E503>	122
도표 39 <E504>	122
도표 40 <E505>	123
도표 41 <E506>	123
도표 42 <E507>	124
도표 43 <E508>	124
도표 44 <E509>	125
도표 45 <E510>	125
도표 46 <E511>	126
도표 47 <E512>	126
도표 48 <E513>	127
도표 49 <F601>	128
도표 50 <F602>	129
도표 51 <F603>	129
도표 52 <F604>	130
도표 53 <F605>	130
도표 54 <F606>	131
도표 55 <F607>	131
도표 56 <F608>	132
도표 57 <F609>	133
도표 58 <F610>	133
도표 59 <F611>	134
도표 60 <F612>	134
도표 61 <F613>	135
도표 62 <F614>	135
도표 63 <F615>	136
도표 64 <F616>	136
도표 65 <F617>	137
도표 66 <G701>	138
도표 67 <G702>	139
도표 68 <G703>	139
도표 69 <G704>	140
도표 70 <G705>	140

도표 71 <G706>	141
도표 72 <G707>	142
도표 73 <G708>	142
도표 74 <G709>	143
도표 75 <G710>	143
도표 76 <G711>	144
도표 77 <G712>	144
도표 78 <G713>	145
도표 79 <G714>	145
도표 80 <G715>	146
도표 81 <G716>	146
도표 82 <G717>	147
도표 83 <G718>	147
도표 84 <G719>	148
도표 85 <G720>	148
도표 86 <G721>	149
도표 87 <G722>	149
도표 88 <G723>	150
도표 89 <G724>	150
도표 90 <G725>	151
도표 91 <G726>	151
도표 92 <G727>	152
도표 93 <G728>	152
도표 94 <H801>	154
도표 95 <H802>	155
도표 96 <H803>	155
도표 97 <H804>	156
도표 98 <H805>	156
도표 99 <H806>	157
도표 100 <H807>	157

그래프 목록

(그래프 이름은 설문 번호를 말한다.)

그래프 1 <A101>	96
그래프 2 <A102>	97
그래프 3 <A103>	97
그래프 4 <A104>	98
그래프 5 <A105>	99
그래프 6 <A106>	100
그래프 7 <A107>	100
그래프 8 <A108>	101
그래프 9 <A109>	102
그래프 10 <A110>	102
그래프 11 <B201>	104
그래프 12 <B202>	105
그래프 13 <B203>	105
그래프 14 <B204>	106
그래프 15 <B205>	106
그래프 16 <C301>	108
그래프 17 <C302>	108
그래프 18 <C303>	109
그래프 19 <C304>	109
그래프 20 <C305>	110
그래프 21 <C306>	110
그래프 22 <C307>	111
그래프 23 <C308>	111
그래프 24 <D401>	113
그래프 25 <D402>	114
그래프 26 <D403>	114
그래프 27 <D404>	115
그래프 28 <D405>	115
그래프 29 <D406>	116
그래프 30 <D407>	116
그래프 31 <D408>	117
그래프 32 <D409>	117
그래프 33 <D410>	118
그래프 34 <D411>	118

그래프 35 <D412>	119
그래프 36 <E501>	121
그래프 37 <E502>	121
그래프 38 <E503>	122
그래프 39 <E504>	122
그래프 40 <E505>	123
그래프 41 <E506>	123
그래프 42 <E507>	124
그래프 43 <E508>	124
그래프 44 <E509>	125
그래프 45 <E510>	125
그래프 46 <E511>	126
그래프 47 <E512>	126
그래프 48 <E513>	127
그래프 49 <F601>	128
그래프 50 <F602>	129
그래프 51 <F603>	129
그래프 52 <F604>	130
그래프 53 <F605>	130
그래프 54 <F606>	131
그래프 55 <F607>	131
그래프 56 <F608>	132
그래프 57 <F609>	133
그래프 58 <F610>	133
그래프 59 <F611>	134
그래프 60 <F612>	134
그래프 61 <F613>	135
그래프 62 <F614>	135
그래프 63 <F615>	136
그래프 64 <F616>	136
그래프 65 <F617>	137
그래프 66 <G701>	138
그래프 67 <G702>	139
그래프 68 <G703>	139
그래프 69 <G704>	140
그래프 70 <G705>	140

그래프 71 <G706>	141
그래프 72 <G707>	142
그래프 73 <G708>	142
그래프 74 <G709>	143
그래프 75 <G710>	143
그래프 76 <G711>	144
그래프 77 <G712>	144
그래프 78 <G713>	145
그래프 79 <G714>	145
그래프 80 <G715>	146
그래프 81 <G716>	146
그래프 82 <G717>	147
그래프 83 <G718>	147
그래프 84 <G719>	148
그래프 85 <G720>	148
그래프 86 <G721>	149
그래프 87 <G722>	149
그래프 88 <G723>	150
그래프 89 <G724>	150
그래프 90 <G725>	151
그래프 91 <G726>	151
그래프 92 <G727>	152
그래프 93 <G728>	152
그래프 94 <H801>	154
그래프 95 <H802>	155
그래프 96 <H803>	155
그래프 97 <H804>	156
그래프 98 <H805>	156
그래프 99 <H806>	157
그래프 100 <H807>	157

1. 서론

1.1. 연구의 동기와 목적

21 세기는 세계화 시대이다. 세계화 또는 전지구화(globalization 또는 globalisation)란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해 가는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을 뜻한다.”¹ 이러한 세계화의 “폭넓고 빠른 이주 현상은 민족국가라는 지리적인 제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² 이러한 세계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함께 공존해야 하고, 공존해야 생존할 수 있다. 공존의 생존 방법은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관계를 가지며 서로 협력하며 주고받는 사회가 되었다. 정치와 경제 협력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와 종교는 차이가 있다. 많은 나라들이 문화는 교류하려고 하는데 종교는 조금 다르다. “세계 정치는 다극화, 다문화화되었다.”³ 그래서 어떤 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고, 어떤 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교류는 하려는데 종교는 아주 배타적이다.

중동 문화권은 고대 문명과 종교의 발상지가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¹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D%99%94> (2012.02.24)

² 마이클 포코크/가린 배 리넨/더글라스 메코넬, *변화하는 내일의 세계선교(Changing Face of World Missions)*, 박영환, 백종윤, 전석재, 김영남 옮김, 인천: 바울, 2008, 28.

³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옮김, 경기: 김영사, 2010, 19.

사람들은 소위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고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전통이란 많은 몇 년을 소유하고 있어야 전통인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예전 것은 전통에서 아주 사라져야 하는지, 지난 것이 좋지 않고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좋다고 하는 기준과 나쁜다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 선을 정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좋은 메시지가 있어도 기존의 전통과 문화로 인해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때로는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선한 행위를 위하여, 타인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고, 자신에게는 선이 되지만 타인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해가 되어도 타인에게는 선이 되는 행

위하여 다른 문화와 종교에 문을 닫고 있다.

다른 문화권들은 각자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지키고 알리기 위하여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반목질시하고 의심하며 자신의 것만을 유지하기 바쁘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의 소유자가 종교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입국이 금지된다.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보존하기

있을까 고민을 하였다.

많은 민족들이 지난간 환경이다. 이러한 특성의 문제로 오늘날 중동은 관습과 소외라는 두 가지를 강하게 겪고 있는 지역이다. 연구자는 중동지역에서 15년을 참면서 어떻게 하면 아시아의 문화와 종교, 중동의 문화와 종교, 서구의 문화와 종교, 아프리카의 문화와 종교가 서로 갈등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위를 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찾아보가가 쉽지 않다.

세계는 최근 터키를⁴ 포함한 중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이유에서인데, 그 중에는 문화와 종교, 정치, 에너지와 경제시장 등이 있다.

첫째는 중동 문화의 독특성이다. 중동의 문화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다양한 종교문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화 등이 있다. 연구자는 특히 문화와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부분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권의 문화와 종교의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하여 그들의 세계관을 연구하고자 했다.

지중해 지역에서의 로마 초기의 정치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야 했고 그러한 이유로 정치와 종교의 일치를 시도하였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1 세 (Constantinus I: 312 ~ 337)에 의해 313 년 밀라노 칙령으로⁵ 기독교가 공인되고 종교와 정치가 잠깐 분리되었으나 테오도시우스 1 세 (Theodosius I: 379-395)에 의해 392 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드리면서⁶ 정치와 종교는 하나가 되었다.

이슬람은 처음부터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시작했다.⁷ 로마와 동 시대에 이슬람을 받아들인 셀주크(Seljuk)와 오스만(Osman)의 터키는 역시 이슬람

⁴ 본 연구에서는 튀르키예(Türkiye)를 한글 표기에서 '터키'로 표기하고자 한다.

⁵ Michael Cheilik, *서양고대사개론(Ancient History, A Barnes & Noble Outline Series: 1969)*, 고려대 대학원 고대사연구실 역, 서울: 지양사, 1987, 367.

⁶ http://kcm.kr/dic_view.php?nid=39304 (2012.03.12)

⁷ 최영길, *이슬람문화*, 서울: 도서출판알림, 2000, 328.

과 정치가 하나였다. 그러나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슬람의 유산을 거부함으로써 케말 아타튀르크(Kemal Atatürk)는 터키를 자신의 종교, 전통, 관습, 제도를 고수하려는 이슬람 교도와 자기 나라를 근대화, 서구화시켜 서구에 편입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지배 엘리트가 공존하는 ‘분열된 나라’로 만들었다.”⁸ 종교와 정치를 분리되었다.. 현재 서구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있다. 중동에서도 20 세기를 맞으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는 국가들의 분포가 많다. 정치와 종교가 이원화되어 있어도 여전히 종교와 정부의 관계는 깊이 관련되어 있다.

21 세기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특히 종교문제는 골이 점점 깊어 가고 있다. 2001 년 9.11 사건 이후 이슬람이라는 용어와 테러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1 년 초부터는 북부 아프리카와 지중해 동쪽 국가들, 걸프(Gulf) 국가들의 자유의 바람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세계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구와 아시아에게 과제로 남겨져있다.

둘째, 특히 터키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민족이지만 이동 중에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지중해 국가들을 셀주크(Selçuk: Seljuk)⁹ 와 오스만(Osman: Ottoman)¹⁰이라는 이름으로 길게는 1072 년부터¹¹, 짧게는 1453 년부터¹² 지배를

⁸ 헌팅턴, 94.

⁹ 본 연구에서는 (Selçuk: Seljuk)을 한글 표기에서 ‘셀주크’로 표기하고자 한다.

¹⁰ 본 연구에서는 (Osman: Ottoman)을 한글 표기에서 ‘오스만’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하기 시작하여 제 1 차 세계대전이 있기까지 오스만의 손에 있었다. 그들은 지금 중동의 자유화 운동을 보면서 자신들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모범된 자유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셋째, 중동 지역에 대한 연구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터키를 빼놓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동을 셀주크와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중동지역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터키의 20 대 엘리트(대학생)들의 세계관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21 세기에 그들과의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동 지역에서는 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거부하는지, 다른 문화와 종교는 수용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문화들의 접근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알고 정의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라 할지라도 여건이 개선되고 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동 지역의 사람들과 문화와 종교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세계관인 의식구조와 전통들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람들 상호간

¹¹ Kemal Kara, *Liseler için GENEL TÜRK TARİHİ 3*, İstanbul: Önde Yayıncılık, 1997, 36.

대(大) 셀주크가 아나톨리아에서 1072년 Saltuklu Devleti를 Ebu'l Kasım Saltuk가 에르주룸(Erzurum)을 수도로 세워 1202년까지 이른다. 그래서 연구자는 그 1072년을 튀르크들이 아나톨리아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해로 말하고자 한다.

¹² Kemal Kara, *Liseler için GENEL TÜRK TARİHİ 2*, İstanbul: Önde Yayıncılık, 1999, 30.

오스만은 1299년에 시작하여 1453년 5월 29일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여 1922년까지 있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지중해 국가들을 점령했지만 연구자는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국가들을 점령하기 시작한 때를 기점으로 보았다.

에 의사소통이 잘 된다면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터키인들을 포함한 중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특별히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의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돕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문제제기와 범위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여 세계화는 되었지만 문화와 종교는 아직도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더욱 충돌이 심하여 특정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전향하면 생명을 위협당하기도 한다. 문화가 다양한 만큼이나 종교는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유럽과 아메리카와 태평양지역은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가 우세하다. 러시아는 정교회, 아시아는 불교와 힌두, 아프리카는 정령숭배가 있지만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있다. 남부는 기독교가 많고 북부는 이슬람 지역이 많다. 걸프 지역과 아라비아와 현재 터키가 자리잡고 있는 아나톨리아(Anadolu: Anatolia)¹³ 이슬람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별 종교의 차이로 서로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오히려 반목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터키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터키 사람들의 세계관 연구를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문화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¹³ 본 연구에서는 (Anadolu: Anatolia)를 한글 표기를 '아나톨리아'로 표기하고자 한다.

둘째, 터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세계관은 무엇인가?

셋째, 터키인들의 세계관을 통하여 다른 문화와 종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 입문이 가능한가?

위와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하여 다른 문화권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역사적 이론과 다른 문화와 종교의 개념 정의에 따른 상호관계를 살피며 찾아보고, 다른 문화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 다루고자 한다.

또한 터키의 지리, 역사, 사회구조, 정치, 생활, 가족관계, 종교, 기독교 현황, 한국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터키인 세계관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문서와 15 년간의 현지 삶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1 세기 터키인의 세계관 연구를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거나 지향하는 세계관 내용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역사와 정치, 생활, 문화와 종교, 가족과 전통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 변혁에 따른 개인의 혼란의 정도 등에 관한 내용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터키인들의 세계관이 중동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과 의사소통할 것인가 고찰해보았다. 먼저 연구의 범위는 중동지역 중에서 터키로 제한하고자 했다. 그러나 터키 전체를 할 수 없어 터키의 81 개 도(道)로부터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 대학을 선정하였다. 문헌적인 고찰을 통하여 기초적인 세계관을 고찰하고, 현재 터키인들의 세계관의 흐름을 언급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는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 중심으로 간략히 하였다. 집

중 연구는 터키인들 중에 특별히 엘리트인 대학생들의 세계관을 위주로 다루었다. 이유는 터키인들의 향후 50 년을 바라보면서 터키를 앞으로 이끌고 갈 대학생들 선택한 것이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고, 의사소통의 원리가 되는 세계관을 찾아 제시하는데 까지만 하였다. 적용과 임상 실험에 관한 내용은 다음 연구자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1.3. 기존의 연구 검토와 용어 정의

본 연구를 하기 전 자료를 모으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자 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의식적인 사고에 관한 연구와 자료는 많이 있었다. 그리고 20 세기 후반에는 오일(oil, 석유) 문제로 중동 국가들과 아랍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터키는 유럽과 중동(아랍) 사이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이 1453 년부터 중동과 유럽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터키에 대한 세계관 연구는 미진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극히 미진하였다.

터키에서 유학을 한 학계와 외교 및 선교관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이 몇몇 있다. 이들은 이슬람 안에서의 여성, 이슬람, 역사, 기독교 선교, 정치, 문화에 대한 여러 분야의 연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가운데 터키인들에게 직접적인 설문지를 받고 인터뷰를 하며 터키인들의 세계관 연

구를 한 사례는 없다.

외국인들도 역사, 종교, 미술, 건축, 정치에 대한 연구, 아랍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했지만 터키인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터키인들의 생활방식은 이슬람(종교)에 묻혀 있다. 그래서인지 자신들의 의식구조를 직접 연구한 사례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참고 자료를 사용하였지만 연구자료는 설문으로 조사한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총체적인 이론은 이브라힘 카페소울루(*İbrahim Kafesoğlu*)의 책 “터키 민족 문화(*Türk Milli Kültürü*)”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부분은 현지 터키 고등학교 교과서를 참고했다.¹⁴ 순수 터키인들의 윤리와 도덕을 참고하고자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터키인의 의식구조를 핵심으로 한 연구자료는 부족하였다.

일반적인 터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한국 자료는 몇몇 학자들이 부분적으로 연구한 자료를 참고로 하고, 현대 터키 상황은 널리 알려진 대사관의 자료를 참고하면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현지에 거주하는 이유로 먼저 연구 발표한 것들을 볼 때 변한 것도 있고, 직접 경험한 것들도 있어서 때로는 인용과 연구자의 내용이 겹쳐지기도 했음을 밝혀둔다. 연구자는 터키인들의 세계관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직접 설문하여 확인을 하고자 하였다. 이번 세계관 연구는 의사 소통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¹⁴ 현지 고등학교 교과서를 사용한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발견함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¹⁵ 인용의 원문까지 동일하려고 했다.

1. 이론적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문헌과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2. 현재 21세기 터키인들의 세계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100 문항의 설

연구 절차

1.4. 연구의 절차와 방법

용하였다.

본 연구는 창의적 접근 지역의 사역을 위한 세계관의 연구로써 지역적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지역을 위한 용어를 일반적인 용어로 바꿈으로써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 사회과학 논문으로 보일수도 있다.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용어 설명을 간략히 하고자 한다. 지역 그 자체가 일종의 의사소통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사람은 전달자, 전달받는 사람은 수용자,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워커(worker), 창의적 접근 지역은 현상이란 용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워커(worker), 창의적 접근 지역의 사역을 위한 세계관의 연구로써 지역적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지역을 위한 용어를 일반적인 용어로 바꿈으로써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 사회과학 논문으로 보일수도 있다.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용어 설명을 간략히 하고자 한다. 지역 그 자체가 일종의 의사소통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사람은 전달자, 전달받는 사람은 수용자,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워커(worker), 창의적 접근 지역의 사역을 위한 세계관의 연구로써 지역적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능한 터키 인명과 지명은 터키어로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것은 영어로 통일하고자 했다.¹⁵ 종교 용어는 현상의 언어나 영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창의적 접근 지역의 사역을 위한 세계관의 연구로써 지역적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지역을 위한 용어를 일반적인 용어로 바꿈으로써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 사회과학 논문으로 보일수도 있다.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용어 설명을 간략히 하고자 한다. 지역 그 자체가 일종의 의사소통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사람은 전달자, 전달받는 사람은 수용자,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워커(worker), 창의적 접근 지역의 사역을 위한 세계관의 연구로써 지역적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나오는 용어를 가운데 특히 인명과 지명이 어려웠다. 왜

문지를 터키어로 작성하였다.

3. 터키 81 개도의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N 지역의 N 대학에서 설문 조사를 하였다.
4. SPSS 1.8 프로그램을 통해 설문지 자료를 빈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전개에 있어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 동기와 목적, 문제제기와 범위, 연구 범위와 문제 제기, 기존 연구 조사와 용어 정의, 연구 절차와 방법을 언급하였다. 2 장에서는 세계관의 이론적 개념 고찰을 통하여 세계관의 정의, 위치, 변화, 기능, 요소 등을 문헌을 통하여 약술하였다. 3 장에서는 터키 세계관에 관한 개관으로 명칭과 터키의 환경, 주변 국가 관계, 경제, 가족, 전통, 민족, 언어, 종교 그리고 의식구조를 다루고 중앙아시아에서의 터키와, 아나톨리아에 정착한 터키를 언급함으로써 터키인 세계관의 기초를 살펴 보았다. 4 장에서는 21 세기 터키인의 세계관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 방법과 과정을 약술하였다. N 대학의¹⁶ 현장에서 주어진 설문조사 100 문항을¹⁷ 통하여 실제적인 터키인 엘리트들의 세계관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 핵심으로 사용한 100 문항의 설문지를 현지 조사 하였다.

연구자는 현재 엘리트층의 세계관 분석연구를 위하여 터키의 N 시의 N 대학

¹⁶ N 대학교는 관광대학, 문과 대학, 보건대학, 경영대학, 전문대학으로 5개의 대학이 있다.

¹⁷ A1. 지리적 환경 10문항(A101-A110), B2. 외교와 국제문화 5문항(B201-B205), C3. 경제문제 8문항(C301-C308), D4. 가족과 전통 12문항(D401-D412), E5. 민족과 국가사회 13문항(E501-D513), F6. 민족과 종교 17문항(F601-F617), G7. 의식구조 28문항(G701-728), H8. 한국과 터키 7문항(H801-H807).

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N 도의 도지사와 경찰청의 허락을 받고 최종적으로 대학교의 허락을 받아¹⁸ 교수들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터키 81 개도 각지로부터 와서 공부하는 6,224 명의 학생들¹⁹ 중에 859 명의 설문을 직접 강의실, 식당, 매점에서 받았다.²⁰ 이에 대하여 본 대학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5 장에서는 SPSS 1.8 을 통해 빈도분석을 한 후²¹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설문한 100 문항의 모든 내용을 연구 분석한 다음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6 장에서는 결론으로 평가와 기여도를 제시하고 다음 연구자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비중은 서론을 5%, 본론 중에 세계관의 이론적 개념 고찰 15%, 터키인의 세계관 기초연구 30%, 21 세기 터키인의 세계관 연구 5%, 21 세기 터키인의 세계관 연구 질문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해석 40%, 연구 방법의 평가와 결론을 5%로 비중을 두어 문헌 고찰보다는 '21 세기 터키인의 세계관 연구 질문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해석에' 큰 비중을 두려고 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노트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다루지 못함을 아쉽게 여기며 다음 연구에서 더 자세하게 분석하여 다루고자 한다.

¹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기간을 거쳐 경찰청과 도지사, 본 대학교 총장의 허락을 받았다.

¹⁹ 2010 ~ 2011 총 학생수

²⁰ 2011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859명의 설문을 받았다.

²¹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SPSS 1.8 프로그램에 85,900문항의 자료 입력을 완료하였다.

2. 세계관의 이론적 개념 고찰

2.1. 세계관의 정의

세계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문화권의 세계관을 잘 아는 것은 그들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길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있어 특히 타 문화 간의 메시지 전달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세계관 교류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달자는 수용자의 세계관을 알 때 쉽게 전달 할 수 있다. 의사 전달과 소통에 있어서 전달자가 자신의 문화의 관습으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면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달자의 문화도 수용자의 문화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달자는 메시지의 세계관과 수용자의 세계관을 잘 알아야 한다. 다음에서 세계관을 정의하고자 한다.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눈으로 수없이 많다. 세계관은 광의적으로는 나라별로, 민족별로 다르지만 협의적으로는 가문별로, 개인별로 다르다. “세계관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제임스 사이어(James Sire)는 인격체 수만큼 세계관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¹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가족마다, 민족마다 세계관이 다르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회적인 체계를 벗어날 수 없어 세계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관은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실재(實在:

¹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5, 173.

reality)를 바라보는 관점이며 실재에 대해 생각하는 큰 그림이다.² 실재(實在)는 이 세계가 ‘실제로(實) 존재하는(在)’ 모습 그대로를 뜻한다. 영어로 ‘reality’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실제로(really) 존재하는(being)’그대로의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특정한 렌즈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세계관은 실재를 바라보는 안경과 같다.³ 안점식은 안경의 비유를 말하며 체질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렌즈에 빨간색을 넣으면 세상이 온통 빨갱게 보이고 파란색을 넣으면 온통 파랗게 보인다. 부분적으로 빨갱거나 파랗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통 빨갱게,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관은 전체적(wholistic)이다. 유신론이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계는 유신론의 증거로 가득 차있고, 범신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세계는 범신론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다. 유물론이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계는 유물론의 증거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한 쪽은 빨간색, 다른 한 쪽은 파란색인 안경을 쓰고 다니는 기인(奇人)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관은 그럴 수 없다. 한 쪽은 유신론 렌즈, 다른 한쪽은 무신론 렌즈로 세계를 바라볼 수 없다. 세계관이 지식 차원이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세계관은 내면화되어 몸에 밴 ‘체질’과 같은 것이다.”⁴

세계관은 각자의 안경으로 인간의 세계를 보는 반응을 말한다. 세계관은 존재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존재에 대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림으로 체계가 되면 과학적 단계를 만들고 철학적 단계를 이룬다. 그래서 세계관은 종교, 철학, 이데올로기를 떠날 수 없으며, 세계관은 문화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세계관은 인간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² 안점식, *세계관과 종교*, 서울: 조이선교회, 2009, 20.

³ Ibid., 21.

⁴ Ibid.

세계관은 문화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산물이다. 세계관은 사람들의 사실에 대한 인식들과 그러한 인식들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 그 때에 “그것의 기초가 되는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가정과 가치, 그들에 대한 위임/헌신(commitment/allegiances)들을 일컫는 용어이다(크라프트<Kraft>, 1989:20). 세계관은 그러므로 문화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⁵ 그러므로 세계관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전제들의 구조이다. 세계관은 문화의 일부분으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언제나 문화와 함께 존재한다. 그러므로 타 문화권에서의 사역을 위하여 세계관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세계관은 가정들로 가치와 헌신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는 가치와 충성심의 기초가 된다. 가정들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된 의미에 반응한다. 가정들을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설명하고, 우리 자신을 위임하고 헌신하고, 관계를 맺고 적응하면서 세계관의 경향들을 따르게 된다. “이런 가정들은 실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의 기초를 이룬다. 세계관적 가정들은 인식된 실재에 대한 구조를 제공한다.”⁶

세계관의 형성은 한 문화권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무의식적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관념을 의도적으로 의식화하고 표면화 시키고 체계적으로 서술하면 철학이나 사상이 된다. 이러한 세계관은 사람들의 속에

⁵ 찰스 H. 크라프트, *기독교 문화인류학(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안영권·이대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125.

⁶ Ibid., 126.

서 내면화되고 체질이 되어 이와 같이 형성된 세계관은 자신들만의 특정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사람들은 “특정한 세계관을 통해서(through) 또는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with)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한다.”⁷

세계관은 언어에 많이 함축되어 있다. 언어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수단이 된다. 한 문화에서 신념이나 관념을 형성하는 언어는 개념(concept), 범주(category), 논리(logic)가 된다. 세계관은 종교, 철학, 이데올로기를 떠날 수 없다. 바른 세계관은 개인이 사실 자체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신들이 소유한 종교, 철학, 이데올로기와 항상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철학, 이데올로기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종교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의 본성, 즉 종교성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내용은 세계의 종교들 가운데 힌두교와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힌두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핵심개념에는 우주론, 윤회(Samsara), 해탈(Moksha), 업보(Karma), 법(Dharma), 신(Brahman), 생명(Atman) 등이 있다.⁸

이슬람 세계관을 형성하는 핵심개념에는 알라(Allah), 천사(Malaika), 경전(Kutub), 예언자(Rusul), 마지막 심판(Qadar wal Qada), 운명론(al Yaum al Akhir),⁹ 신앙고백(Shahada), 기도(Salah), 단식(Siyam), 이슬람세(Zakat), 메카 순

⁷ 안집석, 22.

⁸ <http://ko.wikipedia.org/wiki/%ED%9E%8C%EB%91%90%EA%B5%90> (2011.11.25)

⁹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슬람은?, IslamHouse.com, 2006, 2-3.

례(Hajj),¹⁰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말하거나 증언하는 것(Tawheed), 최후의 사도, 인간의 창조본성(Fitrah), 계승자(Khalifah)가 있다.¹¹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핵심개념에는 창조(Creation), 삼위일체(Trinity), 십자가(Cross), 사랑(Love), 용서(Forgiveness), 칭의(Justification), 대속(Atonement), 부활(Resurrection) 등이 있다. 이런 말들은 기독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말들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관을 정의하면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눈으로 수없이 많아서 사람의 수와 같이 많이 있다. 그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계관은 각자의 안경으로 인간의 세계를 보는 반응을 말한다. 세계관은 문화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산물로서 세계관의 형성은 한 문화권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무의식적 가운데 이루어진다. 또한 세계관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많이 함축되어 있다.

2.2. 세계관의 위치

세계관을 말하면서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특별히 세계관의 위치를 말하려면 문화를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문화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인이라고 할 때 독서를 하고, 음악회를 가고, 갤러리에서 그

¹⁰ 최영길, *이슬람문화*, 서울: 알림, 2000, 134-163.

¹¹ 한국이슬람중앙회, *이슬람의 세계관*, 후세인 크르테미라 번역, IslamHouse.com, 2009, 33-44.

림을 감상하고, 고급 음식점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으로 문화 생활을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받고 중산층 이상의 수입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을 문화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문화’란 단어를 다른 기능적인 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단어를 정의해야 할지에 관하여 그들 간의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폴 히버트는 문화를 이렇게 정의 한다.

“우리는 문화를 ‘관념과 감정과 가치의 통합된 체계 및 이와 연관된 행위의 형태와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조직하고 규칙화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하여 공유된 산물’이라고 정의한 것이다.”¹²

세계관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다. 폴 히버트가 말하는 문화의 가치가 바로 세계관인 것이다. 세계관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관은 문화 가운데 만들어진단. 그런데 문화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미 주어진 문화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 문화의 영향아래 있는 가정,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사회화(socialization), 문화화(enculturation)된다.”¹³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과 사회에서 문화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세계관은 문화의 핵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여러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 구조의 가장 가운데 핵으로 세계관이 있다. 세계관을 둘러 싸고 있는 것이 가치체계이다. 또한 가치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행동양식이다.

¹² 폴 G. 히버트, *선교와 문화인류학(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흥호 옮김,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2005, 41.

¹³ 안점식, 28.

세계관은 문화의 세 가지 층 가운데 가장 심층부에 있음을 말한다. “행동양식은 가치체계에서 나오고, 가치체계는 세계관에서 나온다.”¹⁴

문화의 행동양식은 가장 바깥 층으로서 가시적으로 포착되는 문화 영역이다.¹⁵ 가치체계도 주어진 문화만큼이나 다양하다. 어느 사회나 질서를 위해 사회규범, 도덕규범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사회규범과 도덕규범을 결정하는 것이 세계관이다. 사회 속에 규범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때로는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다.¹⁶

그러므로 세계관이 바뀌면 가치체계도 바뀌고 행동양식도 바뀐다. 세계관에는 서열이 있는데 아래의 내용들은 크래프트 (Charles H. Kraft)가 말한 세계관의 성격을 정리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1) 세계관적 가정들 또는 전제들은 논리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선험적 증거가 없더라도 참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¹⁷ 세계관은 그 가정에 대해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정들은 문화의 구조 속에 깊이 침입해 있다. 표면적 차원의 관습들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전제에서 유래한 행위적 행동(behavioral acting)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아주 설득력 있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 전해진다. 사회 구성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¹⁸

2) 한 민족의 세계관은 그 구성원들에게 실제(reality)를 인식하고 해석하게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안경, 모델 혹은 지도를 제공한다.¹⁹ 그래서 한 세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은 각자 해당 사회의 세계관적 지도를 따라 살아갈 것과, 세상을 바라볼 때 무의식적으로 해당 사회의 세계관적 안경을 통해 볼 것을 배우고 결과적으로 종래는 각자가 배운 대부분의 해석 방법들을 따라 살게 된다.²⁰

3)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세계관에 따라 삶과 경험들을 조직적으로 설명할

¹⁴ Ibid., 32.

¹⁵ Ibid., 29.

¹⁶ 연구자 주: 양심의 버림에 대하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버린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다.

¹⁷ 크래프트, *기독교문화인류학*, 131.

¹⁸ Ibid.

¹⁹ Ibid., 133.

²⁰ Ibid.

수 있는 전체적 체계를 만든다.²¹

4) 서로 다른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접촉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²² 동일한 사회에서는 다른 전제를 가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있다면 문화 충격이 있게 된다.

5) 실제 삶에 있어서는 사람들과 세계관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과 세계관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세계관의 가정들에 기초한 행위가 없이 사람들은 어떤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행동할 수도 없다.²³

‘사람은 세계관적 기준을 따르면서 인식적, 정서적, 가치 평가적으로 기능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과 구조를 따로 분석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구조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평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²⁴

세계관의 위치는 문화 가운데 핵으로 존재한다. 세계관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고는 나설 수 없다. 모든 행동양식과 가치체계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세계관은 어떤 가정에 의해 증명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삶(행동)의 모델을 이룬다. 그들만의 조직 체계를 만들고 다른 문화 속에 동요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만 행동하는 삶을 이루게 된다.

2.3. 세계관의 변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 가운데 태어난다. 한 나라, 한 가정에서조차 다르다. 세계관 정의에서 세계관은 사람 수만큼이나 많다고 언급했었다. 각각 다른 시각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현실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한 문화의 믿음과 행위 이면에 있는 현실

²¹ Ibid.

²² Ibid.

²³ Ibid., 135.

²⁴ Ibid., 136.

에 관한 기본적인 전제를 때로는 세계관이라고 부른다.”²⁵ 이러한 세계관은 자신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안정감을 갖고 싶어하고 자신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거부감으로 인해 다른 문화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세계관이 다른 메시지 전달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메시지 수용자에게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수용자의 갈등이 적으면 수용자는 그 동안 신뢰하던 자신의 믿음을 변경하거나 행위를 고쳐 세계관의 변화를 이룬다.

세계관의 변화 속에 나타난 충돌은 다른 문화와 의사소통에 있어서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다른 문화와 충돌이 있을 때 갈등은 항상 동반하다.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접근은 항상 건전한가?’²⁶ 그렇다고 충돌로 인한 갈등이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핵심 세계관의 충돌이 유발하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의사소통의 질을 나타낸다. 바로 메시지 전달의 척도가 된다.

세계관의 변화로 인한 갈등은 자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갈등에 대하여 칼리 H. 도드(Carley H. Dodd)와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칼리 H. 도드는 “갈등은 다양한 원인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많은 갈등의 배경에는 ‘문화 기대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다는 근본 원칙에 동의한다. 문화 갈등의 영역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의사소통의 적응을 위

²⁵ 히버트, *선교와 문화인류학*, 62.

²⁶ 김민선, *인간 커뮤니케이션 비서구적관점(Non-Western Perspectives on Human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범기수 박기순 우자수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56.

한 기술과 우리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²⁷ 또한 에드워드 홀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그 차이를 일반적인 용어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추구하면서 나는 무엇보다도 특정한 문화를 설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단일한 시금석은 없다는 점을 확신했다”고 한다.²⁸ 교차문화에서 의사소통은 충돌을 피할 수 없지만 최대의 완충작용을 위하여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기대감을 최소로 가지며, 의사소통의 접근 방법에 대하여 항상 점검하는 것이 충돌 중에도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이다.

세계관의 변화는 과정이 있다. 변화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에 있어서 <예전의 안정된 단계-위기적 상황-새로운 안정된 상태>를 말한 안토니 월라스 (Anthony Wallace, 1956)의 이해를 차용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적인 평정상태이다. 모든 체계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잘 유지될 것 같아 보인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들의 안정된 상태에 가해지는 몇 가지 급진적 도전들이 해당 사회로 도입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오던 가치들과 그에 대한 신뢰감이 새로운 조성된 환경 때문에 점차 의문의 대상이 되어 간다. 전통적인 가정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세 번째 단계는 위기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방법이 나타난다. 새롭게 조성된 안정된 상태 내에서 생존을 이어간다. 새로운 상태가 정착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상태야말로 해당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이다.²⁹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 과정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수용자의 문화와 사회적 기반 속에 있는 수용자의 세계관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²⁷ 칼리 H. 도드, *문화를 초월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임현만 역, 서울: 그리심, 2008, 302.

²⁸ 에드워드 홀, *침묵의 언어(The Silent Language)*, 최효선 옮김, 경기: 한길사, 2009, 66.

²⁹ 크레프트, *기독교문화인류학*, 864.

첫째는 세계관의 충돌이 발생하는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다른 문화 안에서 여러 부분들끼리 갖는 상호 연결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문화와 연결 할 수 있는 것은 표면적인 것부터 핵의 차원에까지 잘 활용할 때 메시지 전달이 잘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는 전체 형태의 응집력이다. 만일 메시지 수용자의 사회가 세계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생존한다면, 이는 수용자의 사회의 생활 방식을 유지시켜 주는 문화적 아교역할인 민족적 응집력을 유지했거나 회복했기 때문이다. 응집력을 손상 입은 곳이 있다면 메시지 전달자는 그 응집력을 회복시켜 주고 재건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넷째는 평정상태의 유지이다. 메시지 수용자들은 세계관이 충돌할 때에 갈등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균형을 상실하기 쉽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변화하면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생활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적절히 흡수 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럴 때 불만족을 표시한다. 메시지 전달자는 사회의 균형을 더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관 변화에 대한 동적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접근 방법 들이 있다. 다른 모든 문화권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를 문화변화로 시작하도록 해 주는 완전한 기술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변혁적 변화에 대한 건설적인 접근 방법의 중요한 부분은 주창자와 실행자 또는 주창자와 혁신자를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바네트< Barnett>, 1953).³⁰

여기서 말하는 주창자는 메시지 전달자로 오직 주창할 수 있을 뿐 결코 실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메시지 전달자는 추천은 할 수 있어도 결코 사실에 대한 존재를 도입하거나 수용자들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른 문화의 역동성이 갖고있는 성격은 오직 메시지 수용자 만이 변화를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은 모든 종류의 문화의 변화 속에는 근본적으로 사고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바네트< Barnett>, 1953; 루즈베타<Luzbetak>, 1963).³¹ 진정한 변혁적 변화는 표면의 변화가 아닌 문화의 핵인 세계관 차원에 존재하는 변화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원리들은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측면을 제공해 준다. 만약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이고 자 한다면 전달자(S-Source 혹은 기원자)가 수용자들(R-Receiver)에게 메시지(M-Message)를 전달할 때 수용자들이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수용자들이 받는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메시지 전달자들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한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분석인데 분석은 연구

³⁰ Ibid., 876.

³¹ Ibid., 877.

에서 한 차원 더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분석을 기반으로 변혁적 변화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재 시도할 수 있게 하는 시험적인 전략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³²

다른 문화권에서 메시지 수용자들의 변혁적 변화를 위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메시지 전달자가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적 주제들을 선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수용자들과의 메시지 접촉을 시작하는 ‘수단의 계획’과 이것이 전달자의 의도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문화와의 의사소통의 장애물에는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와 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가 있다.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는 오직 하나의 문화와 언어만 알고 자란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한정된 문화적 경험만을 해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알지 못한다. 단일문화주의 자들은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문화의 환경들에 대한 실상의 인식을 투사 한다. 그러므로 단일문화주의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다는 가정 하에,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가져온다.³³

단일문화주의 자들의 입장들의 유형들 가운데는 절충적 문화주의(eclectic monoculturalism)가 있다.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다른 문화들로부터 좋은 것은 차용하여 동화시키고 나쁜 것들은 버리면서 자기

³² Ibid., 882-884.

³³ 개런 벤 뢰넨, *선교학 개론(Missions)*, 홍기영 홍은표 옮김, 서울: 서로사랑, 2000, 190.

들의 문화가 더 좋은 문화가 되었다는 점을 암시한다.³⁴ 반동적 단일문화주의 (reactionary monoculturalism)는 본인들의 문화를 비웃으며 현지 문화를 좋게 여긴다.³⁵

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는 ‘우리문화가 너희문화보다 나아’라고 말한다. 이기주의가 개인적 차원이라면 민족중심주의는 문화적 차원이다. 문화중심주의는 인종주의, 지역주의 내지 부족주의, 민족주의(racism, tribalism, nationalism)의 기초이다.³⁶

단일문화주의와 민족중심주의와 다르게 문화상대주의는 다른 문화의 타당성을 존중하듯 자기 문화의 타당성을 신중히 취급한다. 문화상대주의는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다른 문화에 대하여 전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한 자리에 설 수 없다. 모든 문화는 그 문화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제각기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보다 많은 문화 접촉으로 파악하게 되는 문화의 핵심은 문화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 존경을 말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문화에 접근하는 가운데 단일문화주의와 민족중심주의를 탈피하고 변화에 대한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습과 문화를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전달자는 메시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수용자 지향적으로 문화를 이해하며 전달해야 한다. 단일문화주의는

³⁴ Ibid., 202.

³⁵ Ibid., 203.

³⁶ Ibid., 191.

세계관의 기능은 문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당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문화를 강조하는 전제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다르르게 하고 있다. “첫째로 세계관은 여러 체계 속에서 민음을 위한 이성적 정당성을 제공하면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적 기초를 제공한다. 둘째로 세계관은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셋째로 세계관은 경험을 평가하며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데 가장 깊숙한 문화적 규범을 정당화시킨다. 넷째로 세계관은

2.4. 세계관의 기능

사람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 가운데 태어난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이 다른 것만큼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은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 속에 타단 충돌은 다른 문화와 의사소통 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계관의 충돌에는 관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등은 세계관의 변화 과정이 있다. 세계관의 변화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 세계관의 변화가 관 이류 여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서로가 좋을 수 있다. 관등은 최상을 향한 진로 라고 볼 수 있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단지 자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야가 좁다는 것이다. 단일문화주의와 민족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를 통합한다.”³⁷

세계관은 스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래의 세계관의 기능들은 찰스 크래프트(Charles H. Kraft)가 기초적 차원의 기능 의미부여 차원의 기능, 그리고 의미에 반응하는 기능을 요약한 것이다.

기초적 차원의 기능: 우선적 차원의 특성인데 이것은 깊고 개인적 성격의 기초가 되는 구조에 대한 것들이다. 이러한 특성에는 의지표명, 감정의 표현, 추론, 동기부여 그리고 전제들이 있다.³⁸

첫째는 소유한 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경향화이다.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동일한 선택방법과 결정방법에 대해 배웠다. 그래서 ‘그룹으로부터 떠나 해매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말을 듣는다.

둘째는 감정표현에 대한 경향화이다. 모든 사회는 감정의 사용을 구조화 한다. 그래서 어떤 사회들은 감정표현을 매우 억제하도록 한다.

셋째는 논리와 추론에 대한 경향화이다. 각기 다양한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추론한다.

넷째는 세계관적 가정들은 또한 동기에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동기부여는, 세계관적 차원의 다양한 경향화 때문에 각 사회마다 그 방식이 다르다.³⁹

의미부여 차원의 기능: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행동일 것이다. 의미부여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단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⁴⁰

첫째는 해석하기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들에 관해 해석하는 법을 배웠다. 의미부여는 문화적 형식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 사회적으로 동의한 것에 기초하여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³⁷ 히버트, *선교와 문화인류학*, 66-67.

³⁸ 크래프트, *기독교 문화인류학*, 136.

³⁹ Ibid., 137.

⁴⁰ Ibid., 139.

둘째는 평가하기이다. 사람들은 해석 하는 것처럼 또한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하는 것, 즉 의미에 대해 ‘느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평가적 가정들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준다.⁴¹

의미에 반응하는 기능: 사람들이 스스로 부여한 의미에 반응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 신뢰감을 서약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 적응하는 방식, 규칙을 규정하는 방식, 심리적 강화를 갖는 방식, 그리고 삶과 삶을 구조화 하는 방식이 있다.⁴²

첫째는 설명하는 경향이다. 설명을 위한 가정들은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 또는 존재하게 될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는 충성을 서약하는 경향이다. 사람들의 충성심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지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세계관을 통해 추정하고 가치를 매기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 분석하고, 분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에 대해 다양한 헌신을 하게 된다.

셋째는 관계를 맺는 경향이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가정들을 제공한다. 사람들을 자신의 그룹에 둘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외부에 놓여지면 무시되거나 권리가 유보되고 심지어는 적으로 취급을 받는다.

넷째는 적응하는 경향이다. 세계관의 지침을 따른다 하더라도 삶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다. 믿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세계관 가정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도전이 너무 강력하거나 몇 가지 이유에서 세계관적 가정들이 변화에 대한 압력을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세계관은 신뢰를 잃게 된다.

다섯째는 규칙을 규정하는 경향이다. 각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행위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지침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지침들은 세계관적 가정들, 특히 가치 평가적 가정들에 기초하고 있다.

여섯째는 심리적 강화를 위한 경향이다. 세계관적 차원에서 질서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하게 된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변화의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세계관적 가정들에 대해 배운다.

일곱째는 삶과 삶이 구조화되는 경향이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하는 경향은 사회 속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같은 가정들을 가지게 하고 하나로 묶는 일종의 아교 역할을 한다.⁴³

세계관의 기능은 문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당성을 만들어준다.

⁴¹ Ibid., 139-140.

⁴² Ibid., 140.

⁴³ Ibid., 140-146.

그러므로 개인의 성격을 이루는 기초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세계관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생각하고 어떤 일을 받아들이기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받는다. 의미부여는 매우 중요하다. 메시지 전달자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질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평가를 해야한다. 메시지 자체의 본질을 떠나 전달자의 세계관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바르게 전달을 할 수 없다.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세계관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되면 전달된 메시지의 의미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해를 하기 위하여 설명을 듣거나, 바로 받아들이면 충성심을 서약하게 된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적응하고, 새로운 일에 규칙을 정하고, 세계관적 차원에서 질서가 세워지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된다. 이 안정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또 다른 것들과 통합을 하려고 한다.

2.5. 세계관의 요소

모든 세계관들이 다루는 삶의 영역들에 가운데 세계관의 보편적인 6가지 요소들인 분류화, 사람/그룹, 인과관계(因果關係), 시간, 공간, 다양한 요소들과 문화간의 관계를 말함에 크래프트가 정리한 케니어(Kearny, 1984)의 주장을 요약하였다.

세계관 요소는 분류화이다.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에 설정되어 있는

46 Ibid.

45 Ibid., 147

44 Ibid., 146.

세계관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암호화 한다. 시간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계절 그리고 다른 순환 주기들에 따라 개념화 된다. 대부분은 사건 지

적이지, 원인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⁴⁶

세계관은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문제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들은 세력과 원인에 대한 질문들이다. 우주의 힘, 그 힘들의 결과, 인격적이지 아닌

존경 받지 못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알아야 한다.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개인으로 이해 할 것이지, 집단으로 볼 것이지 결정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노인과 젊은이, 부모와 자녀, 사람과 물체과의 관계, 빈부, 사람들의 성품, 지혜자와 지혜가 부족한 사람, 존경 받는 사람과

한다.⁴⁵

세계관 요소는 인간/그물이다. 인간세계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의 내

다.

이런 분류화는 동물이는 사람이든, 물체적 대상이든 혹은 사회적 범주들이든, 자연적 사실의 존재이든 혹은 조자연적 사실의 존재이든, 가시적인 것은 비가시적인 것이든 간에 모든 것들에 등극을 매긴다. 그리고 그 것들과 비슷하다고 믿어지는 다른 항목들과 함께 다시 한 그물으로 묶게 된다.

변주들에 의거하여, 자신이 인식한 사실의 존재를 분류한다.⁴⁴

향적이나 서구는 시간 지향적이다.⁴⁷

세계관은 공간에 대한 가정들을 소유하고 있다. 건물의 공간, 지형이나 전체로서의 우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관련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규칙들을 제공한다.⁴⁸

세계관의 다양한 요소들과 문화 간의 관계들에 대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인간과 그룹의 분류화, 시간과 공간, 특정한 원인과 다른 원인과의 관계이든 상관없이 관련 짓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⁴⁹

세계관의 요소는 세계관을 이루는 양식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다. 인간과의 본질적인 관계와, 세상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음을 생각한다.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떠날 수 없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인지 복종하는 것인지, 정착과 움직임에 대한 답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서로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세계관은 이런 관계의 지침을 제공한다.

⁴⁷ Ibid., 148.

⁴⁸ Ibid.

⁴⁹ Ibid., 149.

3. 터키인의 세계관 기초연구

3.1. 터키 개관

3.1.1. 명칭과 지리적 환경

터키의 공식 명칭은 터키 공화국(Türkiye Cumhuriyeti 튀르키예 줌후리예티)이다.¹ 줄여서 튀르키예(Türkiye)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는 터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터키’라고 부른다.

터키라는 이름의 유래는 구약성경의² “야벳(Japheth)의 손자 도갈마 <Togharma>(J. V. Hammer, 1832)”³를 말하면서 특히 “튀르크 족의 기원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구전에 따르면 그 조상을 구약 성경의 노아(Noah)의 아들이 야벳(Japheth)과 연결시키고 있다.”⁴ 튀르크(Türk)란 의미에 대하여 중앙아시아 터키역사 학자인 이브라힘 카페소울루(İbrahim Kafesoğlu)는 “권력 또는 힘(güç-kuvvet)”으로 형용사 “강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

터키는 북위 26°에서 42°, 동경 26°에서 45°에 위치하고 있다.⁶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한 반도이다.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 도시 İzmir(이즈미르)

¹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1982. 5.

² 창세기 10:1-3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 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³ İbrahim Kafesoğlu, TÜRK MİLLİ KÜLTÜR, Ötüken, İstanbul, 1998. 43.

‘Targita’ (J. V. Hammer, 1832), ‘Tyrkae’(W. Tomaschek, 1887), 야벳의 손자 ‘Togharma’ (J. V. Hammer, 1832), ‘Turukha’(V. de St. Martin, 1899; J. Marquart, 1901), ‘Thrak’(F. Erdmann, 1862), ‘Turukku’(H. Z. Koşayö 1955), ‘Tik’(De Groot, 1921)를 말하고 있다.

⁴ 이희수, *터키史*,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0, 3.

⁵ Kafesoğlu, 44.

⁶ Anna G. Edmonds, *TURKEY'S RELIGIOUS SITES*, Istanbul: Damko, 1998, 19.

에서 동쪽 도시 Van(반)까지는 1450km, 면적은 780,000 km² 이다.⁷ 서남아시아의 아나톨리아(Anadolu: Anatolia)와 유럽 남동부 발칸 반도의 동부 트라키아(Trakya: Thracia)에 걸친 나라이며, 수도는 앙카라(Ankara)이다. 터키는 여덟 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북서쪽으로는 불가리아(Bulgaria), 서쪽으로는 그리스(Greece), 북동쪽으로는 그루지야(Georgia),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월경지인 나히체반<Nakhichevan>), 이란(Iran), 남동쪽으로는 이라크(Iraq)와 시리아(Syria)가 있으며, 북쪽에는 흑해(Black Sea)가 있다. 아나톨리아(Anadolu: Anatolia)와 동(東) 트라키아(Trakya: Thracia) 사이로는 마르마라해(Sea of Marmara), 차낙칼레 해협(Çanakkale Boğazı: Dardanelles), 보아지치 해협(Boğaziçi: Bosphorus) 이 있는데, 이 곳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 인식되어 터키는 두 대륙에 걸친 나라이므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있다.

터키는 특이한 나라 중 하나로 이유는 머물고 있는 땅과 민족의 역사가 다른(different) 나라 가운데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탈라스(Talas) 강 전투⁸ 이후 150 년 후에 중동에서 큰 제국(셀주크와 오스만)을 이루어 1,000 년을 살았다. 그리고 셀주크와 오스만을 거쳐 현재 터키는 나머지 아나톨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들의 민족이 중앙아시아로

⁷ Neil Wilson, *DISCOVER TURKEY*, Oxford: Berlitz, 1995. 7.

⁸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상)*, 서울: 퍼네기, 2003, 118.

751년7월 중국 당나라는 위그르와, 아랍 이슬람 압바스는 티베트, 돌궐계 카를룩(Karluk)과 연합하여 중앙아시아 타슈켄트(Tashkent) 부근 탈라스(Talas) 강 유역에서 충돌하여 아랍, 티베트, 카를룩 군의 승리로 끝났다.

부터 아나톨라아로 이동하여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땅이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곳이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형편이다. 그래서 터키의 역사학자들과 문화인류학 학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가 노아(Noah)의 아들 야벳(Japheth) 손자 도갈마(Togarmah)의 족속이 자신의 조상들로 현재의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임을 정리하여 그대로 받아드리고 있다.

3.1.2. 주변국과의 관계와 경제

터키는 유럽 이사회, 북대서양 조약기구, OECD, WEOG, G20 와 같은 국제 기구에 가입하여 서방 세계와 점차 통합하고 있다. 터키는 1963 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준 회원국이었으며 1995 년에는 관세 동맹 협정을 맺었고, 2005 년에는 유럽 연합의 정 회원국 가입 협상을 시작하였다. 터키는 또 이슬람 회의 기구(OIC)와 경제 협력 기구(ECO)에 가입하여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위시한 동양과 문화, 정치, 경제, 산업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에서는 터키를 선진국으로 분류하며, 세계의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지역 강국으로 여기고 있다.⁹

터키는 1923 년 공화국 수립 이후 1970 년까지는 농업중심의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철강, 시멘트, 에너지, 화학 등 기간산업을 공기업 육성책을 통해 발전시켰다. 1980 년대 이래 민간중심의 자유시장 경제 체

⁹ <http://ko.wikipedia.org/wiki/%ED%84%B0%ED%82%A4> (2011.11.02).

제로의 개혁이 추진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누적으로 1994년 극심한 경기 침체와 위기를 겪었다.¹⁰

이후 1995년부터 1998년중 4~8%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지나친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연간 50~70%에 달하는 만성적인 고(高)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재정적자 누적과 이에 따른 대내외 국가채무도 계속 누적되었다.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금융 위기를 급격히 회복하고, 2005년 1월 1일에 1,000,000TL을 1YTL로 2010년 1월 1일에 1YTL을 1TL로 두 번의 화폐개혁과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¹¹ 2011년 기준 1인당 GDP는\$15,137이다.¹²

터키는 여러 나라를 국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근대 터키에 이르러는 아랍에서 떠나 유럽으로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군대까지도 유럽과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적으로 유럽에 합류하고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가로 막고 있다. 그들의 경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번에 걸친 화폐개혁과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현재는 G20에 속하는 경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¹⁰ 외교통상부 유럽국 중유럽과, *터키개황 2010*, 서울: 외교통상부 유럽국 중유럽과, 2010, 51.

¹¹ Ibid., 4.

¹² http://tr.wikipedia.org/wiki/T%C3%BCrkiye'de_iller_baz%C4%B1nda_ki%C5%9Fi_ba%C5%9F%C4%B1na_d%C3%BC%C5%9Fen_v%C4%B1ll%C4%B1k_milli_gelir (2012.02.06)

3.1.3. 가족과 전통

터키의 기본적 사회단위는 가족이다. 옛날에 터키인 대부분은 부부 및 미혼의 자녀로 이루어진 대가족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한 자식과 그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다.¹³ 현대 터키 헌법은 1927 년 터키는 스위스 민법을 받아들임으로써 1930 년에 일부 다처제가 폐지되었고, 1934 년에는 여성에게 이혼의 권리를 부여하였다.¹⁴

터키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의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농촌의 전통적인 사회구조는 가부장제의 대가족으로서 농촌사회를 지탱시키는 기본이 되고 있으며,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가정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가족과 분리되어서 행동할 수 없다. 농촌지역에서의 가족의 존재는 소규모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노동력의 제공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터키인들은 친족과 가족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가족 및 친족의 존재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소규모 집합체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은 가정의 권위를 존중하며 연장자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터키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젊은 계층 사이에서는 대가족 제도보다는 독립된 핵가족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전통적 남녀관계에서

¹³ Kafesoğlu, 228.

¹⁴ <http://www.ak-der.org/soru-ve-cevaplarla-kadinin-insan-haklari-2010--1-.gbt> (2011.11.15)

도 탈피하여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가 부여되었다.¹⁵

터키에서는 이슬람교보다 전통적 윤리를 더 중요시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서구화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층간 윤리관의 차이가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도시의 중산층의 시민들보다는 시골과 지방의 보수적인 소도시의 거주민들이 전통적 윤리에 더 매여 있다.

터키인의 일반적인 윤리는 이슬람교 신앙과 가치관을 규정하는 코란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지탱시키고 활성화하는 모든 행동규범을 권장하고 있다. 종교윤리에는 의무행위 및 권고사항, 중용적 행위, 혐오사항, 금지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⁶

대부분의 터키인은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다. 터키인들은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다. 때로는 자신의 집에서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사지고 와서 신기도 한다. 주인은 집에서 마련한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손님에게 내어 주기도 한다. 실내에서 앉는 것은 의자에 앉기도 하고 바닥에 앉기도 한다. 잠자리는 침대를 사용한다.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주인은 콜로니아수(kolonya su: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알코올)을 뿌려주고, 초콜렛이나 사탕을 주어 편안하게 있기를 원한다. 터키인을 방문할 경우 사탕이나 과일, 꽃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도 좋다. 터키인들은 손님접대를 정성껏 하는 편이며, 손님접대 시에는 터키 차이(çay 茶)나 커피, 펀дук(fındık: 땅콩, 호박씨, 아몬드, 콩과 같은 견과류)를 대접한다.

¹⁵ <http://100.naver.com/100.nhn?docid=713751> (2011.11.15)

¹⁶ 외교통상부, 73.

터키인들은 근대 터키에 들어서면서 성(姓)을 가지게 되었다. 터키인들은 성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이 공포된 1934 년 이전에는 성을 사용하지 않았다.¹⁷ 이런 터키인들의 이름과 성은 재미있다. 이름 중에 라마잔(Ramazan)이나¹⁸ 바이람(Bayram: 휴일)이 많다. 이것은 라마잔 종교 기념일에 출생하여 부모들이 이름을 지은 것이다. 성 중에는 쿨락스즈올루(Kulaksızoğlu: 귀가 없는 아들), 토팔올루(Topaloğlu: 절름바리), 파르막스즈올루(Parmaksızoğlu: 손가락 없는 아들)같이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낸 성을 사용되기도 한다. 아래의 이름에 관한 내용은 이회철의 “터키”에서 쓴 것을 요약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다.¹⁹

아버지의 하는 일에 따라 성을 만든 경우도 많다. 출하올루(Çulhaoğlu: 직공 아들), 사라치올루(Saraçoğlu: 가죽제품업자 아들), 퀴르크치올루(Kürkçüoğlu: 모피장사 아들), 보야즈올루(Boyacıoğlu: 염색업자 아들), 케밥츠올루(Kebapçıoğlu: 케밥장사 아들)가 있다.

동네에서의 직업으로 특징을 짓는 이름도 있다. 발즈(Balçı: 양봉쟁이), 야프즈(Yapıcı: 건설업자), 사브즈(Savcı: 검사), 제베지(Cebeci: 병기<무기> 만드는 사람) 등의 직업을 특징으로 하는 성이 있다.

터키인이라는 의미의 ‘튀르크 Türk’라는 단어를 포함한 성도 있다. 외즈튀르크(Öztürk: 진짜 터키인), 딘츠튀르크(Dinçtürk: 원기 왕성한 터키인), 이

¹⁷ 이회철, 177.

¹⁸ 터키에서는 ‘라마잔(Ramzan)’이라고 하는 종교기념일을 아랍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라마단(Ramadan)’이라고 한다.

¹⁹ 이회철, 178.

을마즈튀르크(Yılmaztürk: 꺾길 줄 모르는 터키인), 쉐튀르크(Şentürk: 행복한 터키인) 등이 있다.

출신지역을 따른 성도 있다. 이즈미를리(İzmirli: 이즈미르 사람), 부르살르(Bursalı: 부르사 사람) 등이 있다.

특징을 주어 만든 성도 있다. 키바르(Kibar: 잘 교육받은), 칼렘리(Kallemlı: 펜을 쥔 사람), 외즈윈테르(Özönder: 진짜 지도자), 크반치(Kıvanç: 영광), 빌긴(Bilgin: 학자), 아타치(Ataç: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 에브렌(Evren: 우주), 쏘이살(Soysal: 귀족 출신), 알튼프나르(Altınpınar : 황금으로 된 샘) 등이 있다.

터키인들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성보다는 이름을 불러줘야 더 친근감을 느낀다. 성으로 부르면 딱딱한 느낌을 갖지만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수를 사용하면 존경어가 된다. 예를 들면 센(sen)보다는 시즈(siz)를 사용하면 된다.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말의 터키어 표현으로 (나슬슨? Nasılsın?) 보다는 나슬스느즈(Nasılsınız?)를 사용하면 존경어가 된다.

터키인들은 대화를 하거나 가족과 인사를 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동양인과 같이 친척의 칭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암자(Amca: 삼촌), 할라(Hala: 고모), 다이으(Dayı: 외삼촌), 테이제(Teyze: 이모), 데데(Dede: 할아버지)로 부른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도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예에님(Yeğenim: 내 조카), 올룸(Oğlum: 내 아들), 크즘(Kızım: 내 딸)등 으로 부른다. 그리고 손위 남자들을 자주 만난다면 호칭의 약속을 하기도 한다. 암자(Amca:

삼촌)보다는 아-베이(Ağabey: 형, 오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손위 여자들을 자주 만나 부를 때는 아블라(Abla: 언니, 누나)라고 부른다. 상인들이 고객에게 이렇게 호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호칭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중앙아시아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터키의 기본적 사회단위는 가족이다. 그리고 터키인들은 친족과 가족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하여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이슬람교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그들은 민족과 살고 있는 땅이 다른 민족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터키인은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다. 예전에 터키인들은 성(姓)이 없었다. 근대 터키에 들어서면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아타튀르크(Atatürk)에 의하여 성(姓)을 가지게 되었다. 터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부를 때는 성보다는 이름을 불러줘야 더 친근감을 느낀다. 그러나 존칭을 할 때는 이름보다는 성을 부른다. 터키인들은 대화를 하거나 가족과 인사를 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동양과 같이 친척의 칭호를 사용한다.

3.1.4. 민족 구성과 언어

튀르키예(Türkiye)는 국명이고, 튀르크(Türk)는 형용사로 종족을 지칭

한다.²⁰ 일반적으로 터키라고 부는데 터키(Turkey)는 영어표기에서 왔다. 터키 헌법 제 66 항에서는 “시민권을 통해 터키 국토 내에 속하는 사람”을 터키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인 의미의 “터키인”은 인종상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민족 구성에 대하여 위키백과에서 정리한 것을 인용하였다.

터키 국민 대다수가 터키 민족이다. 그 밖에 주요 민족 집단(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셀주크와 오스만 제국 시대에 이미 널리 터키화되었다.)으로는 압하스인(Abkhazian), 아자르인(Adzharian), 알바니아인(Albanian), 아랍인(Arabian), 아시리아인(Assyrian), 보스니아(Bosnia) 무슬림, 체르케스인(Circassian), 험신인(Hemshinian), 쿠르드인(Kurdish), 라즈인(Laz), 롬(Rom)족, 자자스인(Zazaish), 러시아인(Russians), 그루지야인(Georgian), 아제르바이잔인(Azerbaijani) 등이 있고, 아르메니아인(Armenian), 그리스인(Greeks), 유대인(Jewish)은 로잔 조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된 소수 민족이다. 1923 년 1 월 30 일에 체결된 그리스-터키 인구 교환 상호 합의가 1920 년대에 발효되어 거의 150 만에 이르는 터키 내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로, 그리스 내 터키인 약 500,000 명이 터키로 서로 이주하였다. 서유럽에 기원을 둔 소수 집단으로는 중세 시대부터 터키 땅(주로 이스탄불과 이즈미르)에서 살던 레반트인(대부분 프랑스, 제노바, 베네치아 혈통이다)과, 19 세기부터 터키에 살던 보스포로스 독일인과 이스탄불 폴란드인이 있다. 또 아프리카계 터키인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국토 서부 해안 도시에 살고 있으며, 주로 지역 주민과 통혼하여 섞여 산다. 국토 남동부 주에 주로 집중된 쿠르드인은 터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터키계 민족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 민족 이외에 다른 소수 민족은 특별한 지위가 없으며, 터키에서 '소수 민족'이란 용어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터키의 인구 조사에서는 인종 관련 수치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터키의 정확한 민족 분포에 대해 믿을 만한 자료가 없다.²¹

하지만 터키 정부 통계청 2010 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구 수는 73,722,988 명이다.²² 민족의 분포는 터키족이 90%, 쿠르드족이 약 1,000 만 명, 아랍인이 50 만명, 아르메니아인이 5 만명 그리고 기타는 그리스인, 유태인 등으로 되어있다.²³ 만족도를 나타내는 터키인의 행복만족도는 61.2%

²⁰ 이희수, 교회사, 1.

이희수는 ‘터키’라고 기록했지만 연구자는 ‘튀르키예’라고 기록하고자 한다.

²¹ http://ko.wikipedia.org/wiki/%ED%84%B0%ED%82%A4#.EC.9D.B8.EA.B5.AC_.ED.98.84.ED.99.A9 (1210.11.02)

²² http://www.tuik.gov.tr/PrefstatistikTablo.do?istab_id=1335 (2011.11.10)

²³ 외교통상부, 3.

라고 나와있다.²⁴

터키어는 터키의 유일한 공용어이다. 터키어는 튀르크어군에 속하며 튀르크어군의 방언 차이가 적은 관계로 다수의 튀르크어군에 속하는 다른 언어들과의 차이가 적은 편이며 특히 아제르바이잔어와 사이가 가깝다.²⁵ 터키 문자는 1928 년 국회에서 통과된 문자이다. 터키인들은 아랍어를 1,000 년 이상 차용하면서 고유한 자신들의 언어를 유지해 왔다. 아타튀르크(Atatürk)는 공화국 수립 이후 어려운 아랍어 대신에 사용할 쉬운 문자가 없을까 고심하다가 라틴 문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²⁶

터키 국민의 언어 분포에 대해서도 신뢰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이유는 마찬가지로 터키의 인구 조사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영 방송국인 터키 라디오 및 텔레비전 회사(TRT)에서는 지역 언어와 아랍어, 보스니아어(Bosnian), 체르케스어(Circassian), 쿠르드어(Kurdish) 방언으로 된 프로그램을 일 주일에 몇 시간 정도 방영하고 있다. 쿠르드족이 밀집해 있는 동부 및 동남부 지역에선 쿠르드어가 일상어로 사용된다. 터키 공화국 수립 이후 쿠르드어 말살 정책이 실시되어 쿠르드어 교육 및 서적 출판이 금지되었으나, 2005 년부터 독소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서너 종의 쿠르드어 교재가 시판되고 있다. 2009 년 초에 쿠르드어로만 방영되는 TV 채널인 TRT 6 이 개국하였다. 그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영어는 대도시의 호텔과 관광지

²⁴ <http://www.tuik.gov.tr/PreHaberBultenleri.do?id=8486> (2011.11.10)

²⁵ <http://ko.wikipedia.org/wiki/%ED%84%B0%ED%82%A4#.EC.96.B8.EC.96.B4> (2011.11.02)

²⁶ 이회철, *터키*, 서울: 리수, 2006, 158.

등지에서 사용되며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 이디시어²⁷, 히브리어 등도 소수 사용한다.²⁸

터키 인구의 약 90% 이상이 터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시골 및 동부, 남부의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쿠르드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인구의 약 7%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인구의 약 1%가 아랍어를 쓰고 있으며, 주로 동남부 아나톨리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극소수의 주민들에 의해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청 및 일류 호텔, 항공회사 등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이 통용되고 있다. 터키어의 특징으로는 페르시아어, 아라비아어의 영향을 받아 어휘 변화가 많고 모음조화가 풍부하며, 성별의 구별 없이 어미변화를 한다. 터키어는 형태 및 음성적 특성상 알타이어족에 속하며, 몽골계, 한국어·일본어 등 통구스계 언어와 상호 관련되어 있다.²⁹

터키어에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 특히 부부나 자녀 사이에서 많이 사용된다.³⁰ 터키인들은 상대방과 인사할 때 서양식으로 악수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악수하고 오른쪽과 왼쪽 양쪽 볼을 서로 맞

²⁷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B%94%94%EC%8B%9C%EC%96%B4> (2012.01.30)

이디시어(-語; 이디시어: ייִדיש, Yiddish)는 유대인들이 쓰는 서게르만어군 언어이다. 히브리어 문자를 사용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²⁸ <http://ko.wikipedia.org/wiki/%ED%84%B0%ED%82%A4#.EC.96.B8.EC.96.B4> (2011.11.02)

²⁹ 외교통상부 78.

³⁰ 이희철, 159.

부부사이의 애정을 표현하는 말로는 자늌(canım: 나의 생명), 발름(balım: 나의 꿀), 셰케림(şekerim: 나의 설탕), 카르즈움(karıcım: 나의 아내).

터키인들의 인사 내용은 간단. 만나면, “나슬스즈?”(Nasılsınız?)“어떻

게 지내세요?”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임. 테셰퀴르 에테림. 시즈

나슬스즈?”(İyiyim. Teşekkür ederim. Siz nasılsınız?)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신

은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답한다. 그러면 다시 처음 인사한 사람도 “아-임,

테셰퀴르 에테림.”(İyiyim. Teşekkür ederim.: 좋아요. 감사합니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서로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다. 터키 사람들은 처

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중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터키에는 몸동작 언어가 많은 편이다. 손등을 아래로 손가락을 다섯

개 모두를 모으면서 약간 아래 위로 흔들면 참 좋다는 뜻이다. 휘바람을 불면

서 오는 손 바닥을 위로하여 원을 그리며 위로 올리면 매우 좋다는 뜻이다.

커피나 차 대접을 요청 받았을 때, 가슴에다 손을 살짝 놓으면 고맙지만 사양

한다는 뜻이다.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약간 입

을 빼죽이면서 양 어깨를 위로 올리면 모른다는 뜻이다. 머리를 약간 쳐들면

서 ‘쫓!’ 소리를 내면 무언가를 부정하는 뜻이다.

터키에서 민족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 할 수 있다. 터키는 시

민권을 통해 터키 국토 내에 속하는 사람을 터키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

적인 의미의 “터키인”과 인종상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민족에 의한 갈등이 많아 민족을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

수한 터키 민족이라 칭하는 튀르크 족은 인구의 90%정도 이다. 그들의 언어는 터키어로 유일한 공용어이다. 그러나 여러 많은 민족들이 각자의 언어를 각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다. 터키는 이슬람에 근거를 둔 아랍과 페르시아를 품어야 했고 아랍문자를 차용해야 했기 때문에 터키어 가운데 페르시아어와 아랍어의 단어가 많이 섞여있다. 그리고 오스만 말기에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이 있어서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단어도 내포 되어 있다. 터키어에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다. 그들의 인사 법은 길다. 그들은 처음 만나서 하는 인사라도 절차에 따라 길게 한다. 그리고 몸 동작의 언어들이 많이 있어 좋고 나쁘고 수락하는 것은 몸 동작만으로도 대화가 된다.

3.1.5. 종교

터키에는 무슬림이 90% 이상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한다. 그것은 오늘날 터키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 국가로 헌법에 이슬람 국가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세속주의 공화국으로 명시되어 있다.³² 그리고 제 2 편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 19 조 신앙과 의견의 자유와 권리 항목에

³²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1982. 5.

BİRİNCİ KISIM GENEL ESASLAR

I. Devletin şekli. MADDE 1. Türkiye Devleti bir Cumhuriyettir.

II. Cumhuriyetin nitelikleri. MADDE 2. Türkiye Cumhuriyeti, toplumun huzuru, millî dayanışma ve adalet anlayışı içinde, insan haklarına saygılı, Atatürk Milliyetçiliğine bağlı, başlangıçta belirtilen temel ilkelere dayanan, demokratik, lâik ve sosyal bir hukuk Devletidir.

社團法人 國際問題調查研究所, 各國憲法資料集, 1980.2 “土耳其 憲法 1961年 5月27日 制定” 413.

第1編 一般原則.

1. 國體. 第1條 土耳其國은 共和國이다.

2. 國家의 性格. 第2條 土耳其共和國 前文에 表示된 根本目的과 法律 및 人權에 基한 民族主義, 民主主義, 俗人主義 社會國家이다.

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³³

터키에는 모든 종교들이 존재한다. 가장 많은 종교로 이슬람, 정교회, 로마가톨릭, 유대교, 기독교 등이 있다. 터키의 법률이나 사회기구가 이슬람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전체의 97%가 이슬람교 수니파로,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종교적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³⁴ 그러므로 아직도 그들의 세계관 속에 정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슬람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슬람 국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동 역사의 대가인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는 그의 책 “중동의 역사(THE MIDDLE EAST)”에서 터키라는 용어자체가 터키인 자신이나 서구인들에게 무슬림과 동의어로 간주한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³⁵

터키 정부는 1924 년 종교업무국(Türkiye Cumhuriyeti Diyanet İşleri Başkanlığı)³⁶ 과 1975 년 3 월 13 일에 세워진 종교재단(Türkiye Diyanet Vakfı)³⁷을 통해 국민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종교업무국은 580 개의 행정구역에 종교관리인 뮈프티(Müftü)를 임명하여 이슬람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각 행정구역에는 이맘(İmam)을 두어 뮈프티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³³ Ibid., 29.

³⁴ 외교통상부, 76.

³⁵ Bernard Lewis, *중동의 역사(THE MIDDLE EAST)*, 이희수 옮김, 서울; 까치글방, 1998, 94-95.

³⁶ <http://www.divanet.gov.tr/turkish/dv/default.aspx> (2011.12.16)

³⁷ <http://www.divanetvakfi.org.tr/> (2011.12.16)

이맘(imam: 이슬람 종교지도자)은 행정관리체제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종교업무국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며 종교업무국은 이슬람사원의 모든 성직자들을 관리하고 꾸란(Kur'an: Quran)을 강의하고 방송설교 및 종교서적의 출판을 지도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그들의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행사에 어느 정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터키에서 종교의 의미는 주요 정치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으며, 정치와 종교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실정이다.³⁸

터키에는 무슬림이 90% 이상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한다. 그것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오스만의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것을 분리하면서 세속적인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 부서인 종교업무담당부서는 이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이슬람 종교교육과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3.1.6. 의식구조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여유를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 견해로는 여유라기 보다는 게으르고 속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어느 누구도 왜 빨리 고치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는

³⁸ 외교통상부, 77.

다. 고속버스 배차 시간의 간격이 너무 큰 것도 있지만 자신이 타고 갈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는 가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서로에게 접촉사고를 냈지만 웃으면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그들의 표정을 보고서는 알 수 없다.

그들의 차(茶) 인심은 대단하다. 집에 초대를 받아 가면 한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찻잔이 비면 바로 채워준다. 손님으로 방문 했기에 거절 할 수 없어 빨리 마셔버리면 또 다시 채워준다 이럴 때 차를 그만 마시고 싶다면 차 손가락을 찻잔 위에 올려 놓으면 된다. “여유란 인정(人情)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인데, 터키인들의 여유는 그들의 풍부한 인정에서 나온다.”³⁹

터키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 한국인들은 별장이란 개념을 사치에 속하는 것 같이 여긴다. 그러나 터키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여름 집(별장)을 산속이나 바닷가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름 휴가 기간에 여름 집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한국인들은 농사와 밭의 개념이 농사일만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터키인들은 조금 큰 밭을 갖고 있다면 밭 가운데 쭈메 거의 집을 하나씩 짓는다. 이 집은 농기구를 두기도 하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농사철에는 잠도 잘 수 있고 숙식도 할 수 있다. 여름에는 별장처럼 자신들의 밭에 있는 집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³⁹ Ibid., 161.

자존심이 강하다. 터키인은 협상을 할 때 타협의 자세보다는 투쟁하려는 자세로 임한다. 그들은 전략적 사고의 부재로 내부 지향적이기 때문에 터키에서 일어난 일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을 놓칠 때가 있다. 분석적 사고 능력으로 행간을 읽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해내는 능력이 부족하여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들은 실수하기를 두려워하고 갖고 있는 문제나 자신의 생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설명을 해야 할 무엇인가를 머리 속에 남겨둘 때도 있다.⁴⁰

터키인들은 명예와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명예심이나 대의 명분 등은 높은 자존심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자신의 명예 추구를 지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명예는 터키어로 ‘오누르(onur)’ 또는 ‘나무스(namus)’로 ‘오누르를 위해서’ 또는 ‘나무스를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내각에서 일하는 장관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총리가 압력을 가해 충돌할 경우 자신의 오누르를 위해 사임한다고 당당하게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⁴¹

터키인은 대륙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대담한 면을 보인다. 터키인들은 무슨 일을 잘못 했을 때 미안하다고 잘 표현하지 않는다. 연구자가 센터 건축 공사 중 잘못 된 부분 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공사한 사람은 전혀 사과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 시시콜콜한 일에 매달리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고 한다.

⁴⁰ Ibid., 165.

⁴¹ Ibid., 167.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손님 접대 문화를 가지고 있다. 터키인들의 환대 정신은 자신의 집이나 나라를 찾아오는 손님은 모두 신이 보내준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터키어로 ‘탄르 미사피르’(Tanrı misafir)라고 한다. 탄르는 신을 의미하고 미사피르는 손님이라는 뜻이다. 또 하나는 내집이 당신의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터키어로 ‘에비미즈 씨진 에비니즈’(Evimiz sizin eviniz)라고 한다. 터키어로 ‘에브 ev’가 집인데, 일단 손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집은 손님 집이라는 생각이다.⁴²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오셔서 자주 가는 식당에 함께 갔다. 식사를 마치고 식사대대금을 지불하려니까 함께 한 분들이 누구냐고 하여 어머니라고 했더니 식사대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도 주려고 하자 자신들이 한국에 가면 돈을 받겠냐고 하면서 거절하여 결국 그냥 나올 수 밖에 없었다. 터키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다. 길을 가다가 길을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터키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 어디로 가라고 알려 주는데 간혹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을 수치로 느끼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길도 아는 것처럼 잘 설명해준다. 집을 얻기 위하여 세 놓은 집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물어보면 따라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여유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여유

⁴² Ibid., 169.

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책임감이 결여되고 게으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여유가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리며, 휴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한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수치를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했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다. 터키인들은 명예와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손님 접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친절하다.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받아드려야 할지 고민이 될 때도 있다.

3.1.7. 한국과 터키의 관계

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시대까지 올라 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대의 관계를 다루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자료를 인용하였다.

터키는 1949 년 8 월 14 일에 한국 정부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1950 년 한국 전쟁 때 1950 년 7 월 25 일에 파병을 승인하고 1950 년 10 월 19 일에 1 개 여단 5,068 명을 파병하여⁴³ 한국전쟁에 참전한 16 개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57 년 3 월 8 일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시작되었다. 1972 년 4 월 3 일에는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다.⁴⁴

그러나 교역은 거의 없다가 2004 년 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자동

⁴³ 외교통상부, 68.

참전 연인원 14,936명, 전사자 765명, 부상자 2,147명, 행방불명 175명, 포로 346명, 비 전투 요원 손실 346명.

⁴⁴ Ibid., 89-90.

차와 무선통신기기, 철강관, 철도 부분 등이 수출되고, 의류, 기호 식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2010 년에 터키 관광을 한 한국인이 20 만명을 넘었고 재외동포는 2010 년 4 월기준 2,527 명이다.⁴⁵ 한국전쟁 참전 용사, 한국-터키 친선, 우호 협회 구성, 문화학술, 공연 예술, 교육, 지자체 자매결연, 청소년 인적 교류 등 한국과 터키가 관계를 이루고 있고,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터키에서 방영되었다.

한국과 터키는 고대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기서는 근대를 중심으로 1949 년 한국과의 수교를 이루고 1950 년 한국 전쟁에 파병함으로 관계를 다시 이루게 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경제 무역관계는 활발하지 않았다. 21 세기 되서야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기술과 제품, 또한 한류의 흐름으로 이제는 경제와 문화를 교류하는 중요한 국가간의 관계가 되었다. 앞으로도 터키와는 많은 문화 교류가 있을 것이다. 터키는 한국에 국제 학교를 세웠다.⁴⁶ 한국에서도 터키 땅에 정부 차원이나 종교 차원에서 학교도 세우고, 의료시설과 환경시설, 경제, 기술, 문화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2. 중앙아시아에의 껍튀르크(Göktürk)⁴⁷

3.2.1. 튀르크 민족과 문화

고대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구조는 동서를 막론하고 크게는 언어에 의

⁴⁵ Ibid., 101.

⁴⁶ <http://www.rischool.co/> (2011.12.9) (레인보우 외국인학교: 2007년에 세워짐)

⁴⁷ 껍튀르크(Göktürk)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옛날 튀르크이다.

하여 형성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일상적인 활용방편이었고 언어를 따라 종족이 분류되어 살았기 때문이다. 튀르크족이 아나톨리아 반도로 내려오기 전에는 중앙아시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슬람을 모르고 있었다. 그 때는 이슬람이 태동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튀르크족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알타이계 민족들 가운데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인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최한우는 G. Doerfer 와 L. Bazin 의 견해를 말하고 있다.

언어 인종학적으로 볼 때 추바슈(Chuvash), 할하지(Khalaj), 야쿠트(Yakut), 남시베리아(투바, 하카스, 알타이 등), 콥족(카작, 키르기스, 타타르), 위그르(위그르, 우즈벡), 오우즈(터키, 아제리, 투르크멘, 가가우즈 등) 그룹 등 7개 그룹으로 나뉜다.⁴⁸ 중국 문헌에 의하면 AD 6세기 중엽에 처음으로 튀르크(Türk)란 이름이 나타나며 이들이 흉노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다. 흉노족은 가장 오래된 튀르크족으로써 원시 튀르크족(Proto-Türk)으로 추정된다.⁴⁹

AD 6세기에 외몽고에 등장한 돌궐(突厥)은 흉노 및 북위의 후예로서 고구려와 동맹 관계를 맺고 한조 이후 중국을 장악한 수나라를 붕괴시키고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동돌궐과 서돌궐로 나뉘어 통치되던 돌궐 제국은 비잔틴 제국을 비롯하여 당대의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상당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당이 등장하면서 당의 북진 정책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대항하였으나, 신라와 연합한 당에 패배하자 동돌궐이 패망하고 이어서 천산 산맥 서편 서튀르키스탄에 위치한 서돌궐도 붕괴하였다.⁵⁰

튀르크족은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갖고 한 종족처럼 살았다.⁵¹ 그들은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였다. 중앙아시아에는 넓은 초원지대를 누비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라는 의식보다 ‘우리’라

⁴⁸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하)*, 서울: 퍼네기, 2004, 426.

G. Doerfer, *Die Stellung des Osmanische im Kreise des Oghusischen und seine Vorgeschichte*. Handbuch der türkischen Sprachwissenschaft, Teil I, ed. Gy. Hazai, 1990, 18-19.

⁴⁹ Ibid.

L. Bazin, *Un texte proto-turc du IV^e siècle: Le distique Hiongnou du "Tsin-chou"*, Oriens 1, 1948, 208-219.

⁵⁰ Ibid., 428.

⁵¹ http://missionmagazine.com/main/php/search_print_page.php?idx=773&img=undefined&diaryDate=%7BdiaryDate%7D (2011.11.06)

가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이라도 권력관계로 다정하게 부른다. 보물 단자들은 강한 형제 및 친척 의식이 있다. 터키인들은 서로 부를 때, 권력관계 페트 문화가 있었다.

화였다. 또한 유목생활 중 이동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편면적으로 생기는 카 키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수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들의 문화란 전쟁 문화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영웅으로 칭찬받는 사회였다.”⁵³ 중앙아시아에서 터 상 이동해야 함으로 정신적인 문화유산이 탄생할 수가 없었다. “이때는 단지 하기 전까지만해도 이들의 삶은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생활이었다. 그들은 왕 튀르크족은 민족단위로 이동하였다. 셀주크제국과 오스만제국을 형성

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⁵²

는 정당이든, 공동 팀이든 한번 가입하면 끝까지 그 팀의 소속으로 머물고자 한번 어느 집단에 소속되면 그 집단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들이 지지하던 터키인들은 집단의식이 매우 강한 민족이다. 그 집단이 좋던 나쁘던 은 한 종족과 처럼 살았다.

척관계 및 권구관계를 중요시하며 살아왔다. 다른 종족이라도 같은 언어계를 되면 항상 외부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웃과 친 는 한 번의 따돌림은 영원한 헤어짐이었다. 그들이 한 단체로부터 버림받게 해서 항상 타협과 투쟁이 반복되는 사회였다. 수 없이 이동하는 유목민들에게 의 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강하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은 필요에 의

서로 형님, 여자는 누나 또는 형수님, 나이는 문물에게는 권철하고 다정한 위
미로 바바(Baba: 아버지), 안네(Anne: 어머니)등으로 호칭한다.⁵⁴ 이 부분은 위
에서도 언급했듯이 현대에서도 같은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고대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구조는 크게는 언어에 의하
여 형성되었다. 당시 란타이어 계통의 부족들은 훈족, 또는 흉노족이라는 이
름으로 같은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이루고 한 종족
처럼 살았다. 튀르크족은 민족단위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큰 제국을 이루고
패하면 다시 민족이 이동하여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제국을 이루었다. 그들의
관계는 특별히 강한 형제 및 친척 의식으로 이루어져있다.

3.2.2. 유목생활과 나그네

튀르크족은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거주해온 유목민족이었다. 광대
한 대 초원은 유목민들에게 최적의 땅이었다. 그들은 땅을 타고 종횡 무진하
던 유목민이었다. “그들은 주로 이동하는 생활에 익숙해 있었고 광활한 땅은
공동의 소유였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란 땅이 아니라 짐승의 숫자였다.
이런 유목생활을 통해서 이 생활에 합당한 정신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⁵⁵ 생존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최소한의 농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동하는 유목생활이었다. 이러한 유목생활은 단조롭기 그지없었다. 왜냐하면

⁵⁴ Ibid.

⁵⁵ http://missionmagazine.com/main.php/search_print_page.php?id=773&img=undefined&diary.Date=%77BdiaryDate%7D (2011.11.06)

짐승들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동안 그들은 단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낮의 단조로운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밤에는 춤을 추며 단조로운 삶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그들은 나그네 같은 초원의 삶 속에서 인내와 낙천적인 삶을 배웠다. 유목민의 생활은 조바심을 낼 수 없었다.

유목생활은 단조로운 생활이었다.⁵⁶ 며칠 동안 혼자만 지내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차를 권하고 외부의 새 소식들을 듣는 것은 그들의 즐거움이었다. 오늘날의 터키인들도 외국 사람을 만나면 마치 친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친절하게 대우해 준다. 터미널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서로 아는 사이인지 물으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처음 만난 사람이더라도 오래 전에 만난 사람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터키인들은 남성우월주의자들이었다. 남성들의 위치가 여성들과 같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⁵⁷

‘소녀나 여성들은 길을 건너려고 할 때에 길을 걷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서 있는 곳을 지나갈 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한다. 만일 기다리지 않고 길을 건너게 되면 남자의 운수를 망쳤다고 하여 규범을 범한 것이 되어 크게 지탄을 받게 된다. 이렇듯 엄격한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마을 남자들의 왕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⁵⁸

“터키 남자들에게 ‘당신은 사자다(ASLANSIN)’라는 말로 칭찬해 준다.

⁵⁶ Ibid.

⁵⁷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하)*, 460.

⁵⁸ Ibid., 462-463.

남자답다는 말이 터키 남성들에게는 가장 기분 좋게 해 주는 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튀르크족의 문화는 전쟁문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에서 용감하고 힘 있는 사람이 존경 받던 그 문화가 지금도 여전히 이들의 의식 속에 흐르고 있다.”⁵⁹ 근대 터키공화국을 세운 초대 대통령인 케말 아타투르크가 종교와 정치를 분리 시켰고, 여성의 지위를 유럽수준으로 높여 주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슬람문화가 강한 지방에서는 남성위주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 지방에서는 가정에서 남자들의 보수적인 권위 밑에서 발언권도 없이 살아가는 여자들이 많고 심지어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맞고 사는 여성도 상당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들은 놀고 여성들이 주로 들에 나가 일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장에 가는 일은 남자들의 몫이다. 여자들에게 돈을 주면 여자들이 도망을 갈까 하여 남자들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는 넓은 초원지대이다. 튀르크족은 중앙아시아에 거주해온 유목민족이었다. 유목생활은 단조로운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기다리며 여유가 있는 삶을 유목생활을 통해 배웠다. 튀르크족은 단조로운 유목생활 아닐 때는 전쟁에 나가 싸워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남성우월주의였다.

3.2.3. 이슬람 이전 튀르크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의 접촉

북방으로 온 페르시아계 민족이 중앙아시아의 터키 민족에 속해있다.

⁵⁹ http://missionmagazine.com/main/php/search_print_page.php?idx=773&img=undefined&diaryDate=%7BdiaryDate%7D (2011.11.06)

중앙아시아의 튀르크와 페르시아계 민족들과의 관계를 최한우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고대 중앙아시아의 원주민들은 대개 페르시아계 민족이었으며 인도-유럽어족에 속한 이란어를 사용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들은 사카(Saka)라고 불리는 종족으로써 동부 중앙아시아와 내륙아시아에 분포되어 있었다.⁶⁰ 내륙 아시아 즉, 카프카스 지역, 소련 중앙아시아, 그리고 시베리아를 포함한 광활한 유라시아 내륙에 있는 현재의 대부분 튀르크족, 몽골족, 통그스족 등 알타이계 민족과 슬라브계 민족이 대다수를 이루며 중앙아시아 남부, 서아시아에 쿠르드족, 이란족, 아프칸족, 타지크 등 페르시아 민족이 정착해있다.⁶¹ 튀르크 문화권과 페르시아 문화권은 아시아 대륙 역사의 고대 시대로부터 접촉과 교류 등 상호작용이 빈번했다.⁶² 고아시아족을 기저층으로 원시 튀르크족으로 알려진 흉노족이 주축이 되어 형성시킨 유목민족 문화는 그 형태나 특징에 있어서 스키타이 문화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말을 순장한다거나, 물을 타부시하는 것, 그리고 적의 해골을 잔으로 사용하는 것 등을 흉노나 페체네크 부족에도 나타난 관습들이다.”⁶³

고대 페르시아족의 것으로 알려진 스키타이문화와 원시 튀르크족의 문화는 카프카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외몽고, 만주지방 그리고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전체 유라시아의 대륙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발전해 나갔다.⁶⁴

중앙아시아의 종족들은 페르시아에서 북방으로 이동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언제부터 알타이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모여 혼족을 이루었다.

⁶⁰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하)*, 429.

⁶¹ Ibid., 432.

⁶² Ibid.

(S.V. Kiselev, *Drevnjaja istorija ju noj Sibiri*, 1951, 315, 357.)

⁶³ Ibid.

(Peter B. Golden, *The Migrations of Oghuz*, *Archivum Ottomanicum*, 4, 1972, 49.)

⁶⁴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하)*, 433.

터키인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이룬다.⁶⁵ 한국사회는 소위 말하는 학연, 지연, 혈연 중심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선배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 모든 후배들이 줄을 서게 된다. 지방과 지방과의 대결도 그 못지 않다. 그러나 터키인들은 이것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족은 각기 흩어진 부족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어느 한 집단에서 지도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집단의 사람들은 무조건 그 지도자에 순종하였다. 그들은 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셀주크 제국이 세웠고, 셀주크는 사라졌지만 다시 오스만 제국 그리고 터키 공화국을 세웠다. 터키인들은 늘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한다. 터키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강력한 지도자 밑에 있었다는 이유로 서로 친해지기도 한다. 만일 지도력이 약하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싸움을 벌리게 된다.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다.⁶⁶ 터키인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상하게한 사람과 어떤 일도 함께 할 수가 없다. 터키인들은 선뜻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약하고 비굴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는 페르시아계 민족들이 북방으로 와서 이루어진 민족들이 있었다. 특별히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종족들로 흉노족이라는 종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다시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소수 종족으로 나뉘었다. 그 중

⁶⁵ http://missionmagazine.com/main/php/search_print_page.php?idx=773&img=undefined&diaryDate=%7BdiaryDate%7D (2011.11.06)

⁶⁶ Ibid.

에 터키인들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이룬 그들은 자존심이 강한 민
족이다.

3.2.4. 튀르크 문화의 토속 관행

고대 사람들에게 종교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생활 방식이었다. 21 세기 첨단문명을 살아가는 현대에도 종교는 그 위
를 견고 있다. 건축을 할 때도, 큰 배를 하나 만들어 놓고도, 방축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할 때도 돼지 머리를 놓고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시
대이기 때문이다. 종교와 문화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종교를 통하
여 문화가 만들어진다.

고대 중앙아시아에서는 천신 사상이 있다. 고대 중앙아시아의 토착신
앙은 톨, 썸, 나무 그리고 동물 등 자연물을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하였다. 이
러한 애니미즘의 요소는 토템사상, 샤머니즘 그리고 천신사상과 더불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 사상이었다. 특히 고대 튀르크족은 이러한 자연계의 신령
한 정령들을 예르-수(Yer-Su: 땅과 물)라고 불렀다. 정령은 선한 영역과 악한
영이 구분되어 나타난다.⁶⁷⁾

토템 사상은 사람 이를 가운데 뿔이 나타난다. 사자, 독수리, 양, 염소
을 성스럽게 여기는 동물의 이름을 성(姓)이나 부족 명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다. 중앙아시아 부족들 가운데 토간(Togan=Dogan:

⁶⁷⁾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하), 445.

독수리), 아슬란(Arslan=Aslan: 사자), 코취(Koç: 숫양)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토테미즘에서 유래한 것이다.⁶⁸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여러 튀르크 민족들 가운데 독수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실도 이러한 독수리 숭배 사상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⁶⁹

무속적인 것으로 조상숭배적인 요소가 많아 그들의 신앙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무속을 박사(Bagsha)라고 불렀다.⁷⁰ 성스럽게 여겨지는 형상이나 우상은 온곤(Ongon)이라고 불렀다.⁷¹ 중앙아시아 스텝에서 조상숭배 의식이나 조상들의 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은 중앙아시아 토속 신앙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⁷² 산신(山神)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뼈를 가지고 점치기, 커피 잔으로 점치기, 무당 굿을 했다.⁷³, 성소사상으로 고대 튀르크 인들은 결혼이라는 단어를 집(ev) 혹은 성소(bark)를 소유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집은 사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이다. 돌궐비문에 성소는 기도가 행해지는 장소라는 뜻이라고 나와있다. 이것과 연관해서 고대 튀르크 족은 집을 성스럽게 여겼으며, 만일 외인이 허락 없이 남의 집 문턱을 넘어서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었다. 이렇듯 집에 부여되는 특별한 가치는 결혼을 비길 데 없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⁷⁴ 또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도 있었다. 특히 동물을 죽여 장

⁶⁸ 연구자주: 오늘날 터키 남자 이름에도 이와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다.

⁶⁹ Ibid., 447.

⁷⁰ Ibid., 448.

⁷¹ Ibid., 449.

⁷² Ibid., 450.

⁷³ Ibid., 451.

⁷⁴ Ibid.

대에 매달며,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으로 흉노족의 토속 신앙행위였다. 이들은 봄과 가을에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올렸다.⁷⁵ 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금기되어 있으며, 물로 불을 끄는 것을 삼간다. 또한 불에 침을 뱉거나, 불장난을 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불이 악령을 쫓는다고 믿고 있다.⁷⁶

나브루즈/네브로즈 바이람(Navruz/Newroz Bayram)에 대한 기원은 조르아스터교 경전 ‘아베스타(Avesta)’에 근원을 두고 있다. 불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겨울의 추위를 가져온 악한 영들을 보내고 봄의 따스함을 환영한다는 봄의 명절을 페르시아인들은 바호르(Bahor)라고 불렀다. 조르아스터교에서 말하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3월 21일을 페르시아 양력에서는 새해로 지켰다. 3월 21일과 22일에 고대 전통 명절인 나브루즈 바이람은 시작한다.⁷⁷

터키인들은 일반적으로 삶을 비교적 낙천적으로 살아간다.⁷⁸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큰 사고를 만나게 되면 대뜸 하는 소리가 “별거 아니야”라는 말을 하며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터키인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놀 때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춤을 춘다. 그들이 춤을 출 때는 굳이 술을 마실 필요가 없다. 거리나 피크닉 장소에서나 일하는 일터에서도 춤

⁷⁵ Ibid., 452.

⁷⁶ Ibid.

⁷⁷ Ibid., 454-455.

나브루즈 명절 때 이슬람 할리파 성직자들은 민속 옷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적 의복을 입혀려고 노력했다. (456)

⁷⁸ http://missionmagazine.com/main/php/search_print_page.php?idx=773&img=undefined&diaryDate=%7BdiaryDate%7D (2011.11.06)

‘아랍사회는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있고 그 집단 구성원은 항상 긴밀한

민족과 사회

3.3.1. 아랍인의 의식 구조

언급하고자 한다.

를 그대로 전수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의 환경의 구조를
 켈주크와 오스만 제국을 이루었다. 그들의 세계관은 아랍인의 세계관의 영향
 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당시 아랍의 종교인 이슬람을 받아드리고 성장하여
 었다. 그들이 아랍에 진출하게 된 것은 압바스 왕조(Abbasid Caliphate 750-1258)
 튀르크족은 아나톨리아에 정착하면서 아랍인들과 연합할 수 밖에 없

3.3. 아나톨리아에 정착한 튀르크

며 그들은 일반적으로 삶을 비교적 낙원적으로 살아간다.
 으로 조상승배적인 요소가 많아 터키인들의 신앙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
 이 있었다. 또한 토착 사상은 사람 이를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무속적인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원신사상이 있다. 고대 중앙아시아에서도 원신사상
 사람들은 미래를 양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

꼭이 나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춤을 춘다.

83 Ibid., 38.

82 Ibid., 32.

81 Ibid., 31.

80 Ibid., 27.

79 사니아 하마다, *아랍인의 의식구조*, 손영호 옮김, 서울: 문신, 2000, 26.

‘아랍인은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서로 적의를 나타낸다. 이것은 주로 너무나 명확되어 있는 사회로부터 생기는 마찰, 구조적인 파당, 근성, 그리고 아랍인의 공격성을 표면에 나타내는 것 등에서 기인한다.’⁸³ 베드윈, 반유목

민들이 공동사회 내부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⁸²

있지 않다. 개인이 즐긴 수 있는 은밀한 자유는 극히 적기 때문에 개인은 공동체를 결정하기 위한 선택의 여지는 개인에게는 극히 작은 권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여물은 개인의 행동을 직접적이고 궁극적으로 조정하는 힘이 되고, 자기 개인의 행동을 판단하고 칭찬과 비난을 가하는 주된 힘은 그 사회의 여물이 아니라 우선권을 지니고 있다.⁸¹ 아랍사회의 사회적 압력은 결코 대단하다.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지고 책임보다는 권, ‘지나친 아랍사회는 행사하는 권리와 쫓겨난 책임 사이에 조화가

문한 해명이 없으면 비난을 받고 적의를 품기까지 이른다.’⁸⁰

원이라는 사태로까지 확대된다. 의무를 지키지 않고 조대를 거절하였을 때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자제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이 요구되고, 때로는 그것이 탄압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간단한 변명으로 의심을 느끼게 하고 구성원 전체에게 친구 사이라는 감정을 스며들게 한다. ‘집단 일원이라는 감정이 친근감, 그리고 이웃

또는 정착하고 있는 각 부족이 사는 영토도 지금은 아랍 각국 정부의 행정과 사법아래 놓여 있고, 공법의 지배, 즉 형법의 재판을 받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부족은 보통 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중앙의 권력을 무시할 수 있다.’⁸⁴

아랍인의 감수성은 대단하다. ‘어떤 분위기에서는 감정을 과격하게 노출시키는 것도 아랍인의 한 특성이다. 아랍인이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황은 주로 이야기 할 때와 읽을 때, 고통·슬픔·분노·논쟁을 표현할 때이다. 아랍인은 화내는 몸짓과 큰소리로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한다. 그 말투는 충격적이고 불타는 듯 과격하다. 아랍인과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논의하기란 매우 힘들다.’⁸⁵ “아랍인의 기질은 신경질적이어서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반발을 일으킨다. 쉽게 달아오르고 참을성이 없다. 한번 성질을 부리면 한없이 화가 번진다. 분노에 대한 아랍인의 자제력은 약하며 견잡을 수가 없다. 성을 냈을 때의 아랍인은 대개 남을 공격하기 좋아한다.”⁸⁶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할 때 싸우는 듯한 고함 소리가 아랍인의 감정 표현 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누가 권력을 장악하든 그것이 법적인 힘이든 사실상의 권력이든, 또 폭군이든 더러운 위정자든, 아랍인은 그에 복종하였다.’⁸⁷

⁸⁴ Ibid., 40.

⁸⁵ Ibid., 42.

⁸⁶ Ibid., 46.

⁸⁷ Ibid., 114.

문화 아랍 가정은 차별한 분위기를 풍긴다. 가족과 큰 소리를 지르

며 이야기한다.⁸⁸ 아랍인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면 사이 좋게 지낼

수가 없다. 그러나 교양 있는 지식인을 사이에서는 저속한 잡소리보다도 풍자

시, 축담 등에서 인용한 말을 웅변처럼 구사하려고 노력한다. 풍자시는 아랍

의 시 속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⁸⁹

아랍인은 누구나 수많은 예의 범절을 지키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

것이 꽤나 엄격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유로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예의 바

를를 나타낼 여지는 없다. 행동을 규제하는 갖가지 규칙은 감정이 포함되며

몸담에 젖어있고 미신도 섞여있다. 또 예의 바를 속에는 확실히 개인보다도

사회 전체나 집단이 우선이라는 측면이 보인다. 이런 극히 특수한 인간적인

성품들은 어느 정도는 밝혀진다.⁹⁰

예의 바를은 주로 종교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랍인은 람머리에 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서 동표와 교제를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다. 신의 이름

은 모든 기획, 모든 람언, 모든 염원마다 불린다.⁹¹

아랍인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개인주의적으로 보이지만 반면에 동표

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어서 개인적인 자아가 보이지 않는다. 아랍인의

개인주의적인 측면은 자기존중의 특이한 사고방식, 개인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⁸⁸ Ibid., 47.

⁸⁹ Ibid., 51.

⁹⁰ Ibid., 77.

⁹¹ Ibid., 78.

아랍 사회는 전통이 깊이 뿌리 박혀 과거의 관습에 의해 결정된 엄격한 행동기준으로 가득 차 있다. 전통은 행동양식에 맞는 것이냐 여극단 것인가에 의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어하는 결정을 짓는다. 행동이 관습에

다.⁹³

보이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민족 의식이 계급의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
 처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주는 자신의 위대함을 남에게 인상적으로
 의 지위에 관련된 장신구를 화려하고 우아하게 과시하려고 한다. 학식의 제스
 은 용바를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부나 높은 지위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자기
 예의 범절은 무척 엄하다. 직함은 가족에게도 주어진다. 직함을 무시하는 것
 를 세하려는 자극이 거의 없다. 반면에 사회의 지위, 입장에 대해 갖추어야 할
 평판이나 엄격, 지위에 의해서 판단된다. 사람의 가치 기준에는 사회적으로
 인은 그 사람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의
 아랍인 사회의 계층화는 주로 세습적인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며, 개

위는 모든 가족의 명문으로 해결된다.⁹²

간주되지만 가족의 일원으로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개인의 행
 반으로 형성된다. 사람이 가족 내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위는 개인이 아니고 가족이다. 아랍사회는 가족과 더불어 출생하고 가족을 기
 중, 타인에 불신, 행동성의 결여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랍의 사회적 단
 조망, 사회의식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의 결여, 권위에 대한 저항정신과 불복

신은 모든 것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신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이
 상이며 생활의 규제력이다. 신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매일매일의 생활에도 존재한다. 이슬람은 생활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슬람이 나타났을 때 종교는 생활과 떨어져 있었으므로 여기서 양자는 생활함

한다.⁹⁵

인간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전가하는 절호의 구실이 되기도
 할 수 있다는 데에 매우 회의적이다. 이와 같은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은 아랍
 다는 신념에 따라 아랍인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장래의 행동이나 사건을 좌우
 하여 신의 의사에 따라 각각 성격의 특성이 나타난다. 운명은 미리 결정돼 있
 신이 정한 행동 예정에 묶여 있는 것이다. 신은 나쁜 인간과 착한 인간을 만
 인간의 행동은 당초부터 신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인간은

종교와 의식구조

이 전통주의자들이다.⁹⁴

속성을 의미한다. 요컨대 그것은 전통을 의미한다. 신앙이 짙은 자들은 다관
 으로 종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랍인이 신(神)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
 않으며 그들에게는 안정이 바람직한 가치관이다. 모든 관습과 전통은 기본적
 을 시인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언제나 존재한다. 아랍인은 사회의 변화를 원치
 원치한다면 그것은 선이 되며, 어긋난다면 악이 된다. 전통은 사람들의 행동

되었다.⁹⁶

많은 아랍인, 특히 여자들은 미래를 점치고 소원을 성취하며 수확을 올리고 병을 고치며 상대방을 괴롭히려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손금, 커피 점, 모래 점 같은 것이 극히 번창하고 있는데 이들 점쟁이 들은 대개 아마추어지만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며 소원을 성취시키는 방법 등을 도와주는 전문 마법사도 있다.⁹⁷

아랍인은 개념상의 과정에서 아랍인은 약점을 보인다. 일을 총괄하는 능력이 낮으며 전체를 파악하는 재능도 뒤떨어진 편이다. 논리에 약한 아랍인은 또한 사고 전개에 솔직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들의 방법론적인 사고는 열등하고 약하며 추상 능력도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사고를 조정하고 포괄하는 소질도 낮다.⁹⁸

3.3.2. 아나톨리아에 정착한 튀르크의 환경과 사회 구조

튀르크족이 아나톨리아에 들어왔다. 튀르크족이 본격적으로 이슬람을 만나게 되는 최초 시기는 7 세기 중엽 이후로 아랍(이슬람 군)의 동방정복과 중앙아시아 진출의 결과였다. 그러나 중동의 아랍과 튀르크족의 만남은 이슬람 이전에도 중앙아시아 중심이며 아랄 해(Aral Sea)로 들어가는 아무다르야(Amu Darya)강과 시르다르야(Syr Darya)강 사이 트란소시아나(Transoxiana) 지역을 중

⁹⁶ Ibid., 160.

⁹⁷ Ibid., 183.

⁹⁸ Ibid., 220-221.

심으로 간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와 아랍세계 사이에 존재하던 이란계 사산 왕조 페르시아(Sassanian Persia)가 642 년 네하벤드(Nehavend) 전투에서 아랍 이슬람 군에 의해 패배한 후 페르시아인들이 이슬람화 됨으로써 무슬림과 튀르크족은 가깝게 만나게 되었다.

튀르크족은 아나톨리아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문화를 흡수해야만 했다. “토착 비잔틴과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문화를 수용하고 이슬람 옷을 입고 새로 태어난 것이 터키 셀주크 왕조의 문화이다.”⁹⁹ 셀주크 왕조 문화의 특성은 중앙아시아에서 스텝을 누비던 튀르크적인 요소의 바탕에 아나톨리아에 있었던 비잔틴과 이슬람 문화의 혼합이다. 그것은 투쟁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정착을 하면서 “튀르크 농민들은 집과 정원을 소유하고 일정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으며, 그 경작권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었다.”¹⁰⁰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주변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아나톨리아로 유입되고 문화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다. 13 세기에 들어와서 학자들 중에도 튀르크어로 작품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수피 사상의 대가였던 무히틴 아라비(Muhitin-i Arabi), 사드레틴 코나비(Sadreddin Konavi), 그리고 호라산(Khorasan)¹⁰¹에서 건너온 메블라나 잘레틴 루미(Mevlana Jaleddin Rumi)등이 대표적인 인물

⁹⁹ 이희수, *터키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291.

¹⁰⁰ Ibid., 297.

¹⁰¹ 호라산[Khorasan, Khurasan]은 이란 북동부에 있는 주(州)다. 호라산(Khorasan)은 떠오르는 태양의 땅이란 뜻으로 북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접한다.

이었다. 셀주크 왕조의 공식 언어는 페르시아 언어였고, 아랍어는 문학과 학문 용어로 사용되었다. 튀르크어는 공식 언어의 위치를 빼앗겼지만, 궁중과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다. 특히 군대에서는 튀르크 언어가 사용되었다.¹⁰²

오스만 제국은 아랍문자를 사용하였으나 어휘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튀르크어가 혼용되었고 문법또한 그러했다. 튀르크어에 대하여 시대적으로 먼저는 페르시아어, 다음은 아랍어의 영향이 지대했던 것이다. 문학은 주로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독점되었으며, 단지 풍류시인들이 읊은 민간 시가보다 더 튀르크어 적이었다.¹⁰³

오스만 시대에는 예니체리(yeniçeri) 부대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다스렸다. 오스만 제국 이전에는 이슬람 사회가 군인, 문관, 상인, 농민 등 4 계층으로 구분되었으나 오스만 왕조 초기에는 평민과 군인 두 계층으로 구분되었다. 군인은 지배층이요, 평민은 피지배층이었다. 갈수록 아스케르(Asker: 군인) 층이 늘어만 갔다. 아스케르 계층 가운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오스만 제국 통치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집단은 굴람(Gulam) 즉, 노예였다. 굴람 제도는 오스만 제국의 중앙 통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과거 이슬람 국가들에서 실시되었던 것으로 노예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였다. 오스만 제국에서도 이러한 이슬람 국가의 전통을 따라 비무슬림 국가, 즉 기독교 국가를 정복할 때 포로들을 노예로 공출하

¹⁰² Ibid., 298.

¹⁰³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상)*, 서울: 퍼네기, 2003, 184.

여 술탄(Sultan)¹⁰⁴ 직속 정예 보병 군단인 예니체리(yeniçeri)에 편성시켰던 것이다.¹⁰⁵

이러한 굴탐제도는 14 세기 말경에 비무슬림 기독교 자녀들을 따로 차출하여 궁정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을¹⁰⁶ 시켜 유능한 행정가 혹은 군인으로 양성시킨 후에 예니체리 부대에 귀속시켜 술탄의 전위부대인 예니체리를 강화시켰다. 이때에 기독교 자녀들을 차출하는 제도를 데브쉬르메라 불렀다.¹⁰⁷ 아직 농촌에서 제대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급 층 기독교 자녀들을 차출하여 궁정 고등교육을 통해서 고급 인력으로 양성한 후에 예니체리 궁정 술탄 친위부대 요원이 되게 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기독교인 어린 아이들은 100% 이슬람교 교육을 통해서 신앙심 깊은 무슬림으로 만들어졌다. 가난한 아이들이 궁정에 가서 교육받고 고위직 관리가 되는 이러한 제도는 가난한 많은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후에는 차출 과정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만 했다. 특히 예니체리 출신 중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신앙이 두터워진 사람들은 교육이 끝난 즉시 출신지로 파견하여 산작베이(Sanjak bey: 군수) 등 통치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¹⁰⁸

당시 오스만 제국에 패망한 비잔틴의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의 고급 교육 후 지방장관이 되는 것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예니체리 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였다. 이리므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튀르크족은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한다. 터키에서 한번 정치 지도자가 되면, 그의 지도력은 평생 그의 마지막까지 계속된다. 백성은 양이 되어 한번

¹⁰⁴ 술탄(Sultan)은 당시 종교적 최고 지도자이며 왕 같은 정치적 최고 지도자였다.

¹⁰⁵ Ibid., 182-183.

¹⁰⁶ Ibid., 183-184.

궁정학교 교육은 제국 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교육이었다. 이들은 오직 술탄에 대한 충성과 복종, 그리고 이슬람 종교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또한 아랍어, 튀르크어, 페르시아어 등 수개의 외국어를 배웠으며 과학과 수학, 천문학 등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정통성 있는 군인으로 양성되기 위하여 활 쏘기, 검술, 씨름, 무용 등도 숙달했다. 젊은 기독교 전사를 목숨까지 마쳐서라도 오직 술탄에게 충성할 수 있는 무슬림 전사로 양성하는 이 교육은 매우 정교히 연구되어 창안되었고 최소 2년에서 7년이 걸리는 교육기간 동안 통제가 매우 엄격했다.

¹⁰⁷ 데브쉬르메(devşirme)는 다시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¹⁰⁸ Ibid., 183.

목자, 즉 지도자를 선택하면 쉽게 그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과거에 터키 중도우파 데미넬(Deminel)을 ‘바바 (Baba)’, 즉 아버지라 부르며 열광했다. 극우 민족주의자 튀르케쉬(Türkeş) 나 극우 이슬람주의자 에르바칸(Erbakan)이 오래 동안 정치계에 있으면서 국민들을 실증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생을 정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¹⁰⁹ 현재 터키에서도 지도자를 새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튀르크족은 이슬람을 받아드리고 아나톨리아에 정착했다. 중앙아시아에서 튀르크족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졌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였다. 비무슬림 부족을 무력으로 공격하여 약탈한 재산과 여자들을 전쟁 참가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전통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Muhammad)의 시대부터 계속되어온 것이다. 또한 상대 부족을 공격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경우 전쟁 참가자가 상대 부족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전통은 흉노 제국 이래로 들궤 제국과 그 이후 대부분 스텝 부족과 제국에 의해 계속되어온 전통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슬람의 성전(聖戰), 즉 지하드(Jihad)와 튀르크족의 호전성(好戰性)은 상호 상승작용을 하여 이슬람화된 튀르크족이 셀주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 등 거대한 이슬람 튀르크 제국을 건설하는데 역동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¹¹⁰

중앙아시아 훈족들의 이런 용맹성은 서쪽으로 이동한 유럽인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었고, 남쪽으로 이동한 튀르크족 역시 압바스 왕조에서의 활

¹⁰⁹ Ibid., 211.

¹¹⁰ Ibid., 213.

약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터키인들 역시 과거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강하다. 터키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자긍심이 터키 민족주의 정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튀르크족은 종교보다도 민족주의가 강하다. 터키인들은 “터키인은 무슬림으로 태어난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주의자들처럼 이슬람공동체와 민족주의 혹은 부족주의가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도리어 국민의 대다수는 민족과 종교 중 양자택일을 한다면, 민족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민족주의 의식은 튀르크 민족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긍지와 케말리즘(Kemalism)에 기인한다.¹¹¹ 케말리즘은 다음의 3.4. 터키의 근대사상의 3.4.1. 케말리즘 항목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19 세기 중반에서 20 세기 초까지 오스만 제국은 재건을 시도하였다. 셀림 2 세(Selim II: 1524 년 5 월 28 일 ~ 1574 년 12 월 12/15 일)와¹¹² 마흐무드 2 세(Mahmud II: 1785 년 7 월 20 일 ~ 1839 년 7 월 1 일)가¹¹³ 시작한 개혁 운동을 탄지마트(Tanzimat: 개혁운동 1839~1876)라고 불렀다.¹¹⁴ 서구식 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을 정비하며, 전통적인 이슬람 학교를 개혁하여 서구식 근대교육 제도를 실시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이런 개혁운동은 압둘메지트(Abdulmecit 1839 년~1861 년)와 압둘아지즈(Abdulaziz 1861 년~1876 년)의 통치 기간에도 계속되었다. 한편으로 서구식 교육제도 도입의 결과로 겐츠 튀르크

¹¹¹ Ibid.

¹¹² http://en.wikipedia.org/wiki/Selim_II (2012.01.03)

¹¹³ http://en.wikipedia.org/wiki/Mahmud_II (2012.01.03)

¹¹⁴ <http://en.wikipedia.org/wiki/Tanzimat> (2012.01.03)

(Genç Türk)를 비롯하여 청년 지식층이 새로운 엘리트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1876 년 프랑스 헌법을 기초로한 근대법을 제정함으로써 입헌군주국으로 발전하였다.¹¹⁵

오스만 제국 말기부터 터키에 정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이슬람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오스만 제국 말기 1867 년부터 1873 년 사이에 이러한 이슬람주의 사상이 오스만 제국 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¹¹⁶ 한편 이슬람 세계의 보호자로 인식되던 오스만 제국이 서서히 약화되어 가고 산업혁명 이후 서구 선진 제국의 문물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슬람 세계가 약화되고 서구의 피지배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알라 신을 멀리한 결과라는 인식과 단순한 주장이 일반 대중에서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낙후되고 쇠약해진 오스만 제국을 재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슬람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후에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오히려 이슬람을 개혁함으로써 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서구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¹¹⁷

튀르크족과 아랍과의 접촉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있었다. 그러나 튀르크족이 아나톨리아에 들어오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나톨리아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다. 그들은 투쟁과 생존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를

¹¹⁵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상)*, 2003, 214.

¹¹⁶ Ibid.

¹¹⁷ Ibid., 215-216.

흡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랍문자를 받아들리게 되었고 주변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아나톨리아로 유입되고 문화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다. 오스만 제국은 비잔틴을 점령하고 예니체리(yeniçeri) 부대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다스렸다. 터키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이슬람의 종주국이 되었지만 종교보다도 민족주의가 강하다. 오스만 제국의 말기인 19 세기 중반에서 20 세기 초까지 이슬람을 통하여 오스만은 재건을 시도하였다. 터키에 정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이슬람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

3.4. 근대 터키의 사상

3.4.1. 케말리즘

케말리즘은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무스타파 케말은 근대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며 터키의 국부이다. 무스타파 케말은 1881 년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마케도니아 주의 셀라닉(Selanik: 현재 그리스의 Thessaloniki: 테살로니키)에서 태어났다.¹¹⁸ 그의 아버지는 알리르자 에펜디(Ali Rıza Efendi)¹¹⁹ 였고 그의 어머니는 쥐베이데 하눔(Zübeyde Hanım)¹²⁰이었다. 그는 1923 년 1 월 29 일 라티페 우썌키(Latife Uşşaki)¹²¹와 결혼

¹¹⁸ http://tr.wikipedia.org/wiki/Mustafa_Kemal_Atat%C3%BCrk (2011.11.22)

¹¹⁹ http://tr.wikipedia.org/wiki/Alı_R%C4%B1za_Efendi (2011.11.22)

그는 셀라닉 출신으로 각종 재단에서 서기직, 세관의 경비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으며, 잠시 민병대에 대위 계급으로 자원 입대한 적도 있었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꽤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가 태어났던 그 당시의 생활 고에서 벗어나고자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¹²⁰ http://tr.wikipedia.org/wiki/Z%C3%BCbeyde_Han%C4%B1m (2011.11.22)

했으나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자식도 없었으며 그 후 재혼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을 학교에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셀라닉의 최고 명문이며 현대식 교육을 하는 쉘시 에펜디(Şemsi Efendi)학교에 보내기를 원했다. 먼저는 어머니의 뜻대로 마을 학교에 다니다가 아버지가 원하던 쉘시 에펜디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가난했던 집안 형편은 더욱 가난해져 그는 어머니와 함께 동생을 데리고 농장에서 집사로 일하고 있던 외삼촌 곁으로 이사했다. 얼마 뒤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공부를 계속 시키기 위해서 그를 셀라닉에 있는 친할머니 곁으로 보냈다. 친할머니 슬하에서 행정고등학교 중등부에 입학했으나 선생님이로부터 메를 맞았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다시 불러들였다. 그 후 “무스타파는 군사 중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다.”¹²² 성실한 학생으로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선생님이 그에게 자신의 이름인 케말을 붙여 주었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성숙과 완전)이 되었다.¹²³

이즈음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무척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군사중등학교를 졸업한 해인 1895 년 그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마나스트르

그녀는 셀라닉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집안 출신으로, 과거의 전통에 순종하는 여성이었지만, 당시 주변의 여성 대부분과는 달리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

¹²¹ http://tr.wikipedia.org/wiki/Latife_U%C5%9F%C5%9Faki (2011.11.22)

¹²² Yüksek Mert / Cengiz Açıkgöz. *ATATÜRK'ün Liderlik Sırları*, Ankara: Tutku Yayınevi, 2011, 22.

¹²³ 손주영 외, *20세기를 움직인 50인*, 서울: 가람 기획, 2000, 172.

군사고등학교(Manastır Askeri İdadisi: Lise)에 입학했다.¹²⁴ 그는 학교를 졸업한 후 1899 년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에 있는 사관학교 보병과에 입학했다.¹²⁵ 생도시절 그의 성적은 우수했으며, 정치·예술·문학에 대한 관심도 한층 더 높아졌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참모대학에 진학한 그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한편, 동료들과 함께 펴낸 신문에 일련의 글을 발표하면서 정치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05 년 참모대학을 5 등으로 졸업하면서 대위가 된 그는 동료들과 함께 비밀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헌병대에 의해서 발각되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군사재판까지 받는 받지 않았지만 멀리 시리아로 발령받게 되었다.¹²⁶

다마스쿠스(Şam, Damascus)에서 정치적인 유배생활을 하면서 상업을 하고 있던 무스타파 케말은 조국 자유협회(Vatan ve Hürriyet Cemiyeti)를 설립했다.¹²⁷ 이스라엘의 예루살렘(Jerusalem), 하이파(Haifa), 테라비브의 야파(Jaffa in Tel Aviv) 등지에서 조직의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나 별로 성공하지 못하여, 데살로니가의 상부로 가서 허가를 받았고 조직의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¹²⁸

1921 년 8 월에 무스타파 케말의 군은 사카리아(Sakarya) 전투에서 그리스 군을 격퇴하고, 1922 년에는 그들의 이즈미르 점령을 종식시켰다.¹²⁹ 이렇게 되자 연합국들은 점차 무스타파 케말 조직을 오스만 제국의 대표기구로

¹²⁴ <http://www.turkcebilgi.com/ataturk/> (2012.01.30)

¹²⁵ Mert, *ATATÜRK'ün Liderlik Sırları*, 22.

¹²⁶ Ibid., 172.

¹²⁷ Mert, *ATATÜRK'ün Liderlik Sırları*, 54.

¹²⁸ 손주영 외, 173.

¹²⁹ Mert, *ATATÜRK'ün Liderlik Sırları*, 29.

인정하기 시작했다. 1922 년 11 월 1 일에는 오스만 정부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호소로 국민의회는 술탄제의 폐지를 의결하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술탄 메흐메트 6 세와 왕족 구성원들은 터키에서 축출되고, 메흐메트 6 세의 사촌 압둘메지드가 술탄으로서가 아닌 단지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칼리프로서 이슬람의 상징적인 대표자로 잔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4 년에는 칼리프 제도마저도 폐지 되었다.¹³⁰

연합국은 케말주의자들만을 상대로 협상하고 로잔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트라키야(Trakya)¹³¹의 터키 국경은 메리네 강(Merine Nehir)으로 확정되고, 그리스는 임로즈 섬(İmroz Ada: Gökçe Ada)과 보즈자 섬(Bozca Ada)으로 밀려났다. 또 강제적인 주민 교환이 논의되어 130 만의 그리스인이 터키를 떠났고, 40 만의 그리스 영토 내 터키인이 터키로 귀환했다.¹³²

국민회의는 1923 년 10 월 13 일 앙카라를 터키의 수도로 공표하는 한편 10 월 29 일에는 터키를 공화국으로 선포하고, 무스타파 케말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개혁 목표는 정제된 터키 사회를 이슬람 전통에서 벗어나 서구화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슬람 최상의 지도자를 나타내는 칼리프 제도 폐지, 이슬람력 대신 서양력 도입, 여성 참정권 부여, 라틴 숫자 도입, 도량형 도입, 모든 국민의 성(姓) 사용법 도입,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주간 공휴일 변경 등 크고 작은 수많은 개혁을 이루었다.”¹³³

¹³⁰ Ibid., 178.

¹³¹ 유럽 대륙에 위치한 발칸 반도의 남부지역

¹³² Ibid., 179.

¹³³ 이회철, *터키*, 서울: 리수, 2006, 140.

그리고 공화적 헌법이 1924 년 4 월 20 일 제정·공표되었다. 처음에는 이슬람이 국교로 채택되었으나 1928 년 4 월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터키는 정교가 분리된 순수한 세속주의 공화국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¹³⁴

6 개의 화살로 알려진 케말리즘 이데올로기는 현대 터키 공화국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대 원칙이 되었다. 무스타파 케말의 개혁 작업에 나타난 케말리즘은 실증주의와 합리주의, 계몽사상에 기초한 체계적 발전을 통해 현대적이고 민주적이며 세속적인 국가의 건설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하였다. 현실주의, 실용주의에 대한 무스타파 케말의 생각은 “여섯 개의 화살”의 기초적 토대가 되었는데, 이것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원칙은 무스타파 케말 생전에는 이데올로기로서 정의되지 못하고 사후에 케말리즘으로 체계화 되었다. 6 개의 화살은 공화주의, 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 개혁주의, 세속주의이다.¹³⁵

아래의 내용은 케말주의 6 개의 원칙을 요약한 것이다.¹³⁶

공화주의

케말리즘은 터키의 개혁 정치 혁명을 나타낸다. 많은 나라를 복속하게 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근대 터키를 세우는데 있어서 국가 상태와 정체성의 실현에 대한 주체성을 말한다. 케말리즘은 터키의 공화당 제도를 허락했다. 그리고 케말리즘은 터키에서 사람들의 희망을 대변할 수 있는 공화당 제도라고 여겨진다.

민족주의

케말리즘의 개혁은 민족주의의 개혁이었다. 케말 민족주의는 인종차별이 아니었다.

¹³⁴ 손주영 외, 179.

¹³⁵ <http://salih.kr/entr/%EC%BC%80%EB%A7%90%EB%A6%AC%EC%A6%98Kemalizm-Atat%C3%BCrk%C3%A7%C3%BCI%C3%BCk-Kemalism-%EC%97%AC%EC%84%AF%EA%B0%9C%EC%9D%98-%ED%99%94%EC%82%B4> (2011.11.20)

¹³⁶ http://www.allaboutturkey.com/ata_prensio.htm (2011.11.20)

로 지향하고자 주창한 6개의 기본 원칙을 국가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표명한 것이다. 그는 이슬람 죄상의 지도자를 나타내는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고 이어 서 이슬람을 국교에서 삭제되고 이슬람력 대신 서양력 도입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여성 참정권 부여, 라틴 숫자 도입, 도량형 도입, 모든 국민의 성(姓) 사

케말리들은 무스타파 케말이 무너진 오스만 제국을 바라보면서 서구

세속주의
케말리들은 세속주의는 단지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의미 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분리 및 교육, 문화, 법무 관제에서 생각의 독립과 종교 사고와 종교 기관의 지메르부터 기관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케말주의 원칙은 세속주의가 무신론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속주의 원칙은 문명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무스타파 케말이 세운 개혁주의원칙 또는 혁명주의의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터키의 개혁을 통해 국가의 전통적인 기관들이 현대 기관으로 바뀌었다. 전통적인 개념이 제거되고 현대 개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개혁주의 원칙은 개혁의 변화만을 인지하는 것을 뛰어넘었다.

국가주권주의
무스타파 케말은 자신의 진술과 정책으로 터키의 완벽한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경제 및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국가주권주의의 원칙은 국가가 국가의 일관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국가나 민간 기업이 관여하기 꺼려하는 부문 또는 부족함을 보인 부문 또는 국익이 요구하는 부문에 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었다. 국가주권주의의 원칙을 응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주권주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국가(정부)는 경제 활동의 기본적인 근원지를 세운 해 중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의 주요 산업의 소유주가 되었다.

국민주의
케말주의자의 개혁은 내용과 목적이 있는 사회 혁명이었다. 목표를 가진 엘리트가 이끄는 혁명이었다. 케말주의자의 개혁은 특히 스위스 민법에 의한 여성에 관한 법률의 서양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터키 여성들은 1934년에 투표권을 얻었다. 터키에서 의 진정한 지도자들은 동민들이라고 무스타파 케말은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터키에서 실상보다는 목표였다. 국민주의 원칙에 관한 공식적인 성명서에 케말리들은 사회계층의 특권이나 구별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 개인, 가족 계층, 기구(단체)가 사람 위에 있거나 우월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케말주의의 기본 원칙은 실체로 터키 시민권의 최고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시민권에 관해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연합과 국가 정체성을 갖추는데 원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터키 공화국의 독립을 보존하고 또한 공화국의 정치 발전을 돕기 위한 민족주의의 인 민족주의였다. 제국주의가 아닌 케말 민족주의는 터키 국가의 영토와 사람으로 구성된 나를 수 없는 전체라는 원칙을 믿고 있다.

용법 도입,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주간 공휴일 변경 등 크고 작은 수많은 개혁을 이루었다. 문자개혁과 남성과 여성의 평등 등 터키 공화국은 오늘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민주적이고 발전된 서아시아 국가의 하나가 된 것이다.

3.4.2. 누르시즘

누르시즘은 사이드 누르시(Bediuzzaman Said Nursi, 1873 년 ~ 1960 년 3 월 23 일) 에 의해 이루어진 사상이다. 사이드 누르시는 1873 년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아나톨리아의 동부 비틀리스(Bitlis) 도(道)에 있는 누르스(Nurs) 마을 (현재지명: Kephirli 마을, Hizan) 의 유복한 쿠르드 가문에서 태어났다.¹³⁷ 그는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후에 누르시로 불려지게 되었다.

그는 9 살 때부터 그의 형인 몰라 압둘라(Mola Abdullah)와 함께 할리 디 파 낙쉬반디(Naqshbandi Khalidi) 교육을 받은 후, 아나톨리아의 비틀리스 히잔 반(Bitlis Hizan Van) 지방을 중심으로 새로운 낙쉬반디(Naqshbandi)¹³⁸ 운동

¹³⁷ http://en.wikipedia.org/wiki/Said_Nurs%C3%AE (2011.11.22)

¹³⁸ http://www.panzerpaust.com/bbs/view.php?id=silk&page=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PHPSESSID=05faef901c9ec245f67ff0abf9da26f8 (2011.11.23)

낙쉬반디: 부하라 출신인 바하 알딘 낙쉬반디(BAHĀ AL-DĪN NAQSHBANDĪ, 1387년 죽음)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피 환경에서 자라났다. 하제간(Khwājegān) 학파에서 하제간(Khwājegān)은 하제(Khwāje: 스승)의 복수형으로서 수피 성인들의 이름 앞에 하제라는 칭호를 사용한 데서 이 종단의 이름이 유래했다. 하제간 종단의 창시자는 12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하제 유수프 하마다니(KHWĀJE YŪSUF HAMADĀNĪ, 1140년 죽음)로 알려져 있다. 하제간 종단은 15세기까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피 종단으로서의 지위를 누렸으며, 그 이후에 창시된 낙쉬반디야, 야사위야, 쿠브라위야 종단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삼마시 하제가니(SAMMĀSĪ KHWĀJEGĀNĪ, 1339년 죽음), 압둘 알칼릭 그주와니(ABDUL AL-KHALĪQ GUJDUWĀNĪ, 1320년 죽음), 사이드 아미르 쿨랄(SAYYID AMĪR KULĀL, 1379년 죽음) 등으로부터 수피 교육을 받았다. 낙쉬반디야 종단은 신학의 대가 무함마드 파르사(MUḤAMMAD PĀRSĀ, 1419년 죽음)의 도움으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후, 15세기 말에 몰라 일라히(MULLA ILĀHĪ, 1491년 죽음)에 의해 소아시아로, 17세기에는 이맘 랍바니

를 전개했다. 이 운동은 지방에서도 이슬람의 부흥이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¹³⁹

사이드 누르시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매우 자유분방하고 지적인 욕구

가 강했다. 그는 사이르트(Sirt), 비를리스(Bilis), 티로(Tiro) 등과 같은 아나톨리아의 도시들을 순회하며, 당시의 '내놓으라' 하는 울라마(이슬람 학자)들과 거침없는 신학적 논쟁을 벌였다. 그의 빠른 순발력의 예지와 지들적인 비판의 지적은 교만으로 비쳐져 그가 머물던 도시에서 추방되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스스로 엄격한 금욕주의 생활을 자청하여 한겨울에 얼음물 속에 뛰어들고, 며칠 동안 곤 떨어진 아나톨리아의 언덕을 땀 몇 조각으로 연명하며 방황하는 수도승의 생활을 하기도 했다.¹⁴⁰

1890 년 이후 그의 관심은 근본적인 문제로 향했다. 그는 비를리스에

거주하면서 이슬람 신학과 근대과학 공부에 몰입했다. 그는 금련하는 근대화 와 물질주의에 맞서 교란의 메시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슬람 신학은 교리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제의 방법에 저중하고, 근대과학은 위험적인 측면이 없진 않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신학을 보충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지적 성숙의 과정에서 사이드 누르시는 낙취반다 파의 셰이크 무함마드 쿠프레마, 카다리파의

(IMAM RABĀNĪ, 1626년 죽음)에 의해 인도아대륙으로 전파되었다. 또한 16세기에는 몽골 통치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동투르크스탄 지역의 통치권을 양도받아 이 지역에서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며, 동투르크스탄과 중국의 이슬람 선교에 큰 공을 세웠다.

¹³⁹ 손주영의 지음, 20세기 중동을 움직인 50인, 257.

¹⁴⁰ Ibid.

세이드 누르 그리고 역시 낙쉬반디 파의 셰이크 페힘과 같은 동부 아나톨리아의 뛰어난 수피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수피 사상이 젊은 사이드 누르 시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그는 어떤 특정 수피 셰이크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았고, 당시 수피 종단(tarikat)의 구조와 관심사가 그 시대의 상황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¹⁴¹

그 후 누르시는 반(Van)에서 15 년간이나 머물며 새로운 이슬람 신학의 틀을 다듬었다. 이때 그가 구상한 계획은 아랍 세계 최고의 대학인 이집트의 알 아즈하르 대학을 본뜬 ‘메드레세트 알 제흐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종교 대학 성격의 이 마드라사¹⁴²의 특징 중의 하나는 아랍어, 터키어, 쿠르드어 등 세 언어가 강조되어 모든 강의에서 사용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근대과학을 전통적인 과목과 함께 가르칠 예정이었는데, ‘종교과학은 의식의 빛이고, 문명의 기술은 지성의 빛이기 때문에, 진리는 이 둘의 결합으로 더욱 명백해진다’는 신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결국 그가 마드라사를 통해 의도했던 주된 목적은 세계의 적대적인 지적 집단의 화해와 융합이었다. 즉 근대지식의 신봉자, 전

¹⁴¹ Ibid., 257-258.

¹⁴² http://dic.paran.com/dic_encv_view.php?q=&kid=13174400 (2011.11.23)

마드라사(madrasa): 이슬람 교의(敎義)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원. 터키어로 메드레세라고 한다. 10세기 무렵 가즈니왕조 때 시아파(派)와의 항쟁 중에 창시되었다고 한다. 셀주크왕조의 니잠루 물크는 마드라사를 제도화하였고, 19세기 말까지는 서아시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는 1개 이상의 마드라사가 있었으나 근대 고등교육의 보급과 함께 사라졌다. 인도·동남아시아에서는 마드라사가 초급 코란학교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양식은 이스파한의 마드라사 마다르이샤(1706~14)와 같이 안마당을 둘러싸고 강의실인 4개의 이반(iwān)과 2층 아케이드 모양의 학생주거용 방을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는 이반이 2개인 형식도 있다. 또 터키에서는 코니아의 인제 미나레 마드라사(1260~65)처럼 안마당부분을 돔으로 덮는 형식이 발달했다.

통학문 추종자 그리고 수피 종단 추종자들의 통합이었다.¹⁴³

그의 주장은 터키인과 쿠르드인들의 이슬람을 통한 형제애의 발현이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동원의 극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를 꾀했다. 이는 새로 탄생한 세속적인 터키 공화국 체제가 강력한 이슬람 억압정책을 강화하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현명한 정책적 선택이었다.¹⁴⁴

그는 1934 년 130 명의 추종자와 투옥되었다. 감옥에서 석방 된 후 그의 주된 활동은 이슬람 강연과 저술이었다. 논리와 과학성을 갖추면서도 대중성을 띤 그의 저서들은 암울한 시대의 한줄기 빛이었고, 무슬림의 소명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 특히 무슬림 중산층들의 호의적인 반향을 가져왔다. 그의 저서는 700 권이 넘는다. 그는 코란의 연구와 그것의 현실적인 적용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리살레이 누르(Risale-i Nur: 빛의 책)”이다.¹⁴⁵ 그는 앙카라에서 신군부 혁명세력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¹⁴⁶

“리살레이 누르”에 대하여 사이드 누르시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구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타락한 신세대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는 스스로 이 작업을 신의 소명이라고 믿었다. 그는 형이상학적이고 논리적인 복잡한 모든 문제를 코란의 구절에서 근거하여 재해석해주었다. 코란이 해라면, 달에 비유된 ‘리

¹⁴³ 손주영 외, 258.

¹⁴⁴ Ibid., 259.

¹⁴⁵ <http://www.dur.ac.uk/sgia/imeis/risale/> (2011.11.23)

사이드 누르시의 전집은 6,000 페이지에 달한다. Durham 대학교는 영국에 2004년에 세워져 중동과 이슬람연구소(Institute for Middle Eastern and Islamic Studies)와 아랍세계의 고급 연구 센터(Centre for the Advanced Study of the Arab World)가 있다.

¹⁴⁶ 손주영 외, 260.

“유럽의 문화는 붕괴의 시점에 왔다.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슬람 신앙에로의 통일이 요하다. 코란의 가르침을 이미 쇠퇴한 문명의 규범으로 대처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살레이 누르'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코란의 해설이었다.”¹⁴⁷

이러한 사이드 누르시의 사상과 방식이 가장 잘 압축된 것은 “서른세 가지의 말씀(Otuz üç Söz)”¹⁴⁸ 이라는 작품에 잘 나타나있다.

1950년 5월 14일 터키 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다당제가 허용되면서 20년 이상 집권했던 무스타파 케말의 정당인 공화당이 참패하고 아드난 멘데레스(Adnan Menderes 1899~1961)¹⁴⁹가 이끄는 민주당이 단독 집권했다. 국민의 종교인 이슬람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그의 정책에 따라, 멘데레스 수상(1950~1960)은 사이드 누르시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으로 인해 앙카라에서 활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그는 “리살레이 누르”에 있는 여성의 옷차림에 관하여 재판에 회부되었다.¹⁵⁰ 사이드 누르시는 종교에게 적대적인 세속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파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들의 정신은 코란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¹⁵¹

사이드 누르시가 가진 세속정부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과장되었다. 그와 터키 공화국의 관계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지만 그는 정부의 부정이나 타도보다는 세속주의 틀 속에서 고유한 이슬람적 가치의 극대화를 꾀했다. 그

¹⁴⁷ Ibid., 261.

¹⁴⁸ <http://www.erisale.com/> (2011.11.23)

¹⁴⁹ http://en.wikipedia.org/wiki/Adnan_Menderes (2011.11.23)

¹⁵⁰ 손주영 외, 262.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그들의 몸을 노출시키고, 아이들이 종교를 무시하고 자라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는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가?”

¹⁵¹ Ibid., 263,

“인간은 빵 없이는 살 수 없어도, 과일도 없어도 살 수 있다. 수피주의는 과일이다. 그러나 코란의 가르침은 빵과 같다.”

리고 그는 근대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면서도 철저히 비정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¹⁵²

사이드 누르시의 추정자들인 누르주들은 한 개인으로서의 사이드 누르시에게 헌신하기보다는, 그가 남긴 인생의 귀중한 열매인 “리살레이 누르”에 대해서 보다 더 열광적이다.¹⁵³ 사이드 누르시 정신의 계승자는 다수의 대중적인 수많은 그의 추종자들이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신적 혹은 직접적 계승자는 없다. 수십 명 규모의 수많은 소규모 그룹들이 “리살레이 누르”를 탐독하며 스스로 누르주(사이드 누르시의 제자)라 일컫고 있는 것이다.¹⁵⁴

누르주 그룹은 사이드 누르시의 사후 4, 5 개의 소분파로 나뉘어졌으나, 현재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은 사이드 누르시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페툴라 굴렌이 이끄는 자만(Zaman) 그룹이다. 누르주 그룹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1840 년대에 50 만 명 정도였던 것이 현재 약 5 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 특기할 사항은 대도시의 무슬림 지식인들은 물론, 아나톨리아 무슬림들의 거의 대다수가 누르주가 아니더라도 사이드 누르시의 가르침에 심정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⁵⁵

현재 누르주 그룹의 주된 목표는 첨단교육을 통한 머리와 정신을 동시에 갖춘 무슬림 엘리트 양성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수천 개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터키의 경계를 넘어 중앙아시

¹⁵² Ibid., 264.

¹⁵³ Ibid., 265.

¹⁵⁴ Ibid.

¹⁵⁵ Ibid.

로 더욱 이슬람을 확장시키고 있다.

참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누르시들을 몰하여 국내외적으로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그의 사상은 케만리즘과 아주 상반된다. 그러나 원 정부에서는 이슬람을 다시 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리살레이 누르(Risale-i Nur: 빛의 책)”이다. 현재 해와 융합이었다. 그는 코란의 연구와 그것의 현실적인 적용에 심혈을 기울였 집단인 근대지식의 신봉자, 진통학문 추종자 그리고 수피 종단 추종자들의 화 그가 마드라사를 통해 의도했던 주된 목적은 세계의 적대적인 지적 보충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고, 근대 과학은 위험적인 측면이 없진 않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신학을 작했다. 당시 이슬람 신학은 코란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주해의 방법에 치중 틀게 해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누르시가 시 누르시들은 근본하는 근대화와 물질주의에 맞서 코란의 메시지를 새

과 학원 설립을 통해 터키 문화와 이슬람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¹⁵⁶

아나 아시아 전역으로 교육기관을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문화원

다. 시대적 변화는 그들의 세계관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변화를 참
 현대 터키는 오스만 제국 시대를 지나 유럽을 지향하는 근대 터키이
 란하고 있지 않다.

의 세계관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근대 터키의 세계관은 이슬람 이전 시대도, 이슬람 시대도 아닌 새로운 시대
 한 민족의 종교로 됐을 때의 세계관이 그렇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해체된
 화를 가져왔다. 이슬람을 민족의 종교로 받아들이기 전의 세계관과 이슬람을
 앞서 변화될 세계관이기도 하다. 터키인들의 세계관은 시대적으로 뚜렷한 변
 세계관에 대하여 문제를 만들어 조사한 것이다. 본 결과는 변화된 의식구조에
 본 설문은 기존의 세계관들을 확인하고자 위에서 정리한 터키인의
 교적으로 이슬람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못한다.

그들에게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
 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 셀주크와 오스만 제국을 이루었다. 이슬람이
 로 터키는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이 이동 해 아나톨리아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이라서 아랍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위에서 터키의 역사를 살펴본 대
 만 아랍에 속해있지 않다. 그러므로 아랍과 이슬람이 하나라는 이유로 터키도
 연구한 것과 '나'가 연구한 것에 차이가 별로 없다. 터키의 종교는 이슬람이지
 기존의 일반적인 연구는 대부분 문헌 연구에 그쳤다. 그래서 '가'가

4.1. 현지 조사의 필요성

4.21 세기 터키인의 세계관 연구

펴보는데에 문헌적 연구 만으로는 충족을 시킬 수 없다. 설문조사의 표본을 대학생으로 택한 이유는 앞으로 50 년 그리고 더 앞서 나아가 터키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기에 선택하였다. 현대 터키 대학생들의 세계관을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활용하여 문화 교류와 경제를 위한 미래 터키와의 의사소통에 귀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2. 설문조사

4.2.1. 설문조사의 어려움

타 문화권 설문 조사는 먼저 타 문화라는 것 자체가 장애물이다. 그러나 장애물 육상 선수들이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요령과 스피드가 생기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점차 해결되었다. 설문 조사 대상이 외국인이라 처음에는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 현지인들의 세계관을 알기 위하여 설문조사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 과제였다. 왜냐하면 문항들이 일상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이다. 더욱 종교에 관하여 무슬림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폐쇄적이므로 질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설문의 내용 중 다소 어려운 역사, 지리, 경제, 의식구조 등의 질문이 있어 이것 또한 어려움이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설문조사 해야 할지 대상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으로 현장의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조

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중에 터득한 방법으로 잘 해결 되었지만 설문을 하는 방법에도 외국인으로서 많은 제한이 있었다.

4.2.2. 설문지 작성

터키인들은 친절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문지 조사를 쉽게 생각하고 흔쾌히 한다. 그러나 무슬림으로써 타 종교에 대하여 조금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감 없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문항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다. 세계관을 다루기 위해서는 문화와 전통, 종교, 가족의 문제들, 의식 구조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문항의 문장을 깊이 생각해야 했다. 연구에 필요한 문항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설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설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일단 터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항목별로 나누었다. 항목은 지리적 환경, 외교와 국제문화, 경제문제, 가족과 전통, 민족과 국가사회, 민족과 종교, 의식구조, 한국과 터키의 관계로 8 가지로 분류했다. 한국과 터키의 관계를 넣은 것은 한국과 터키의 관계에 있어 본 연구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얼마만큼 한국인이 터키인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와, 터키인들의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조사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이런 설문을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가져왔으면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문항은 보는 바와 같이 A1. 지리적 환경 10 문항(A101-A110), B2. 외교와 국제문화 5 문항(B201-B205), C3. 경제문제 8 문항(C301-C308), D4. 가족과 전통 12 문항(D401-D412), E5. 민족과 국가사회 13 문항(E501-E513), F6. 민족과 종교 17 문항(F601-F617), G7. 의식구조 28 문항(G701-G728), H8. 한국과 터키 7 문항(H801-H807)으로 총 100 문항이며 비중을 의식구조를 28%로 가장 많이 두었다. 그리고 민족과 종교(17%), 민족과 국가사회(13%), 가족 전통(12%)을 일반적으로 다루었다. 지리적 환경과 외교 국제문화, 경제문제는 가볍게 다루었다.

설문지의 터키어 번역을 위하여 현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모든 문장을 구성하며 도와 주었다. 본 터키어 설문지는 현지인이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4.2.3. 현장 설문지 조사 방법

본 논문에서 핵심으로 사용한 100 문항의 설문지를 통하여 현지 엘리트층인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의식구조와 역사, 시사 문제가 있어 일반인이 응답하기에는 어렵기에 연구자는 현재 엘리트층의 세계관 분석연구를 위하여 터키의 N 시의 N 대학교를 대상으로 정하였다.

연구자가 외국인인 관계로 보안에 문제가 있을까 하여 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학교 총장을 찾아간 결과 관할 도시사의 허가가 필요한 것을 알았다. 도시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경찰청장의 보안 검사가 필요

했다. 결국 대학교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N 도의 도지사와 경찰청의 허락을 받고 최종적으로 대학교의 허락을 받았다.¹

당시 (2010~2011) 표본 대학은 터키 81 개도 각지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 수가 6,224 명이었다. 허가를 받은 후 3 개월에 걸쳐 매일 학교로 출근하여 강의실을 찾아가 학장과 교수의 도움을 청해 설문조사를 했다. 쉬는 시간에 식당과 매점에서 설문할 때 학교의 모든 직원이 도와 주었다. 최종적으로 859 명의 설문 받을 수 있었다.² 이에 대하여 설문에 허가와 응답을 해준 대학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4.3. 데이터 분석 방법

설문지의 내용이 100 문항으로 859 명의 문항은 85,900 문항으로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고 분석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빈도 분석을 위하여 SPSS 1.8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변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알파벳을 입력하였다. 예를 들자면 A101 은 지리적 환경의 1 번 문항이 되는 것이다. G701 은 의식구조의 1 번 문항이 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85,900 문항을 SPSS 1.8 프로그램에 모두 입력하고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도분석 된 도표

¹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기간을 거쳐 경찰청과 도지사, 본 대학교 총장의 허락을 받았다.

² 2011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859명의 설문을 받았다.

와 그래프를 문항마다 제시하고 분석하여 문항의 내용을 설명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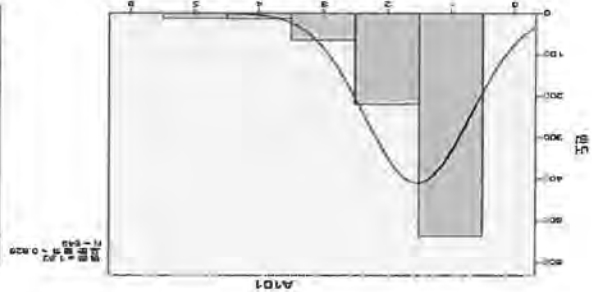
³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SPSS 1.8 프로그램에 85,900문항의 자료 입력을 완료하였다.

너보며 살펴본 결과 서쪽은 유럽쪽이며, 남동쪽은 아랍 쪽, 남중부는 시리아
큰 나라에 간 느낌을 줄 정도로 다르다. 연구자는 터키의 동서남북을 모두 다
뵈은 반도이다. 이들은 지역마다 의상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주택구조도 다
람들이 63.3 % 이다. 그리고 순차적이다. 터키는 동쪽에 대륙을 두고 서쪽으로
본 질문에 의하면 지역마다 풍습과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다고 한 사

도표 1 <A101>

구분	인도	베트남	우호피센트	우호피센트	우호피센트
인구	537	62.5	63.3	63.3	63.3
문화	220	26.8	26.8	26.8	26.8
경제	65	7.6	7.7	7.7	7.7
인구	14	1.6	1.6	1.6	1.6
문화	13	1.5	1.5	1.5	1.5
경제	848	98.8	98.8	98.8	98.8
인구	10	1.2	1.2	1.2	1.2
문화	859	100.0	100.0	100.0	100.0

그레프 1 <A101>



지역의 풍습과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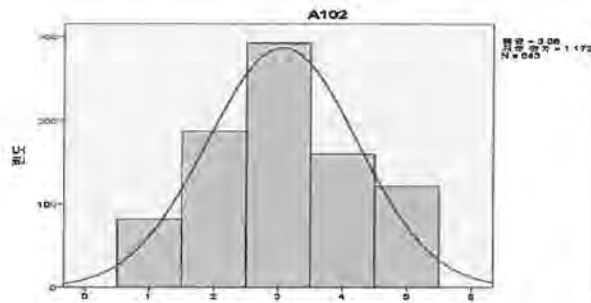
A101. 터키는 동서로 긴 반도와 여러 나라와의 접경으로 인해, 동서남북 각
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지리적 환경인 10 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쪽으로는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 문화
경을 이루고 있다. 남쪽으로는 이라크와 시리아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서북
동쪽으로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나히치반), 그리고 이란이 접
로 쉽게 뚫은 아나톨리아 반도와 트라키아 유럽 일부를 영토로 가지고 있다.
튀르크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왔지만 대륙을 동북쪽으로 두고 서쪽으로

5.1. 지리적 환경

5.21 세기 터키인의 세계관 연구 질문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해석

풍인 것을 보았다. 흑해 지역인 북부에서는 말을 축 치지게 하는 사투리를 구사한다. 예를 들자면 “알로(Alo)”를 “알류-(Alyu-)”라고 한다.

A102. 제 1 차 세계 대전 후 많은 지역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인근 나라와 이질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많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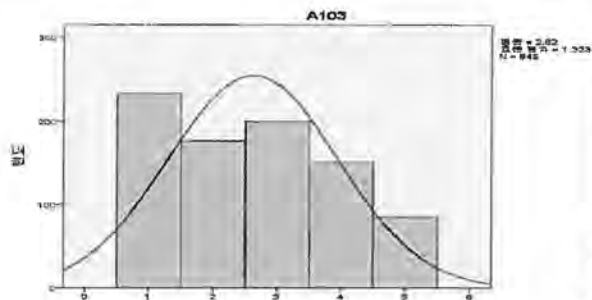
그래프 2 <A102>

A10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2	9.5	8.7	8.7
2	187	21.8	22.2	31.9
3	293	34.1	34.8	66.7
4	160	18.6	19.0	85.6
5	121	14.1	14.4	100.0
합계	843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6	1.9		
합계	859	100.0		

도표 2 <A102>

본 질문은 “중간이다”가 집중되어 있고, “매우 그렇다”가 9.7%로 갈등의 존재함이 적음을 말하고 있다. “중간이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34.8 %로 중간이 집중 되어 있다. 이것은 터키와 인근 나라들 간에 갈등이 적지만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다.

A103. 터키를 아랍 문화와 전통이 비슷한 나라로 대우하는 것은 반갑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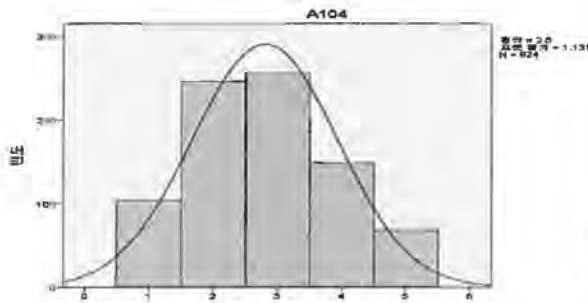
그래프 3 <A103>

A10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33	27.1	27.6	27.6
2	176	20.5	20.8	48.4
3	200	23.3	23.7	72.1
4	151	17.3	17.9	89.9
5	85	9.9	10.1	100.0
합계	845	98.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1.6		
합계	859	100.0		

도표 3 <A103>

일반적으로 이슬람문화 하면 아랍문화를 말한다. 그러나 터키는 이슬람 세계에 들어와 이슬람을 1,000 년간 주도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들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동하여 중동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아랍과 같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그러나 그들 답변의 빈도를 보면 터키와 아랍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슬람이면서도 문화는 중동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A104. 터키 민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유입되었는데 1,000 년이 지난 지금 중동 문화에 많이 접근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프 4 <A104>

A10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4	12.1	12.6	12.6
2	246	28.6	29.9	42.5
3	258	29.8	31.1	73.5
4	149	17.3	18.1	91.6
5	69	8.0	8.4	100.0
합계	824	95.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6	4.1		
합계	860	100.0		

도표 4 <A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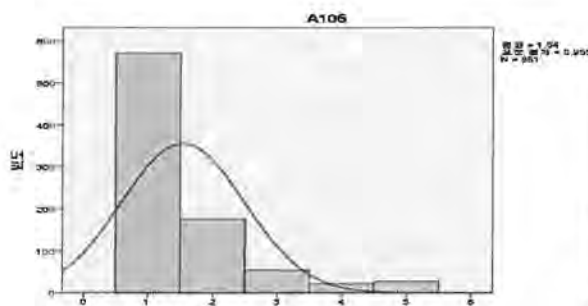
터키 사람들은 571 년 탈라스(Talas) 강 전투를 통하여 압바스 왕조에 유입되었고,¹ 1071 년 8 월 26 일에 말라즈기르트(Malazgirt)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아나톨리아에 정착하였다.² 그러나 이들은 현재까지 중동문화에 접근한 것 같다는 인식이 답변의 분포를 볼 때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 “그렇다”가 29.9%이다. 이것은 역시 터키인

¹ Kemal Kara, *GENEL TÜRK TARİHİ 2*, İstanbul: Önde Yayıncılık, 1996, 15.

² Ahmet Nezihi Turan, *TARİH EL KİTABI SELÇUKLULAR'DAN BUGÜNE*, Ankara: Grafiker, 2004, 17.

들은 중동지역에 살고 있고 자신의 문화 속에 중동문화가 들어 있지만 자신들만의 중앙아시아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105.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형적 조건과 천연의 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터키는 외국의 자본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적절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래프 5 <A105>

A10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71	66.5	67.1
	2	177	20.6	87.9
	3	54	6.3	94.2
	4	22	2.6	96.8
	5	27	3.1	100.0
합계	859	99.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9	
합계	8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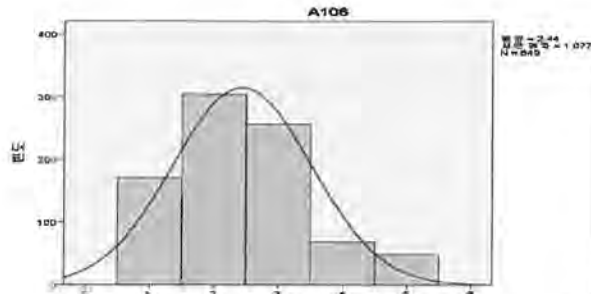
도표 5 <A105>

터키는 천연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터키를 찾는 관광객이 많다.³ 중동지역에서는 물이 제일 귀하지만 터키는 물이 제일 풍부한 나라이다. 중동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다. 터키는 땅을 파면 기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온다. 터키인들은 외국 자본가들이 투자 할만한 나라라고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 것 같다. 그러나 회사를 세우는 것은 쉽지만 자국민을 위한 조건들이 많고 보험과 연금제도가 오래 전부터 있어서 외국인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³ <http://www.delinetciler.net/forum/turkiye-hakkinda-hersey/140317-turkiye-uelen-turist-sayilari-2004-2011-a.html> (2012.01.10)

2010년도 터키 방문객이 23,135,201명이다.

A106.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유럽 문화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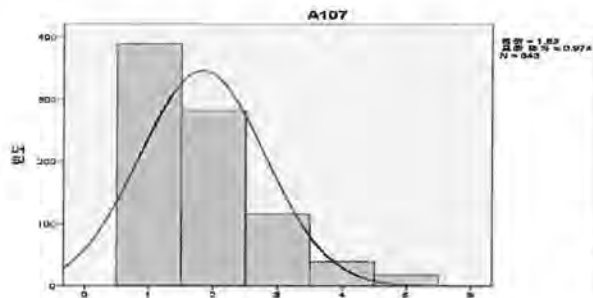
그래프 6 <A106>

A106				
유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71	19.9	20.1	20.1
2	304	35.4	35.8	55.9
3	256	29.8	30.2	86.1
4	69	8.0	8.1	94.2
5	49	5.7	5.8	100.0
합계	849	98.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	1.2	
합계	859	100.0		

도표 6 <A106>

터키는 지리적으로 주로 아시아 지역인 아나톨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스탄불을 비롯하여 트라키아 지역은 유럽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모두 가지고 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슬람의 아랍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한편 그들은 이슬람이면서도 19 세기부터 유럽과 함께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유럽과 아랍과의 완충지대에 있다. 그들은 유럽 문화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 생각에도 유럽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를 모두 합치면 55.9%가 된다.

A107. 중동으로 진입하기 전 중앙아시아에서의 좋은 전통을 찾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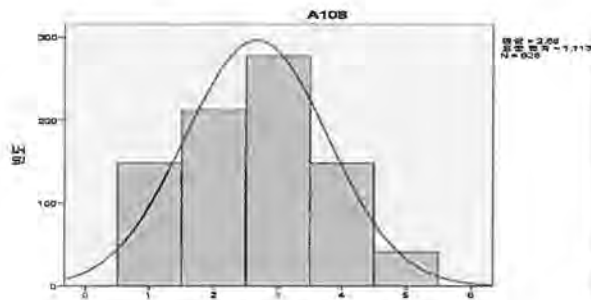
그래프 7 <A107>

A107				
유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389	45.3	48.1	48.1
2	282	32.8	33.5	79.8
3	115	13.4	13.6	93.2
4	39	4.5	4.6	97.8
5	18	2.1	2.1	100.0
합계	943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	1.9	
합계	959	100.0		

도표 7 <A107>

터키는 중앙아시아에서 현재 아나톨리아로 진입하기 전에 중앙아시아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랍을 만나고 아랍문화화 되었다. 중앙아시아의 문화는 그들에게 전통의 측면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중동에 살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문화를 다시 찾기 원하는 답변의 빈도수가 아주 높았다.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치면 79.6%가 된다.

A108. 터키는 현재 주변 국가보다 중앙아시아 국가(카작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튀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와의 문화 교감이 더 쉽다.



그래프 8 <A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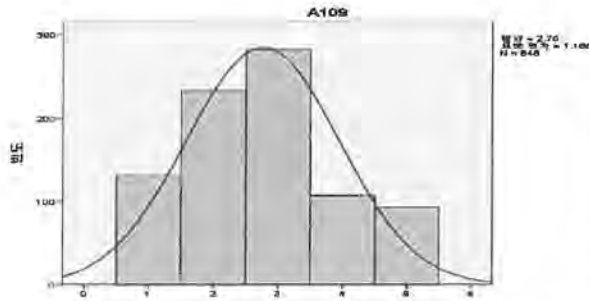
		A108			
유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48	17.2	17.9	17.9
2		212	24.7	25.7	43.6
3		277	32.2	33.5	77.1
4		148	17.2	17.9	95.0
5		41	4.6	5.0	100.0
합계		826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3	3.8		
합계		859	100.0		

도표 8 <A108>

터키는 현재 주변 국가들과 1,000 년을 함께 살아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떠난지 이미 1,000 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쉬운 쪽에 빈도가 몰려 있다. 본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그렇다”가 17.9%이지만 “그렇다”는 25.7%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43.6%가 중앙아시아 문화를 이해하기 쉽다고 말하고 있다.

A109. 터키는 주변의 그리스, 불가리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르메니아,

그루지아의 문화를 이해하기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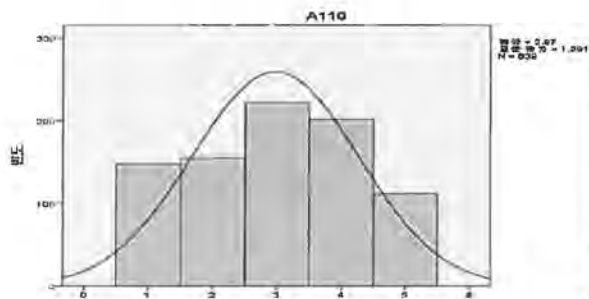
A10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1	15.3	15.5	15.5
2	233	27.1	27.5	43.0
3	202	32.0	33.3	76.4
4	107	12.5	12.6	89.0
5	93	10.8	11.0	100.0
합계	846	98.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1.5		
합계	859	100.0		

그래프 9 <A109>

도표 9 <A109>

주변국 중 그리스와 불가리아는 유럽이고, 시리아와 이라크는 아랍지역이며 이란은 독특한 페르시아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루지아는 카프카스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아르메니아는 동방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주변국을 이해하길 원하는 것에 대해 중간 입장에 많은 본포를 이루고 있지만 주변국을 이해하길 원하는 쪽이 조금은 더 높다.

A110. 제 1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현재 오스만 제국의 영화는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A1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48	17.2	17.6	17.6
2	155	18.0	18.5	36.1
3	222	25.8	26.5	62.6
4	202	23.5	24.1	86.7
5	112	13.0	13.3	100.0
합계	839	97.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0	2.3		
합계	859	100.0		

그래프 10 <A110>

도표 10 <A110>

제 1 차 세계 대전 때 터키는 독일을 지원하여⁴ 유럽 연합군과는 적이

⁴ Ahmet Ete, *OSMANLI TARİHİ ANSİKİL OPEDİSİ*, Ankara: Akçağ, 2007, 493.

오스만 투르크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와 함께 동맹국으로 참전한다. 그러나 결국 제1차 세계 대전이 패전국이 되어 전범 국가로 지북됨으로써 세브르 조약을 체결해, 1914년 이전의 영토를 대부분 상실하고 조아시아와 유령의 일부만을 지니게 됐다.

러 가지 자원을 통하여 경제를 더 발전 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를 함께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관광과 여
국가들과 함께 교류하기를 원하고 있다. 터키인들은 아시아 문화와 유령 문화
고 있다. 터키인들은 오히려 중앙아시아 문화에서 전통을 다시 찾고 중앙시아
아랍과 북아프리카를 지배했었지만 아랍 문화와 동일시 하는 것은 원하지 않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터키인들은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1,000 년 동안
게 침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부터 독립했는데 지금은 주변국가들과의 이해 정도에 있어서 관등은 그렇
다 문화가 조금씩 다른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오스만 제국으
은 탐을 얻을 수 있다. 터키인들은 여러 나라가 인접해 있어서 그 국경지역만
위의 10 가지 질문을 통한 응답에서 지리적 환경에 대하여 다음과 관

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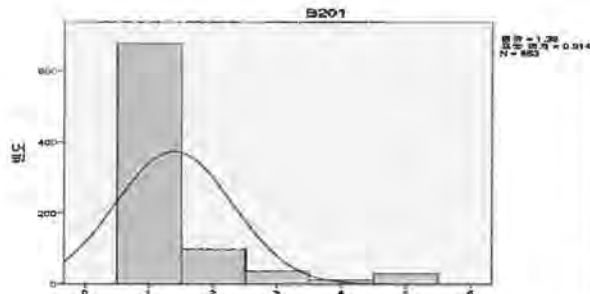
세대를 지나 그들은 오스만 제국의 영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한 것
의 영화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문포도는 거의 평형을 이룬다. 세대가 이미 3, 4
지고 근대 터키가 세워진 것이다. 제 1 차 세계 대전이 없었다면 오스만 제국
제국이 많이 쇠하여 있을 때였다. 결국 오스만 제국은 연합군에 의하여 무너
되어 콘스탄티노플 점령 이후 유령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 그것도 오스만

투자를 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5.2. 외교와 국제문화

중동은 전쟁과 테러가 많은 지역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외교와 국제 문화에 대한 질문은 전쟁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서구의 열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터키의 이슈인 유럽연합 가입하는 문제와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5 개의 문항으로 나눴다.

B201. 중동에서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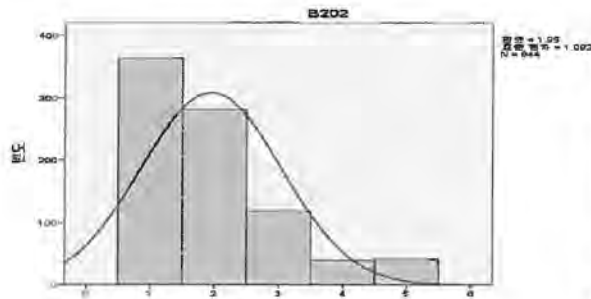
그래프 11 <B201>

B20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76	78.7	79.2	79.2
2	98	11.4	11.5	90.7
3	36	4.2	4.2	95.0
4	13	1.5	1.5	96.5
5	30	3.5	3.5	100.0
합계	853	99.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7		
합계	859	100.0		

도표 11 <B201>

이 질문의 요지는 아랍권으로 인한 테러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서구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터키도 중동권에 있는데 그들의 생각을 알고자 함이었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서 그들의 답변은 “매우 그렇다”의 분포가 78.7 %로 집중적이다. 그러나 반면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측면인 “매우 그렇지 않다”가 “그렇다”보다 극소수이지만 2%가 많다.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한 답변의 빈도가 3.5%이다.

B202. 현대 서구의 열강에 대하여 왜 열강이 되었는지 배우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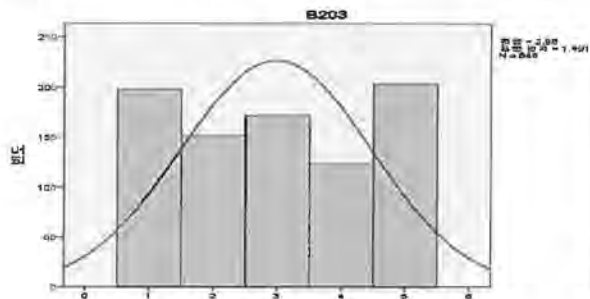
그래프 12 <B202>

B20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64	42.4	43.1	43.1
2	282	32.8	33.4	76.5
3	118	13.7	14.0	90.5
4	39	4.5	4.6	95.1
5	41	4.8	4.9	100.0
합계	844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	1.7		
합계	859	100.0		

도표 12 <B202>

터키는 오스만 제국 시대인 1453 년부터 1922 년까지 영화가 있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은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 힘을 잃고, 서구 유럽은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 열강의 대열에 들어갔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열강에 있었는데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우위에 있게 되었다. 터키의 젊은이들은 서구의 열강들이 왜 열강이 되었는지 배우기를 원한다는 설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43.1 %, ‘그렇다’가 33.4 %를 이루고 있다. 열강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B203.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원한다.



그래프 13 <B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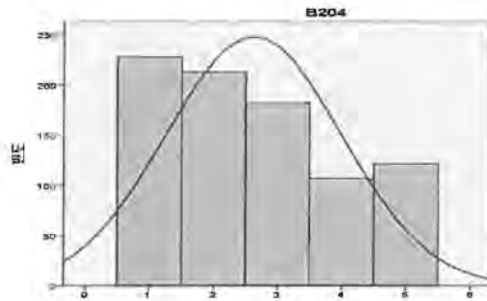
B20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88	23.1	23.4	23.4
2	151	17.6	17.8	41.3
3	171	19.9	20.2	61.5
4	123	14.3	14.5	76.0
5	203	23.6	24.0	100.0
합계	846	98.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1.5		
합계	859	100.0		

도표 13 <B203>

터키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의 젊은이들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그렇게 반기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분포가 약간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B204. 외국에서 살 수만 있다면 외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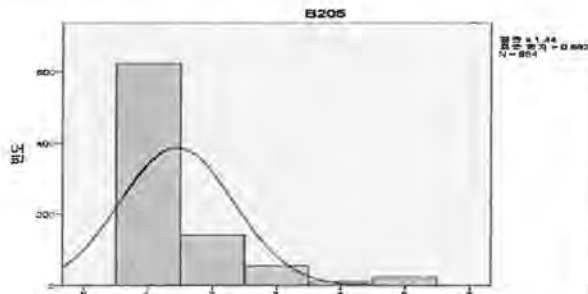
그래프 14 <B204>

B20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28	26.5	26.8	26.8
2	213	24.8	25.0	51.8
3	182	21.2	21.4	73.1
4	107	12.5	12.6	85.7
5	122	14.2	14.3	100.0
합계	852	99.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8		
합계	859	100.0		

도표 14 <B204>

터키 사람들은 외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외국에서 살 수만 있다면 외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들은 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외국에 가서 살 수 있는지 길을 찾고자 한다.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국제 결혼을 하기도 한다.

B205.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언어든지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프 15 <B205>

B20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22	72.4	72.8	72.8
2	142	16.6	16.6	89.5
3	58	6.6	6.6	96.0
4	11	1.3	1.3	97.3
5	23	2.7	2.7	100.0
합계	854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6		
합계	859	100.0		

도표 15 <B205>

터키인들은 외국에 대한 살기 원하는 만큼 이상의 외국어에 대한 선

호도가 높다. 터키인들은 주변국을 쉽게 오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복속하고 있었다. 조상들은 어쩔 수 없이 다국어를 해야 했다. 그들의 외국어 선호도는 “매우 그렇다”가 72.45 %로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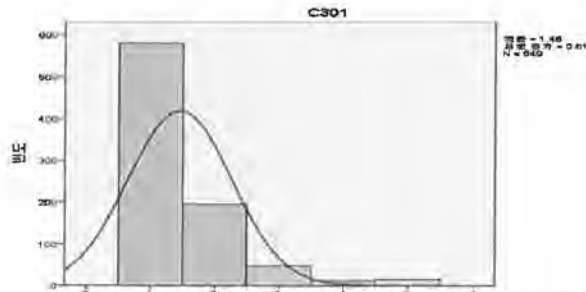
위의 5 가지 질문을 통한 외교와 국제문화에 관한 응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터키 젊은이들은 현대 열강들이 왜 열강이 되었는지 배우기를 원한다. 정부에서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지는 않다. 외국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외국에서 살기 원하고 외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빈도수가 높다.

5.3. 경제 문제

서구와 중동의 문제는 종교 문제를 떠나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는 서구 자본주의 경제를 제외한다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와 경제가 과연 어떻게 관계 있는지를 질문해보았다. 또한 21 세기 경제는 첨단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터키에서의 첨단 산업에 대한 관심부분도 첨가하였다. 또한 경제는 외교전략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터키가 유럽화 하려는 이유가 경제적인 요인인지 등에 관한 8 개의 질문을 하였다.

C301. 터키가 시장 경제를 택한 이상 보다 많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위해 국

가차원의 경제사업보다는 개인 차원의 경제 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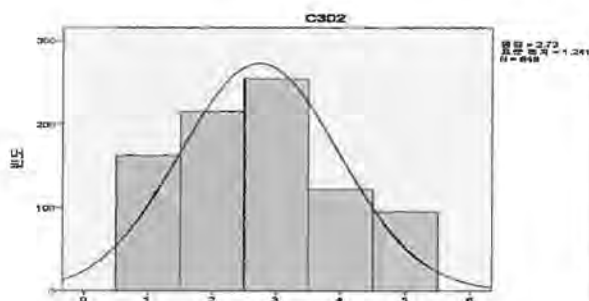
그래프 16 <C301>

C301				
유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80	87.5	88.3	88.3
2	185	22.7	23.0	91.3
3	47	5.5	5.5	96.8
4	12	1.4	1.4	98.2
5	15	1.7	1.8	100.0
합계	649	98.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	1.2	
합계	659	100.0		

도표 16 <C301>

A105 에서 터키인들은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하기를 바란다는 질문과 유사한 질문으로 다시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사경제가 발전 되는 것을 원함을 볼 수 있다.

C302. 터키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제 관계만큼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프 17 <C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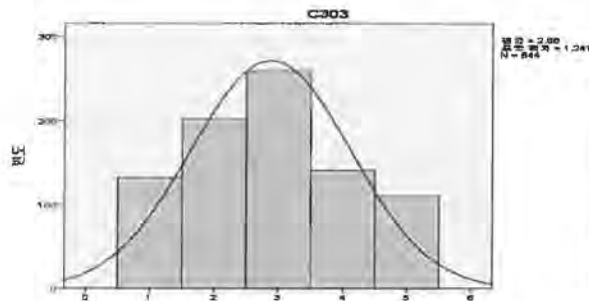
C302				
유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62	18.8	19.1	19.1
2	215	25.0	25.4	44.5
3	254	29.6	30.0	74.4
4	122	14.2	14.4	88.8
5	95	11.1	11.2	100.0
합계	848	98.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1.3	
합계	859	100.0		

도표 17 <C302>

오스만 제국 시대에서부터 근대 터키로 오면서 터키는 유럽과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종교와 경제를 따로 생각하는 터키로 볼 수 있다. 터키인들이 유럽과 미국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C303. 터키가 중동으로부터 유럽화 하려는 것은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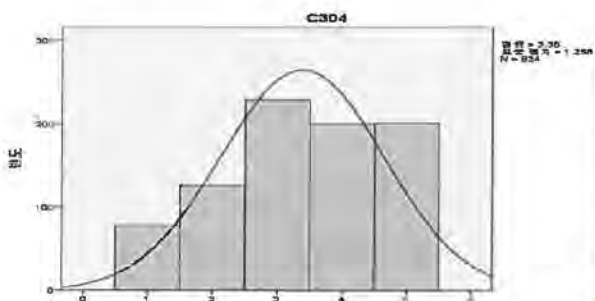
그래프 18 <C303>

C30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2	15.4	15.6	15.6
2	202	23.5	23.9	39.6
3	258	30.2	30.7	70.3
4	141	16.4	16.7	87.0
5	110	12.8	13.0	100.0
합계	844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	1.7		
합계	859	100.0		

도표 18 <C303>

본 질문에서 경제를 위해 유럽화 한다는 것이 “그렇다”라는 답변 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이 제일 빈도가 높은 것을 보면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젊은이들이 유럽화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C304. 세계 문화 개방과 더불어 타 종교가 유입되면 터키에 경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프 19 <C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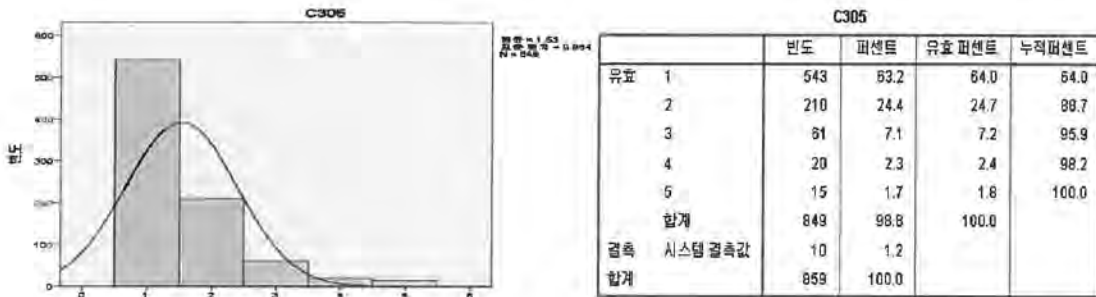
C30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8	9.1	9.4	9.4
2	126	14.7	15.1	24.5
3	229	26.7	27.5	51.9
4	200	23.3	24.0	75.9
5	201	23.4	24.1	100.0
합계	834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5	2.9		
합계	859	100.0		

도표 19 <C304>

터키인들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길 원하고 문화를 교류하기 원한다.

타 종교가 유입되는 것은 경제 발전과는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305. 터키의 미래 경제를 위하여 첨단 산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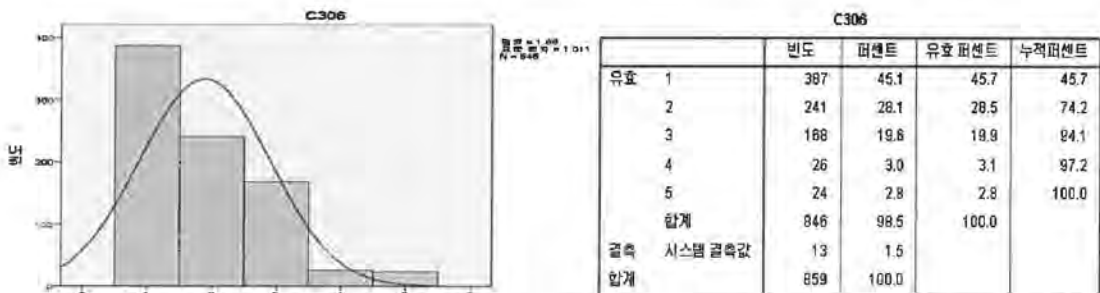


그래프 20 <C305>

도표 20 <C305>

오스만 제국에서 근대 터키가 되면서 농업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첨단 산업국가들의 경제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터키인들 역시 미래 경제를 위한 첨단 산업에 관심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C306. 터키는 앞으로 거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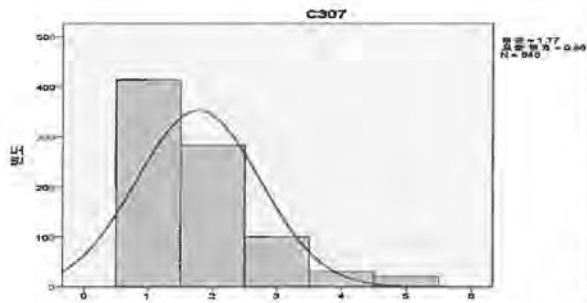
그래프 21 <C306>

도표 21 <C306>

터키의 젊은이들은 미래 터키의 경제를 밝게 바라보고 있다. 터키가

세계 20 경제 강국 대열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터키의 젊은이들에게 터키 경제 발전에 대한 과제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C307. 터키의 활발한 시장 교류를 위하여 외교관계를 원활하게 허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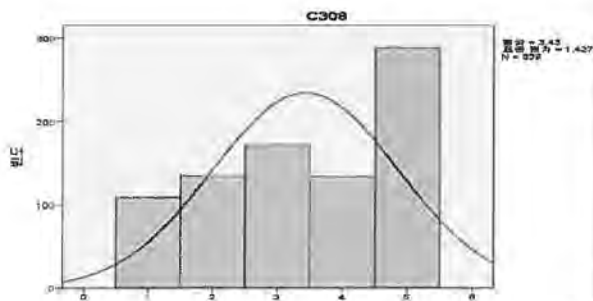
그래프 22 <C307>

C30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14	48.2	48.8	48.8
2	283	32.9	33.4	82.2
3	100	11.6	11.8	94.0
4	30	3.5	3.5	97.5
5	21	2.4	2.5	100.0
합계	848	98.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1.3		
합계	859	100.0		

도표 22 <C307>

터키 사람들은 경제 강국이 되고 원활한 외교 관계를 원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가 48.8%, “그렇다”가 33.4% 이다. 터키 경제를 위해 외교 관계가 원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C308. 종교와 경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프 23 <C308>

C30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9	12.7	13.0	13.0
2	135	15.7	16.1	29.1
3	172	20.0	20.5	49.6
4	134	15.8	16.0	65.6
5	289	33.6	34.4	100.0
합계	839	97.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0	2.3		
합계	859	100.0		

도표 23 <C308>

터키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이슬람 국가였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

짐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었다. 이런 변화를 거친 후의 세대에게 종교와 경제는 관계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 것이다. 터키인들 중 종교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빈도 수가 34.4% 이다. 그러나 “매우 그렇다”가 13%, “그렇다”가 16.1%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29.1%가 종교와 정치는 관계가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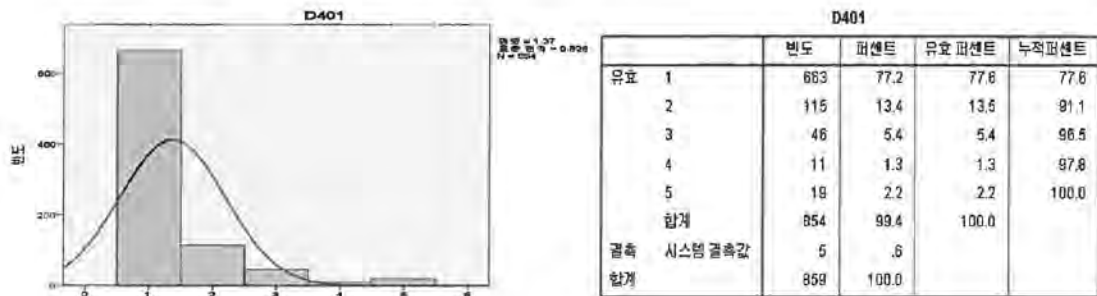
위의 8 가지 질문을 통한 응답을 통하여 경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경제를 위해서는 비록 종교와 문화가 달라도 경제 대국과 외교 관계를 가지기 원하고 있다. 서구의 종교는 기독교가 주를 이루고, 현재 터키의 종교는 이슬람이 주를 이루어 서구와 터키의 종교가 다르다. 외국과 문화 교류를 하려면 종교도 유입될 것인데 종교와 경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하여는 첨단 산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은 외교관계와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것은 경제 성장을 바라고 있는 젊은이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

5.4. 가족과 전통

가족과 전통은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가족과 전통은 자녀들을 통하여 전수되고 전수되는 전통 속에 세계관이 전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터키의 가족들도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하였다. “현대 가족들은 만족과 평안과 생명의 활기 속에서 살아가야 할 가족이 상호 이해의 부족으로 무너

져 내리고 있다. 누구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평안함만을 위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⁵ 터키의 가족들도 효 사상과 청소년의 성문제들이 문제화 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터키인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했다. 가족의 전통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가족과 명예에 대하여, 아들 사상 등 가족의 의식구조에 관한 12 개의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D401. 가족의 강한 연대감은 터키의 자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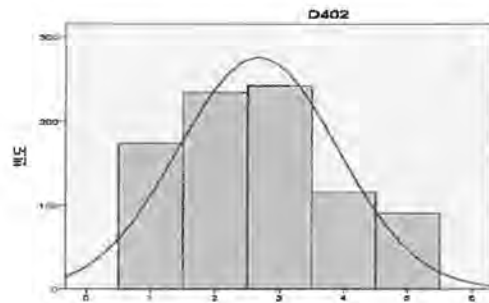
그래프 24 <D401>

도표 24 <D401>

터키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대가족 제도이다. 더욱이 결혼을 일찍 하기 때문에 3, 4 세대가 사는 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혹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이더라도 같은 도시 안에 있으면 주말에 부모를 찾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특히 명절이면 가족을 찾아 민족이 대 이동한다. 특히 쿠르반 바 이람(희생절기)에는 온 가족이 모여 소나 양을 잡는다. 그들은 가족의 강한 연대감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⁵ 이승열, *가족의 상호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M.A. 1994, 3.

D402. 전통적인 ‘효’의 사상이 빠른 개방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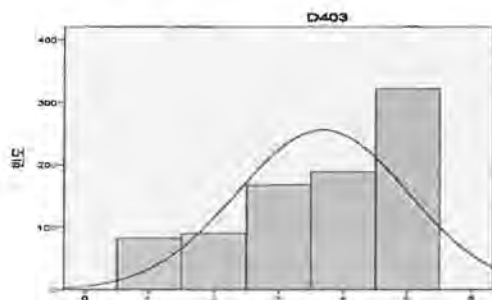
그래프 25 <D402>

D40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4	20.3	20.4	20.4
2	234	27.2	27.4	47.7
3	242	28.2	28.3	76.0
4	115	13.4	13.5	89.5
5	90	10.5	10.5	100.0
합계	855	99.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5		
합계	859	100.0		

도표 25 <D402>

21 세기가 되면서 터키도 예외는 아니다. 대도시화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다.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면서 터키인들은 깨끗하고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족은 부모로부터 분가하고 핵가족화 되고 있다. 가족의 연대감을 자랑하지만 점차 핵가족으로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D403. 몇 세대가 같은 집에서 사는 터키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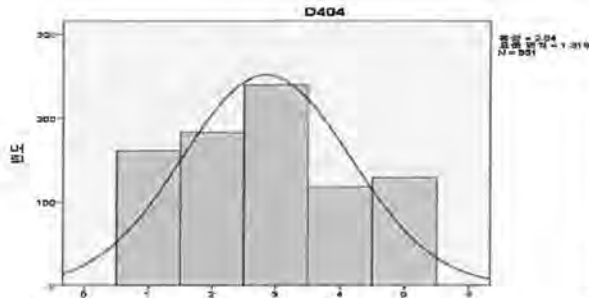
그래프 26 <D403>

D40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82	9.5	9.6	9.6
2	90	10.5	10.6	20.2
3	168	19.6	19.7	40.0
4	189	22.0	22.2	62.2
5	322	37.5	37.8	100.0
합계	851	99.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9		
합계	859	100.0		

도표 26 <D403>

주거환경에 대해서 몇 세대가 같이 사는 양식이 개선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빈도수를 볼 수 있다.

D404. 앞으로는 대가족 제도 보다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살림살이가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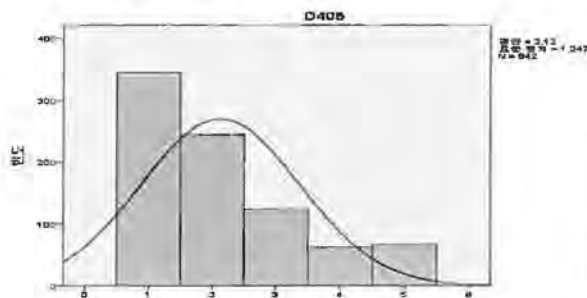
그래프 27 <D404>

D40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61	18.7	18.4	18.4
2	183	21.3	22.0	41.4
3	240	27.9	28.9	70.3
4	118	13.7	14.2	84.5
5	129	15.0	15.5	100.0
합계	831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6	3.3		
합계	859	100.0		

도표 27 <D404>

터키 젊은이들은 대가족 제도보다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살림을 원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 부부들은 자녀들도 서구처럼 하나 둘을 원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교육비를 들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육을 시켜 사회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D405.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적, 윤리적 도덕성이 없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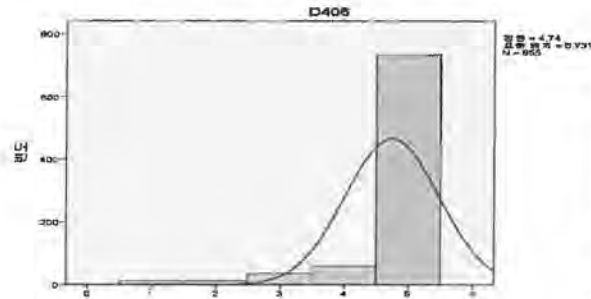
그래프 28 <D405>

D40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45	40.2	41.0	41.0
2	244	28.4	29.0	70.0
3	124	14.4	14.7	84.7
4	62	7.2	7.4	92.0
5	67	7.8	8.0	100.0
합계	842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2.0		
합계	859	100.0		

도표 28 <D405>

사회는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급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적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과 위성 TV 수신은 제한 없이 열려 있다. 청소년들은 보호가 필요하다.

D406. 아들을 얻지 못하면 둘째 부인을 얻어서라도 꼭 아들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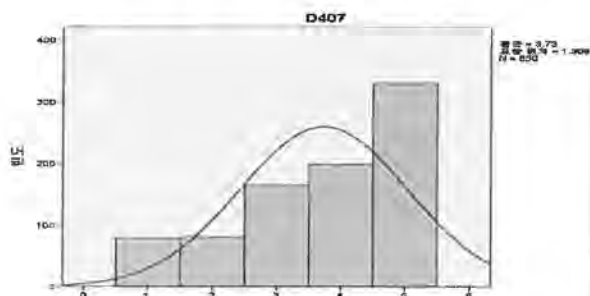
그래프 29 <D406>

D40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2	1.4	1.4
	2	13	1.5	2.9
	3	38	4.2	7.1
	4	60	7.0	14.2
	5	734	85.4	100.0
합계		855	98.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5	
합계		859	100.0	

도표 29 <D406>

이 설문은 아들에 대한 것보다는 이슬람의 일부 다처제를 향한 설문이다. 무슬림들은 자기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이용하기도 한다.⁶ 터키 젊은이들은 아들을 얻지 못하면 둘째 부인을 얻어 꼭 아들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그렇지 않다”가 85.8%로 확고하게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D407. 터키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다산하는 것이 좋다.



그래프 30 <D407>

D40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78	9.1	9.2
	2	80	9.3	18.6
	3	164	19.1	37.9
	4	198	23.1	61.2
	5	330	38.4	100.0
합계		850	99.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1.0	
합계		8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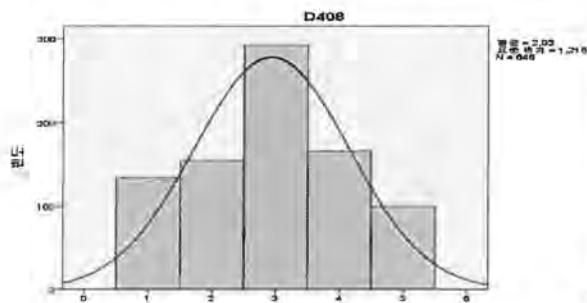
도표 30 <D407>

⁶ 최영길, 229.

무슬림들은 대를 잇고 자신의 이름과 가문을 영속하려는 인간의 자연적 욕망으로 불임증으로 임신을 못한 부인과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 하는 것보다 일부다처제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인간적이라고 한다.

터키 경제는 젊은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의 길이 쉽지 않다. 그래서 더 터키 젊은이들은 핵가족을 원하지만 경제만 따라준다면 다산도 원하고 있다.

D408. 터키의 여성의 지위는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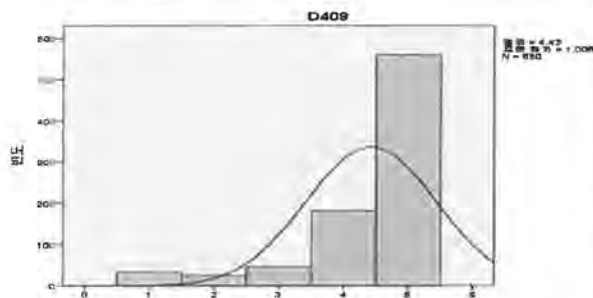
그래프 31 <D408>

D40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134	15.6	15.8	15.8
2	155	18.0	18.3	34.1
3	293	34.1	34.6	68.6
4	166	19.3	19.6	88.2
5	100	11.6	11.8	100.0
합계	848	98.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1.3		
합계	859	100.0		

도표 31 <D408>

터키는 이슬람 국가였었다. 이슬람 국가는 여성의 지위가 없다. 그러나 터키 여성들은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D409. 종교에 관계없이 여자는 머리에 히잡을 쓰고 긴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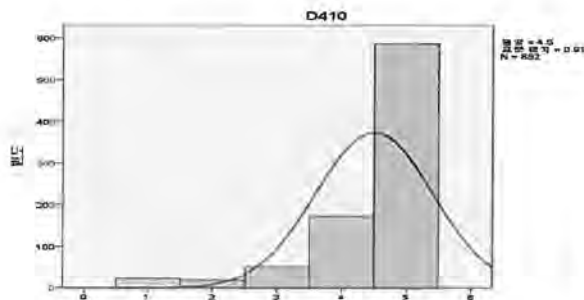
그래프 32 <D409>

D40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34	4.0	4.0	4.0
2	25	2.9	2.9	6.9
3	47	5.5	5.5	12.5
4	183	21.3	21.5	34.0
5	561	65.3	66.0	100.0
합계	850	99.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1.0		
합계	859	100.0		

도표 32 <D409>

터키는 요즘 이슬람 원리주의 자들에 의하여 여자들의 히잡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와 관계 없이 착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빈도 수가 66%나 된다.

D410. 병이 나면 병원보다는 전통적으로 전수되는 민간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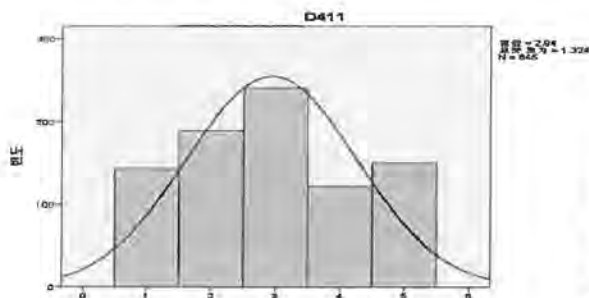
그래프 33 <D410>

D4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3	2.7	2.7	2.7
2	19	2.2	2.2	4.9
3	51	5.9	6.0	10.9
4	173	20.1	20.3	31.2
5	588	68.2	68.8	100.0
합계	852	99.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8		
합계	859	100.0		

도표 33 <D410>

터키인들은 병이 있을 때 아직도 병원보다는 전통적으로 전수 되는 민간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더 믿고 있다.

D411. 만약 제 2 외국어를 정하여 2 세들에게 가르친다면 그 언어는 영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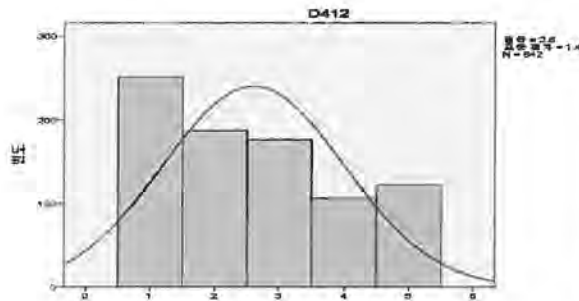
그래프 34 <D411>

D4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43	16.8	16.9	16.9
2	189	22.0	22.4	39.3
3	241	28.1	28.5	67.8
4	122	14.2	14.4	82.2
5	150	17.5	17.8	100.0
합계	845	98.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1.6		
합계	859	100.0		

도표 34 <D411>

터키인들은 외국에 대한 전망이 있지만 자신의 2 세에게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빈도수를 보면 “아주 그렇다”가 16.9%이며, “아주 그렇지 않다”가 17.8%이지만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는 8%나 “그렇다”가 높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영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412. 옛날 전통이라도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프 35 <D412>

D4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51	29.2	29.8	29.8
2	187	21.8	22.2	52.0
3	176	20.5	20.8	72.8
4	106	12.3	12.6	85.5
5	122	14.2	14.5	100.0
합계	842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2.0		
합계	859	100.0		

도표 35 <D412>

일반 적으로 전통은 사람들이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다. 터키인들 역시 전통을 쉽게 버릴 수는 없지만, 젊은이들은 옛날 전통이라도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29.8%이고 매우 그렇지 않다는 쪽이 약한 것으로 보아 옛날 전통이라도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을 택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위의 12 가지 질문을 통한 응답을 통하여 가족과 전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터키인들의 가족 간의 연대감은 깊다. 주거 양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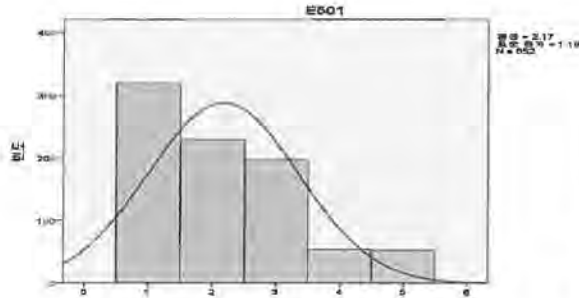
개조는 원하지 않지만 핵가족을 원하고 있다. 21 세기에 들어서서 부모에 대한 효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성적, 윤리적,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 아들을 낳기 위하여 부인을 둘씩 두려고 하지는 않는다. 여성 지위는 아직 미흡하지만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과 긴 옷은 종교인에게만 적용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병이 있을 때는 병원보다 전통적인 민간 요법을 더 선호한다. 하지만 좋은 전통이 아니라면 버리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5.5. 민족과 국가사회

사회의 기초 단위가 가족이다. 가족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 국가를 이룬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 또는 서로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⁷ 이러한 사회와 국가가 한 집단을 이루는 것은 동일한 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자부심,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삶에 다른 도움이 필요한지, 도움과 간섭의 문제, 외부인에 대한 관점과 한 사람의 장기 집권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질문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자 13 개의 질문을 하였다.

E501. 터키인들은 처음 대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생각한다.

⁷ 폴 G. 허버트 / 엘로이스 허버트 메네시스, *성육신적 선교사역(Incarnational Ministry)*, 안영권 이대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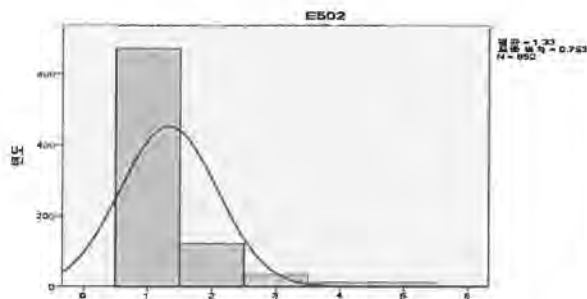
그래프 36 <E501>

E50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19	37.1	37.4	37.4
2	229	26.7	26.9	64.3
3	197	22.9	23.1	87.4
4	54	6.3	6.3	93.8
5	53	6.2	6.2	100.0
합계	852	99.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8		
합계	859	100.0		

도표 36 <E501>

터키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처음 대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친절하다.

E502. 터키인 하면 셀주크, 오스만 제국을 이어온 민족으로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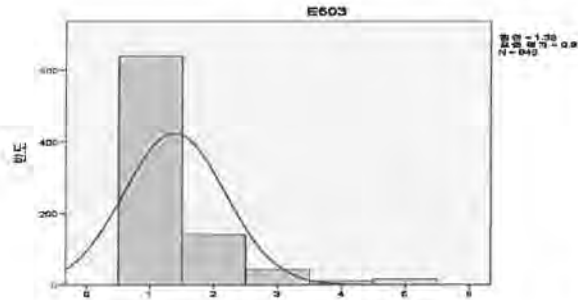
그래프 37 <E502>

E50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72	78.2	78.9	78.9
2	121	14.1	14.2	93.1
3	34	4.0	4.0	97.1
4	12	1.4	1.4	98.5
5	13	1.5	1.5	100.0
합계	852	99.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8		
합계	859	100.0		

도표 37 <E502>

터키인들은 용맹스럽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지역인 아랍으로 남하 하면서 셀주크 제국을 거쳐 오스만 제국을 이루었다. 이들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E503. 국토와 국권수호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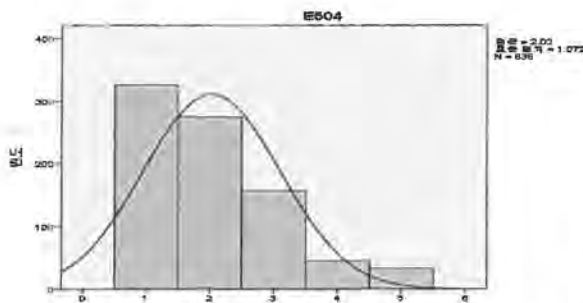
그래프 38 <E503>

E50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639	74.4	75.4
	2	140	16.3	16.5
	3	42	4.9	5.0
	4	11	1.3	1.3
	5	16	1.9	1.9
	합계	848	9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1.3	
	합계	859	100.0	

도표 38 <E503>

터키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 나라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라고 한다면 희생을 각오하겠다고 75.4%가 응답하고 있다.

E504. 터키의 소수 민족들 사이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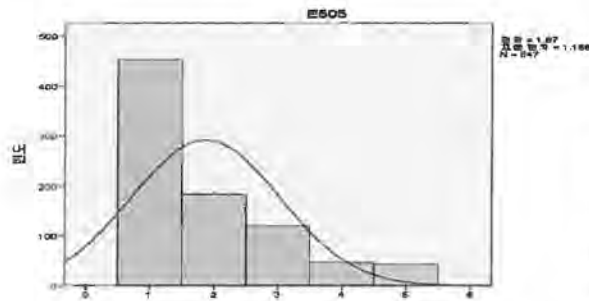
그래프 39 <E504>

E50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26	38.0	39.0
	2	275	32.0	32.9
	3	157	18.3	18.8
	4	45	5.2	5.4
	5	33	3.8	3.9
	합계	836	97.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2.7	
	합계	859	100.0	

도표 39 <E504>

터키는 오스만 제국 때 많은 나라들이 공국으로 있었다. 그러나 모두 독립을 하고 근대 터키 땅인 아나톨리아에는 부분적으로 소수 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 헌법상으로 터키어를 사용하면서 터키 시민권을 가진 모두는 터키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민족과 조상들이 다르기에 문화에 차이가 있다. 이들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 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E505. 터키는 세속주의 공화국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프 40 <E505>

E50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53	62.7	53.5	53.5
2	184	21.4	21.7	75.2
3	120	14.0	14.2	89.4
4	47	5.5	5.5	94.9
5	43	5.0	5.1	100.0
합계	847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1.4		
합계	859	100.0		

도표 40 <E505>

이 응답은 상당히 현실과 역 반응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헌법에 자유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웃 나라인 이란의 종교 난민들이 터키에 머물기 때문이다.

E506.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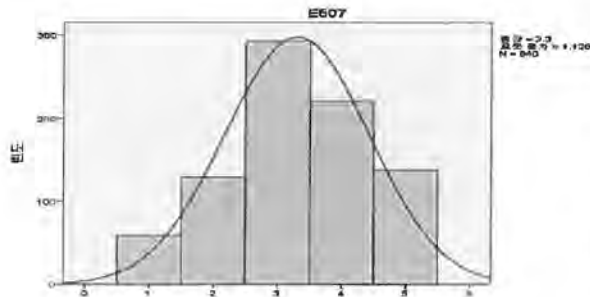
그래프 41 <E506>

E50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79	44.1	44.7	44.7
2	232	27.0	27.4	72.1
3	181	18.7	19.0	91.1
4	51	5.9	6.0	97.2
5	24	2.8	2.8	100.0
합계	847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1.4		
합계	859	100.0		

도표 41 <E506>

본시 무슬림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지극히 의존적이다. 터키인들은 본 질문에서 44.7%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자존심의 문제로 응답한듯하다.

E507. 나는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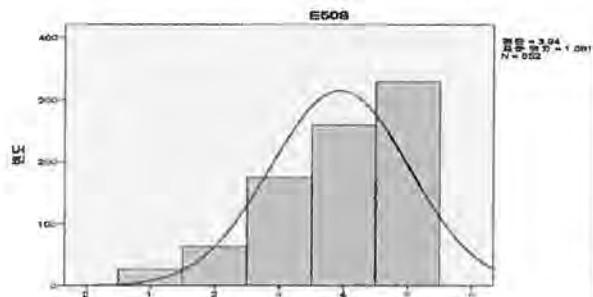
그래프 42 <E507>

E50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8	6.9	7.0	7.0
2	129	15.0	15.4	22.4
3	293	34.1	34.9	57.3
4	221	26.7	26.3	83.6
5	138	16.1	18.4	100.0
합계	840	97.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	2.2		
합계	859	100.0		

도표 42 <E507>

본 질문은 E507 과 반복적인 질문이다. 현실의 터키인은 동업을 좋아하고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업을 파기하고 만다. 쉽게 연합하고 쉽게 나누어 지는 것이 터키인들이 사는 방법이다.

E508. 나는 한번 충성한 사람에게는 그가 잘못을 했어도 계속 충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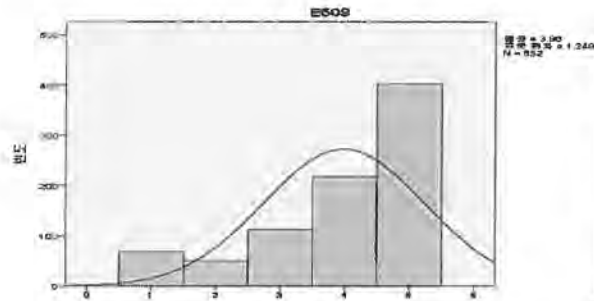
그래프 43 <E508>

D40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4	15.6	15.6	15.6
2	155	18.0	18.3	34.1
3	293	34.1	34.6	68.6
4	166	19.3	19.8	88.2
5	100	11.6	11.8	100.0
합계	848	98.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1.3		
합계	859	100.0		

도표 43 <E508>

터키인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번 충성한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을 한다. 그런데 이번 응답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충성했던 사람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충성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E509. 나는 타인의 간섭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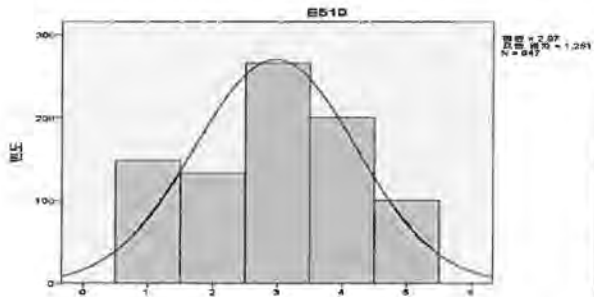
그래프 44 <E509>

E50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68	7.9	8.0
	2	50	5.8	5.9
	3	113	13.2	13.3
	4	218	25.4	25.5
	5	403	46.9	47.3
	합계	852	99.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8	
	합계	859	100.0	

도표 44 <E509>

터키인들은 타인의 간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여준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47.3%의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E510. 나는 친구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먼저 관계를 끊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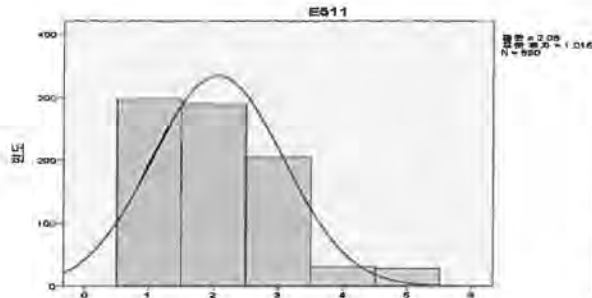
그래프 45 <E510>

E5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48	17.2	17.5
	2	133	15.5	15.7
	3	286	31.0	31.4
	4	200	23.3	23.6
	5	100	11.6	11.8
	합계	847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1.4	
	합계	859	100.0	

도표 45 <E510>

친구가 자신을 믿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먼저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본 질문에서 중간이 31.4%를 차지하고, “그렇지 않다”가 23.6%로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나 “아주 그렇다”라고 응답한 빈도수가 17.5%를 보여주고 있다.

E511. 터키인들은 외국인을 좋아한다.



그래프 46 <E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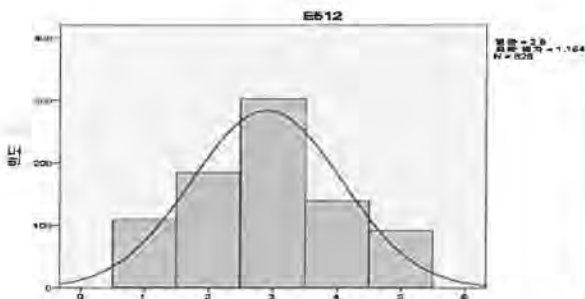
E511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97	34.6	34.9
	2	289	33.6	68.9
	3	205	23.9	93.1
	4	31	3.6	96.7
	5	28	3.3	100.0
	합계	850	89.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1.0	
	합계	859	100.0	

도표 46 <E511>

터키인은 외국인들을 좋아하는 편이다. 응답 역시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6.9%뿐이다. 대체적으로 외국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E512. 터키인들은 한 사람이 조직(단체, 정치)을 계속 집권하는 것을 좋아하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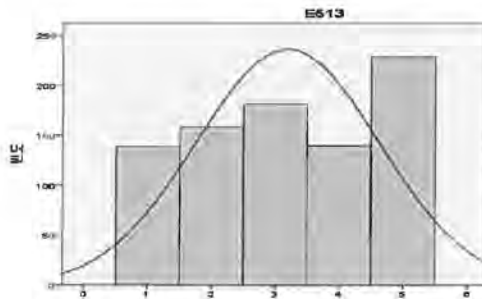
그래프 47 <E512>

E512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9	12.7	13.2
	2	185	21.5	36.5
	3	303	35.3	72.1
	4	139	16.2	88.8
	5	92	10.7	100.0
	합계	828	96.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1	3.6	
	합계	859	100.0	

도표 47 <E512>

본 질문에 대한 응답의 중간입장은 36.6%로 다수이다. 그러나 “그렇다”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보다 많지는 않지만 다소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터키인들은 한 사람이 조직(단체, 정치)을 계속 집권하는 것을 좋아하며 변혁을 좋아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E513.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프 48 <E513>

E5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9	16.2	16.4	16.4
2	159	18.6	18.7	35.1
3	182	21.2	21.4	56.5
4	140	16.3	16.5	73.0
5	229	26.7	27.0	100.0
합계	849	98.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	1.2		
합계	859	100.0		

도표 48 <E513>

잘 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는 본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27%를 나타내고 있지만 거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그렇다”가 16.4%, “그렇다”가 18.7%로 “그렇다”는 답변이 35.1%이다. 이것은 대부분 멸시를 정당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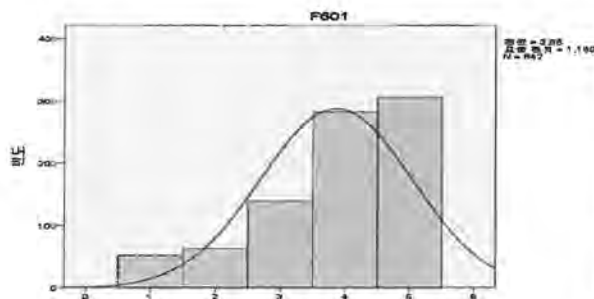
위의 13 가지 질문을 통하여 민족과 국가 사회에 관한 응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터키인들은 외국인을 좋아하고 매우 친절하다. 그들은 셀죽과 오스만 제국의 후예들로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도 감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소수 민족의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지극히 타인의 간섭을 싫어하며 또한 지극히 개인적임을 말하고 있다. 동업을 하다가도 자신의 이득이 없으면 쉽게 나누어진다. 친구가 믿어주지 않으면 먼저 단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충성했던 사람이라도 대상이 잘못하는 경우에는 충성하지 않는다.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멸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사는 사람들 또는 지식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며 사는 권위주의적인 특징을 보인다.

5.6. 민족과 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종교이다. 터키에서 주종교인 이슬람과 아랍어의 관계가 깊다. 그래서 아랍어와 터키어의 상대 질문을 했다. 정치와 종교, 가족의 다른 종교, 중앙아시아의 종교와 현재 관계,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 미래의 터키 종교에 관한 질문을 했다. 직접적인 종교 질문으로는 구원과 선과 악의 관계,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누구의 힘에 의하여 가는지에 대한 것으로 총 17 개의 질문들이다.

F601. 터키인들은 터키어보다 아랍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프 49 <F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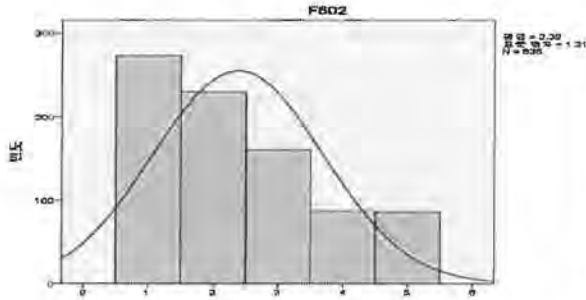
		F60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2	6.1	6.2	6.2
	2	63	7.3	7.5	13.7
	3	139	16.2	18.5	30.2
	4	282	32.8	33.5	63.7
	5	306	35.6	36.3	100.0
합계		842	99.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2.0		
합계		859	100.0		

도표 49 <F601>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아랍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랍어로 된 문양을 집에 많이 걸어 놓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터키인들이 아랍어보다는 터키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종교 보다는 국가

에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F602. 오스만 제국 시대의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것보다 현재의 분리는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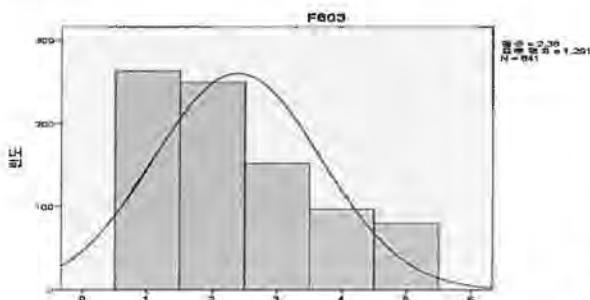
그래프 50 <F602>

		F60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73	31.8	32.7	32.7
	2	230	26.8	27.5	60.2
	3	160	18.6	19.1	79.3
	4	87	10.1	10.4	89.7
	5	86	10.0	10.3	100.0
합계		836	97.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2.7		
합계		859	100.0		

도표 50 <F602>

오스만 제국 시대 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었다. 그러나 1923 년에 근대 터키가 되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 되었는데 대부분 종교와 정치가 분리 되어 있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

F603. 가족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래프 51 <F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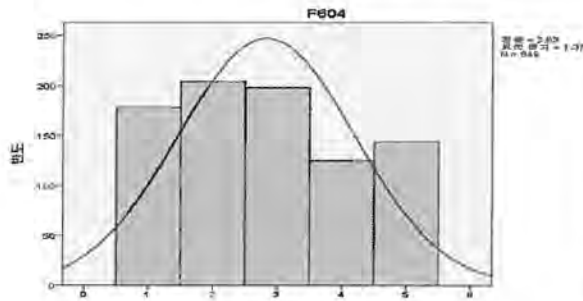
		F60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63	30.6	31.3	31.3
	2	249	29.0	29.5	60.9
	3	152	17.7	18.1	79.0
	4	97	11.3	11.5	90.5
	5	80	9.3	9.5	100.0
합계		841	97.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	2.1		
합계		859	100.0		

도표 51 <F603>

일반적인 무슬림 가족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터키의 젊은이들은 한 가족이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인정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31.3%, “그렇다”가 29.6%로 터키 젊은 이들은 한 가족에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F604. 인간관계에 있어서 종교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프 52 <F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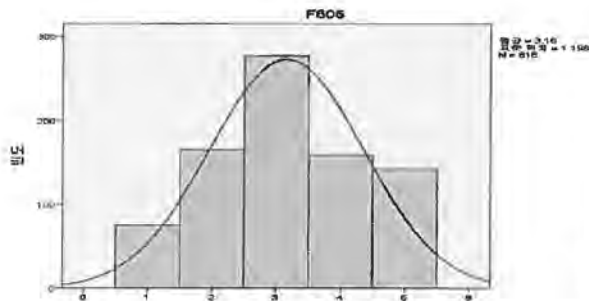
F60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8	20.7	21.0	21.0
2	204	23.7	24.0	45.0
3	198	23.1	23.3	68.3
4	125	14.8	14.7	83.0
5	144	16.8	17.0	100.0
합계	849	88.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	1.2		
합계	859	100.0		

도표 52 <F604>

일반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 종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종교가 중요하다는 면에 기울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605. 중앙아시아에서의 민속 신은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



그래프 53 <F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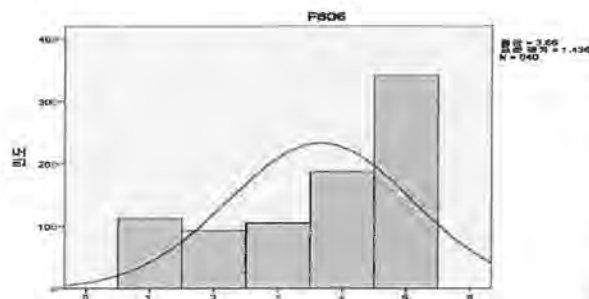
F60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5	8.7	9.2	9.2
2	165	19.2	20.2	29.3
3	277	32.2	33.8	63.2
4	159	18.5	19.4	82.6
5	142	16.5	17.4	100.0
합계	818	85.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1	4.8		
합계	859	100.0		

도표 53 <F605>

이 설문지 목적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의 신앙을 알기 위함이었

다. 이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신앙에 대하여는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의 분포가 많은 것을 보아 완전히 이슬람에 묻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F606. 터키에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슬람 이외의 종교는 없는 것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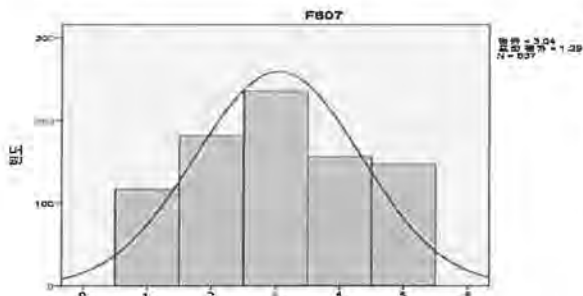
그래프 54 <F606>

F606				
유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2	13.0	13.3	13.3
2	93	10.9	11.1	24.4
3	105	12.2	12.5	36.9
4	188	21.9	22.4	59.3
5	342	39.8	40.7	100.0
합계	840	97.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	2.2	
합계	859	100.0		

도표 54 <F606>

이 부분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당히 고무적인 답변을 했다. 이슬람 외에 종교가 있어도 된다고 하는 답변은 절반에 가까운 40.7%로 다른 종교가 있어도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F607. 터키에서 다른 종교들도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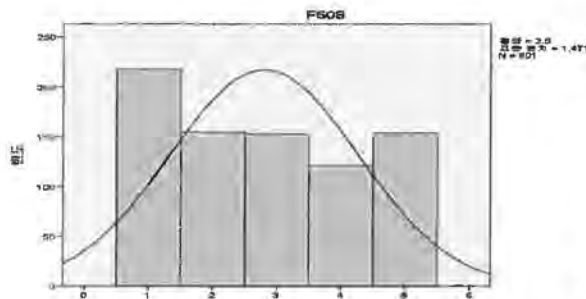
그래프 55 <F607>

F607				
유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17	13.8	14.0	14.0
2	181	21.1	21.6	35.6
3	236	27.5	28.2	63.8
4	156	18.2	18.6	82.4
5	147	17.1	17.6	100.0
합계	837	97.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2.6	
합계	859	100.0		

도표 55 <F607>

터키는 이슬람을 받아들여 제국을 이룬 나라로 이슬람과의 만남은 그들에게는 행운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슬람을 외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터키에서 다른 종교가 성장할 것 같다는 질문에 “아주 그렇다”라고 답변한 14%와 “그렇다”라고 답변한 21.6%를 합하면 35.6%가 된다는 것은 다른 종교가 들어와도 정착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F608. 성실한 사람이더라도 절대적인 신의 존재나 알 수 없는 힘이 돕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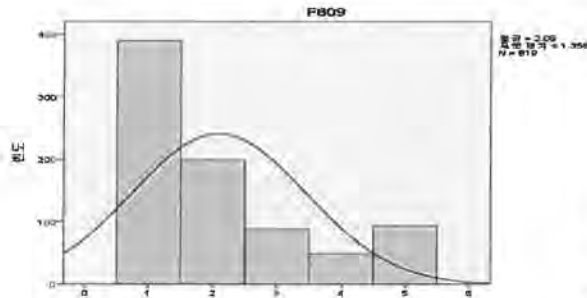
그래프 56 <F608>

F60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18	26.4	27.2	27.2
2	155	18.0	19.4	46.6
3	153	17.9	19.1	65.7
4	121	14.1	15.1	80.8
5	154	17.9	19.2	100.0
합계	801	93.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9	6.8		
합계	859	100.0		

도표 56 <F608>

터키인들의 신앙적이 면이다. 사람의 의지와 성실보다 신을 의지하는 마음은 이미 종교에 깊이 관여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인간을 의지하려는 부분도 높은 것을 보아 현대 21 세기의 인간의 노력을 믿는 이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F609. 사람은 죽은 후 자신의 착한 행동에 따라 보상을 받아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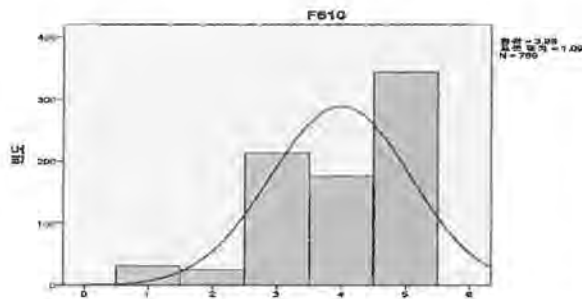
그래프 57 <F609>

F60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90	45.4	47.6	47.6
2	198	23.2	24.3	71.8
3	88	10.2	10.7	82.7
4	49	5.7	6.0	88.6
5	93	10.8	11.4	100.0
합계	819	95.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0	4.7		
합계	859	100.0		

도표 57 <F609>

이슬람은 행위 신앙이다. 답변의 결과는 이들의 신앙이 철저한 행위적인 신앙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인과응보의 관계를 믿어 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자 한다.

F610. 나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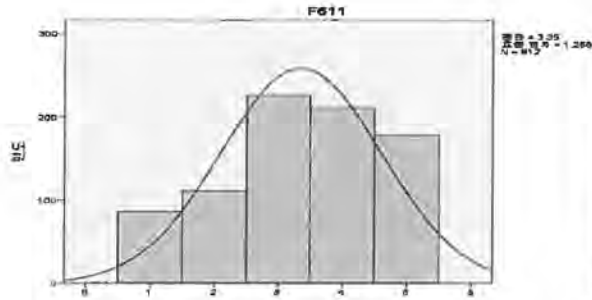
그래프 58 <F610>

F6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1	3.8	3.9	3.9
2	25	2.8	3.2	7.1
3	213	24.8	27.0	34.1
4	176	20.5	22.3	56.4
5	344	40.0	43.8	100.0
합계	789	91.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0	8.1		
합계	859	100.0		

도표 58 <F610>

이들의 천국에 관한 신앙관은 불확실하다. 이유는 행위 신앙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F611.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전쟁이나 기아 등 형벌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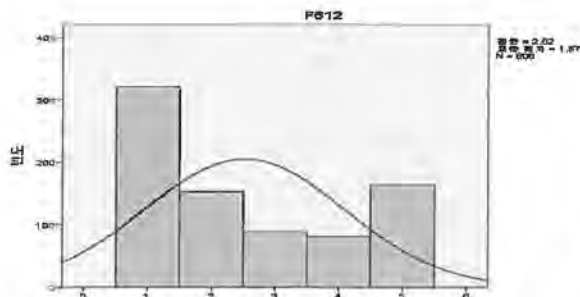
그래프 59 <F611>

		F6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8	10.0	10.6	10.6
	2	111	12.9	13.7	24.3
	3	226	26.3	27.8	52.1
	4	211	24.6	26.0	78.1
	5	178	20.7	21.9	100.0
	합계	812	94.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7	5.5		
	합계	859	100.0		

도표 59 <F611>

사람들의 원죄의식에 관한 부분이다. 기독교는 원죄를 인정하지만 이슬람은 원죄의식이 없다. 그들은 원죄와는 상관없이 인간에 의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F612. 초자연적인 힘을 믿기에 악마를 무서워하므로 신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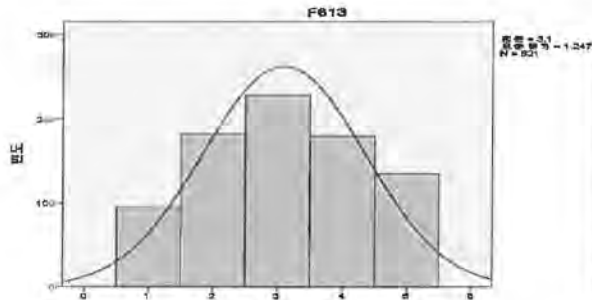
그래프 60 <F612>

		F6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21	37.4	39.7	39.7
	2	153	17.9	18.8	58.7
	3	99	10.4	11.0	69.7
	4	91	9.4	10.0	79.7
	5	184	19.1	20.3	100.0
	합계	808	94.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1	5.9		
	합계	859	100.0		

도표 60 <F612>

무슬림들은 신을 의지하는 종교심이 강하다. 선과 악을 믿고 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신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구하고자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F613.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희생 함으로써 갚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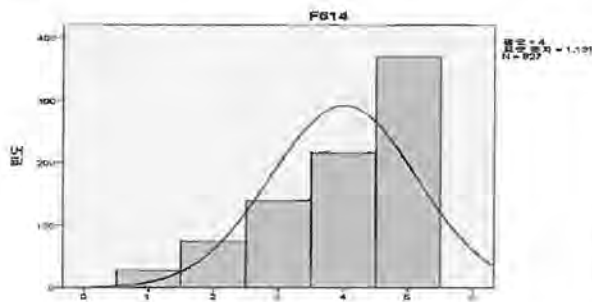
그래프 61 <F613>

		F6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5	11.1	11.8	11.8
	2	192	21.2	22.2	33.7
	3	229	26.7	27.9	61.6
	4	180	21.0	21.9	83.6
	5	135	15.7	16.4	100.0
합계		821	95.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8	4.4		
합계		859	100.0		

도표 61 <F613>

이 질문은 기독교의 중재의 이론을 질문한 것이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희생함으로 죄의 값을 지불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잘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재의 희생이 가능하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11.1% 있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F614. 다른 희생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함으로 실수나 죄를 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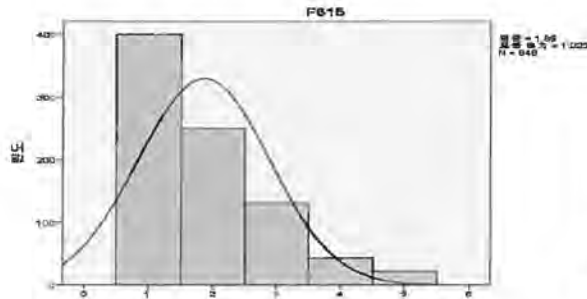
그래프 62 <F614>

		F6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8	3.3	3.4	3.4
	2	74	8.6	8.9	12.3
	3	139	16.2	18.8	29.1
	4	216	25.1	26.1	55.3
	5	370	43.1	44.7	100.0
합계		827	96.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2	3.7		
합계		859	100.0		

도표 62 <F614>

이슬람은 중재의 이론을 채택하지 않는다. 중재의 이론을 사람이 아닌 물질적인 보상으로 바꾸어 물어 보았다. 여기에서도 대부분은 죄가 감해질 수 있는 것이 희생이나 보상으로 대신해 죄를 감 할 수는 없다고 한다.

F615. 터키인들은 타 종교에 호의적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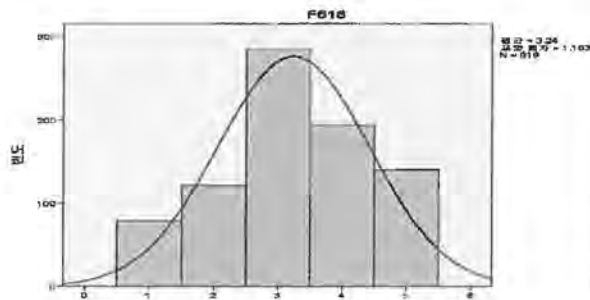
그래프 63 <F615>

		F6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00	46.8	47.3	47.3
	2	250	29.1	29.6	76.8
	3	131	15.3	15.5	92.3
	4	43	5.0	5.1	97.4
	5	22	2.6	2.6	100.0
합계		846	98.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1.5		
합계		859	100.0		

도표 63 <F615>

타 종교에 대한 호의도 질문인데 여기서도 답변의 결과는 타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굉장히 고무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그렇다”가 47.3%, “그렇다”가 29.6%이다. 여기에서 호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F616. 타종교인도 신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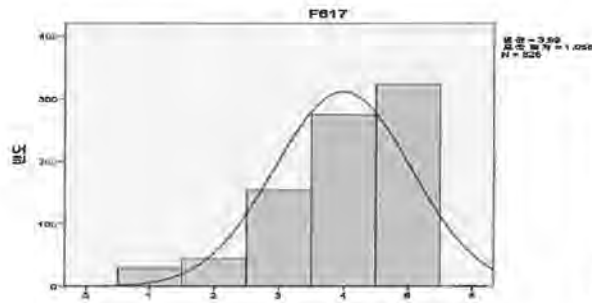
그래프 64 <F616>

		F6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9	9.2	9.6	9.6
	2	121	14.1	14.8	24.4
	3	285	33.2	34.8	59.2
	4	194	22.6	23.7	82.9
	5	140	16.3	17.1	100.0
합계		818	95.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0	4.7		
합계		859	100.0		

도표 64 <F616>

타종교의 선호도를 다른 측면에서 질문한 것이다. 자신의 종교인들보다 다른 종교인들이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다. 그래도 다른 종교를 정말 인정하는 사람들이 17.1%가 있어 이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F617. 나는 죄보다 선을 많이 행한 것 같다.



그래프 65 <F617>

		F6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호	1	30	3.5	3.6	3.6
	2	44	5.1	5.3	9.0
	3	154	17.9	18.6	27.6
	4	275	32.0	33.3	60.9
	5	323	37.6	39.1	100.0
합계		826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3	3.8		
합계		859	100.0		

도표 65 <F617>

9 번 질문에서는 착한 행위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다고 나왔고 10 번 질문에서는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서 여기에서는 자신들이 살면서 한 행위 중 선보다는 죄를 많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위의 17 가지 질문을 통한 민족과 종교에 대한 종합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관은 행위 신앙이기에 선한 행위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러한 상태로 죽는다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적은 불안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죄를 담당 해 줄 수 있는 중재의 신앙은 가지지 못하고 있다. 원죄 의식은 부족하나, 어려움이 임할 때는 신 앞에 불복하지 않을 수 없는 원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의 성공은 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성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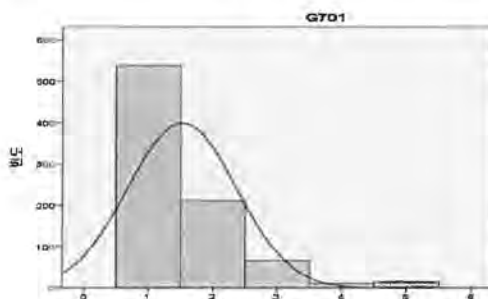
민족과 종교에서 터키인들은 종교보다는 민족을 더 생각하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과 가족 안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옛날 중앙아시아에서의 민속 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만 다른 종교가 들어올 경우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도 적다. 타종교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은 17.1%, 타종교도 성장할 수 있다는 답변한 사람은 14%로 다른 종교가 그들 속에서 함께 공유될 가능성이 아직도 적음을 볼 수 있다.

5.7. 의식구조

세계관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의식구조화 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터키인들의 의식구조를 알아보는 질문으로 명예에 관한 일, 사회 여론, 성격, 상거래, 남을 돕는 일,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순발력, 사회 변화에 따르는 행위에 대해 질문했다. 이를 위하여 28 개의 질문을 작성해서 본 설문 조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다.

G701. 터키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잘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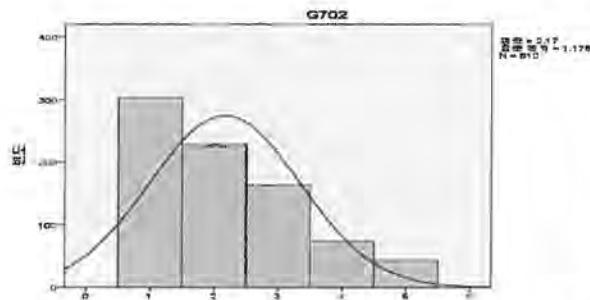
그래프 66 <G701>

		G70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37	62.5	63.9	63.9
	2	210	24.4	25.0	88.9
	3	88	7.7	7.9	96.8
	4	12	1.4	1.4	98.2
	5	15	1.7	1.8	100.0
합계		840	97.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	2.2		
합계		858	100.0		

도표 66 <G701>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잘 도와준다는 질문에서 63.9%가 “아주 그렇다” 라고 답변했다. 터키인의 친절함에 대해 위에서 언급함 같이 일단 도와 주려고 하며 몰라도 물어가면서 도와주려고 한다. 본인이 영어를 할 줄 모르면 영어를 할 줄 하는 사람을 찾아 도와주려고 한다.

G702. 터키인들은 큰일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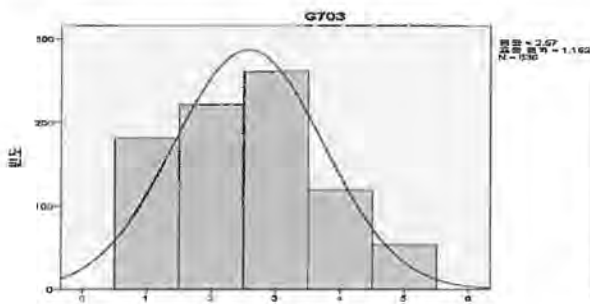
그래프 67 <G702>

G70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3	35.3	37.4	37.4
2	228	26.5	28.1	65.6
3	183	19.0	20.1	85.7
4	73	8.5	9.0	94.7
5	43	5.0	5.3	100.0
합계	810	94.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9	5.7		
합계	859	100.0		

도표 67 <G702>

터키인들은 도움을 주는 일에서는 망설이지 않는다.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 무조건 도와 주고 본다. 집에 머물면서 도와 준다는 물음에 답한 사람들 중 “아주 그렇다”가 37.4%이고 “그렇다”가 28.1%이다.

G703. 터키인들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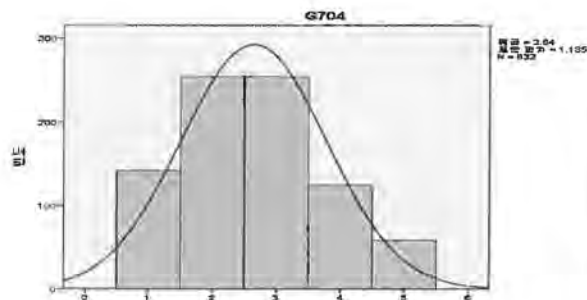
그래프 68 <G703>

G70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81	21.1	21.7	21.7
2	221	25.7	26.4	48.1
3	261	30.4	31.2	79.3
4	119	13.8	14.2	93.5
5	54	6.3	6.5	100.0
합계	836	97.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2.7		
합계	859	100.0		

도표 68 <G703>

중등은 명예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명예에 관한 질문을 해보았다.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답한 사람들 중 “아주 그렇다”가 21.1%이지만 “아주 그렇지 않다” 6.5%이다. 기울기는 명예를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G704. 터키인들은 가족의 일원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용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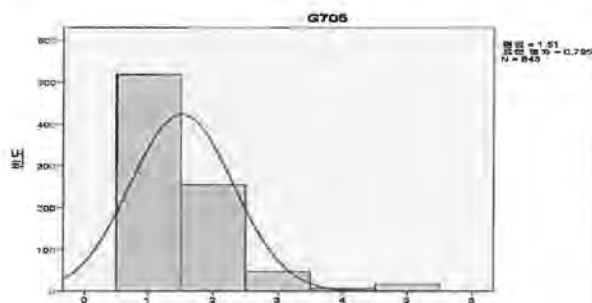
그래프 69 <G704>

G70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42	16.5	17.1	17.1
2	254	29.6	30.5	47.6
3	254	29.6	30.5	78.1
4	124	14.4	14.9	93.0
5	58	6.8	7.0	100.0
합계	832	96.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7	3.1		
합계	859	100.0		

도표 69 <G704>

가족의 명예에 관한 질문이다. “아주 그렇다”는 17.1%로 적지만 분포로 볼 때 가족의 일원으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어 용납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수 있다.

G705. 터키인들은 사회의 여론을 따라가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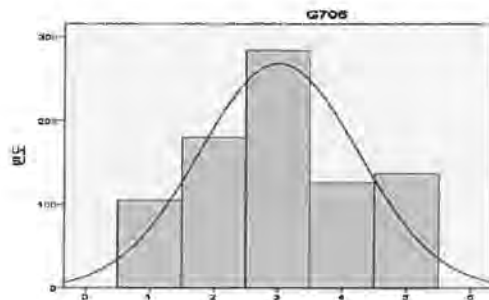
그래프 70 <G705>

G70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19	60.4	61.6	61.6
2	255	29.7	30.2	91.8
3	47	5.5	5.6	97.4
4	8	.7	.7	98.1
5	18	1.9	1.9	100.0
합계	843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	1.9		
합계	859	100.0		

도표 70 <G705>

터키인들은 사회 여론을 따라 가는 편이다라는 질문에서 “아주 그렇다”라는 답변이 61.6%이다. “그렇다”까지 합치면 91.8%이다. 터키인들에게는 사회 여론이 중요하다. 여론이 형성되면 진실을 생각하기 보다는 여론을 따라 간다. 정치인들은 이를 많이 이용하고 터키인들은 그냥 따라 간다.

G706. 터키인들은 경우에 따라 거짓말도 한다.



그래프 71 <G706>

G70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05	12.2	12.6	12.6
2	180	21.0	21.6	34.3
3	284	33.1	34.1	68.4
4	126	14.7	15.1	83.5
5	137	15.9	16.5	100.0
합계	832	96.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7	3.1		
합계	8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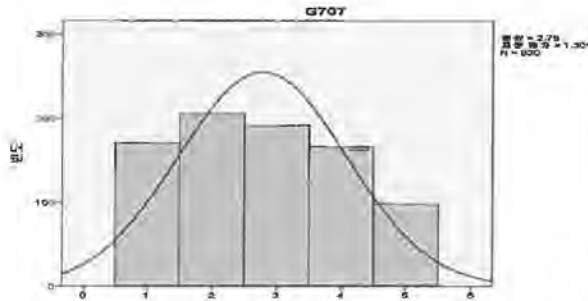
도표 71 <G706>

이슬람에서는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한다.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타끼야(Taqiya)라고 한다.⁸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한다. 위의 질문에서 “중간이다”가 34.1%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 둘을 합하면 34.2%이다. “아주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둘을 합하면 31.6%로 결국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편이 비교적 빈도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⁸ <http://100.naver.com/100.nhn?docid=830306> (2012.01.10)

시아파는 타끼야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코란을 재해석 하였다. 특히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하나 강요된 것은 제외 될 수 있으니' 라는 내용의 코란 16장 106절 구문을 인용하여 타끼야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G707. 터키인들은 다른 사람이나 가족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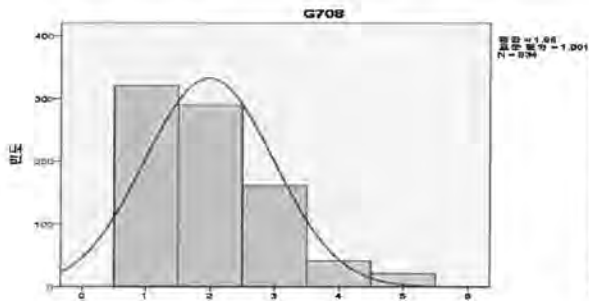
그래프 72 <G707>

G70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170	19.8	20.5
	2	205	23.9	24.7
	3	191	22.2	23.0
	4	166	19.3	20.0
	5	98	11.4	11.8
	합계	830	96.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9	3.4	
	합계	859	100.0	

도표 72 <G707>

다른 사람이나 가족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평형을 이루었지만 “아주 그렇다”는 20.5%이며 “아주 그렇지 않다”는 11.8%이다. 역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다는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G708. 터키인들은 옳은 일도 생각해보고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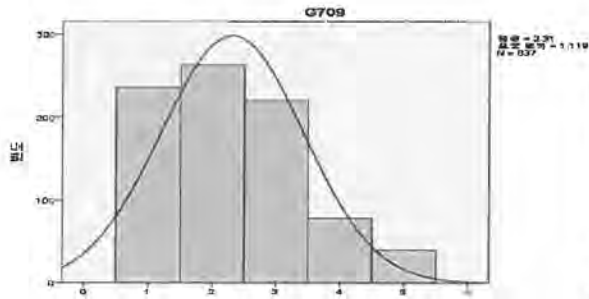
그래프 73 <G708>

G70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	321	37.4	38.5
	2	290	33.8	34.8
	3	161	18.7	19.3
	4	41	4.8	4.9
	5	21	2.4	2.5
	합계	834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5	2.9	
	합계	859	100.0	

도표 73 <G708>

터키 사람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즉시 도움을 주는 듯하다.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넣어서 질문을 해보았다. 신중한 표현인 옳은 일도 생각해보고 한다는 표현에서 계획된 옳은 일은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 의 답변이 총 73.3%나 된다.

G709. 터키인들은 화를 잘 내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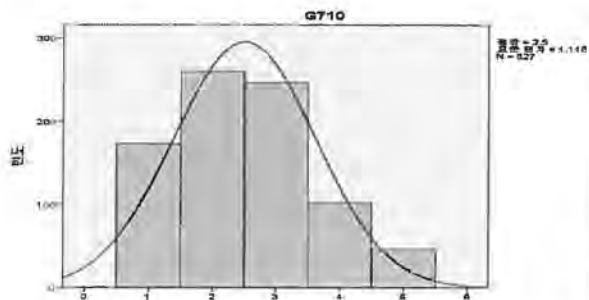
그래프 74 <G709>

G709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236	27.5	28.2
	2	263	30.6	58.8
	3	220	25.6	85.9
	4	78	9.1	95.2
	5	40	4.7	100.0
	합계	837	97.4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2.6	
	합계	859	100.0	

도표 74 <G709>

아랍인들은 화를 잘 내는 편이다. 그래서 터키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터키인들은 화를 잘 낸다는 질문에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 질문의 답변은 총 59.6%를 이룬다. 터키인들도 목소리가 크고 화를 잘 내는 편이다.

G710. 터키인들은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을 보면 욕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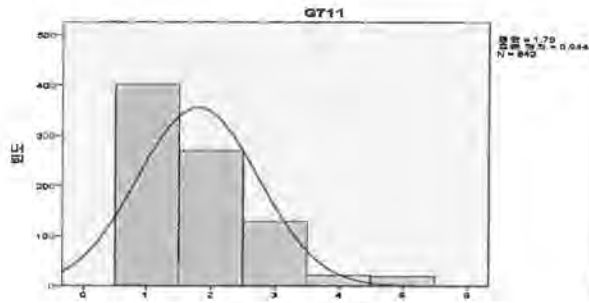
그래프 75 <G710>

G710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3	20.1	20.9
	2	280	30.3	52.4
	3	246	28.6	82.1
	4	102	11.9	94.4
	5	46	5.4	100.0
	합계	827	96.3	
결측	시스템 결측값	32	3.7	
	합계	859	100.0	

도표 75 <G710>

터키인들은 명예를 더럽힌 사람을 보면 욕을 한다는 질문에서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해 51.3%가 나왔다.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도 명예를 더럽힌 사람들을 보면 욕을 한다.

G711. 터키인들은 배우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잘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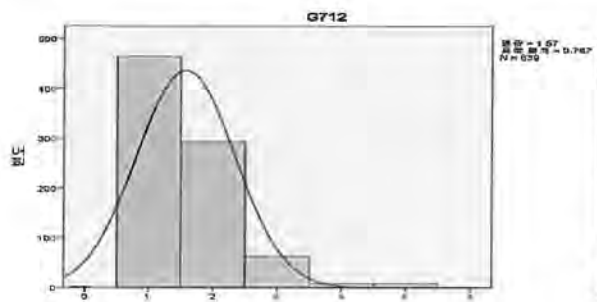
그래프 76 <G711>

G7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02	48.8	47.7	47.7
2	271	31.5	32.2	79.9
3	128	15.0	15.3	95.2
4	21	2.4	2.5	97.7
5	19	2.2	2.3	100.0
합계	842	99.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2.0		
합계	859	100.0		

도표 76 <G711>

터키인들은 아랍의 문화도 가지고 있고, 유럽의 문화도 가지고 있다. 배우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보다 잘한다. 터키인들은 배우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질문에 “아주 그렇다”가 47.7%, “그렇다”가 32.2% 의 빈도수를 가지고 있다.

G712. 터키인들은 존경 받는 것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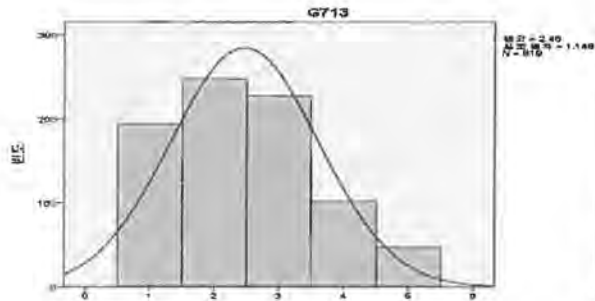
그래프 77 <G712>

G7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65	54.1	55.4	55.4
2	293	34.1	34.9	90.3
3	83	7.3	7.5	97.9
4	9	1.0	1.1	98.9
5	9	1.0	1.1	100.0
합계	839	97.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0	2.3		
합계	859	100.0		

도표 77 <G712>

존경 받는 것을 세상에서 누가 싫어할 사람은 없다. 여기에서의 질문은 명예에 관한 질문이다. 자신에 대한 존경을 좋아하는 빈도수는 “아주 그렇다”가 55.4% 된다. 터키인들은 자신이 존경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G713. 터키인들은 전통이 바뀌어도 좋은 것이라면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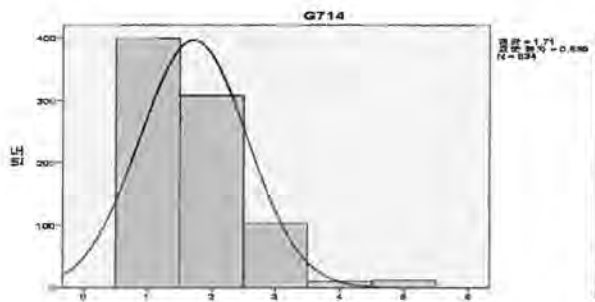
그래프 78 <G713>

G71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94	22.6	23.7	23.7
2	246	28.9	30.3	54.0
3	228	26.5	27.8	81.8
4	102	11.9	12.5	94.3
5	47	5.5	5.7	100.0
합계	819	95.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0	4.7		
합계	859	100.0		

도표 78 <G713>

D412 에서 옛날 전통이라도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 좋다는 질문을 다른 방향에서 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터기인들은 전통이 바뀌어도 좋은 것은 좋아한다는 빈도수가 “아주 그렇다”가 23.7%, “그렇다”가 30.3%로 전통이 바뀌어도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편에 서있다.

G714. 터키인들은 남이 주는 것은 거절 없이 바로 받는다.



그래프 79 <G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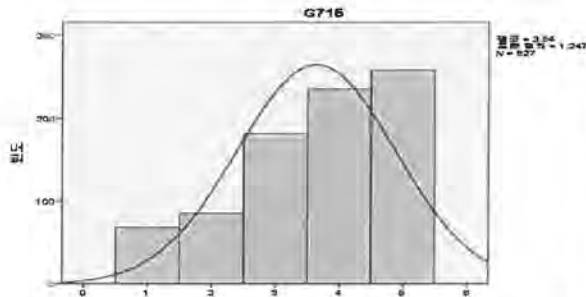
G71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00	46.6	48.0	48.0
2	308	35.9	36.9	84.9
3	103	12.0	12.4	97.2
4	11	1.3	1.3	98.6
5	12	1.4	1.4	100.0
합계	834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5	2.9		
합계	859	100.0		

도표 79 <G714>

터키인들은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번 질문에서 주는 것은 거절 없이 바로 받는 다고 응답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몇 번은 거절한다. 이번 응답에서 남이 주는 것은 거절 없이 받는 다는 빈도수가 “아주 그렇다”가 68%, “그렇다”가 36.9% 인 역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체면 문화를 다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G715. 터키인들은 나보다 경제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면 위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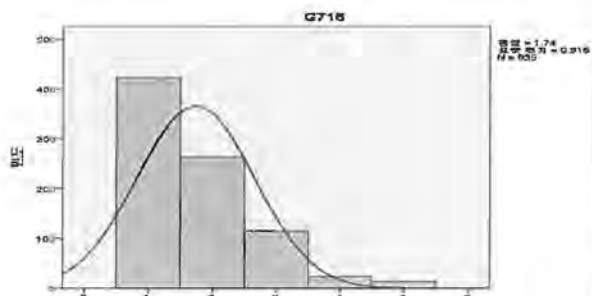
그래프 80 <G715>

		G71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8	7.9	8.2	8.2
	2	85	9.8	10.3	18.5
	3	181	21.1	21.9	40.4
	4	235	27.4	28.4	68.8
	5	258	30.0	31.2	100.0
합계		627	96.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2	3.7		
합계		659	100.0		

도표 80 <G715>

본 질문의 답변 중 “매우 그렇지 않다”가 31.2%, “그렇지 않다”가 28.4% 이다. 경제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위축이 되지 않는다는 빈도수가 높다.

G716. 터키인들은 물건을 살 때 반드시 흥정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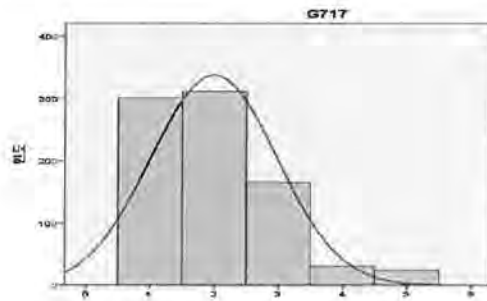
그래프 81 <G716>

		G71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23	49.2	50.4	50.4
	2	263	30.6	31.3	81.8
	3	115	13.4	13.7	95.5
	4	24	2.8	2.9	98.3
	5	14	1.6	1.7	100.0
합계		839	97.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0	2.3		
합계		859	100.0		

도표 81 <G716>

터키인들은 흥정을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매우 그렇다”가 50.4%, “그렇다”가 31.3% 이다. 실제로 그들은 물을 살 때 흥정을 자주 한다.

G717. 터키인들은 남이 어떻게 볼지 신경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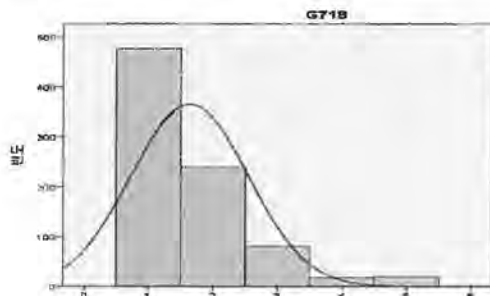
그래프 82 <G717>

G7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1	35.0	36.2	36.2
2	311	38.2	37.4	73.6
3	165	19.2	19.9	93.5
4	30	3.5	3.6	97.1
5	24	2.8	2.9	100.0
합계	831	98.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8	3.3		
합계	859	100.0		

도표 82 <G717>

터키 사람들은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신경을 쓰게 된다. 질문에 답변 중 “매우 그렇다”가 36.2%, “그렇다”가 37.4%였다.

G718. 터키인들은 좋은 일은 신의 이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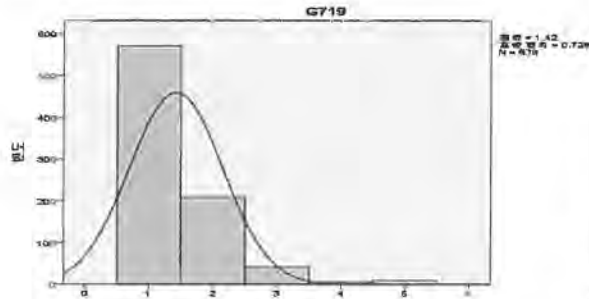
그래프 83 <G718>

G71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77	55.5	57.2	57.2
2	239	27.8	28.7	85.9
3	81	9.4	9.7	95.6
4	18	2.1	2.2	97.7
5	18	2.2	2.3	100.0
합계	834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5	2.9		
합계	859	100.0		

도표 83 <G718>

이슬람은 터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랍인들은 모든 좋은 일을 할 때 알라의 이름으로 한다. 질문의 답변 중 “매우 그렇다”가 57.2%, “그렇다”가 28.7%로 터키인의 경우도 좋은 일을 할 때 알라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야 죽은 후에 심판 받을 때에 선한 일이 쌓여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G719. 터키들은 본인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손님은 잘 대접한다.



그래프 84 <G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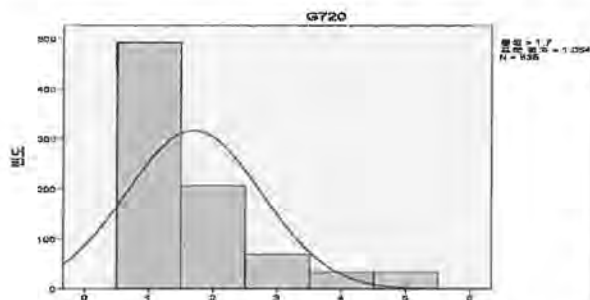
G7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572	68.6	68.2	68.2
2	209	24.3	24.9	93.1
3	42	4.9	6.0	98.1
4	6	.7	.7	98.8
5	10	1.2	1.2	100.0
합계	839	97.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0	2.3		
합계	859	100.0		

도표 84 <G719>

터키인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한다. 질문의 답변 중 “매우 그렇다”

가 68.2%, “그렇다”가 24.9%로 그들은 환경과 상관 없이 손님대접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터키인들 중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손님을 초대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G720. 터키인들은 인색한 부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프 85 <G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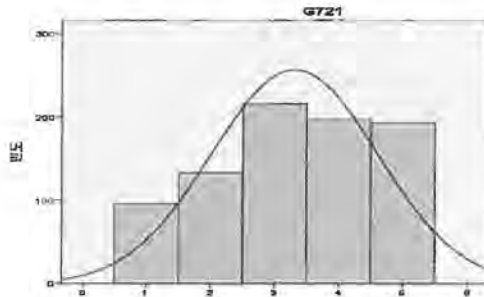
G72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92	57.3	58.9	58.9
2	206	24.0	24.7	83.6
3	69	8.0	8.3	91.9
4	34	4.0	4.1	95.9
5	34	4.0	4.1	100.0
합계	835	9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4	2.8		
합계	859	100.0		

도표 85 <G720>

터키인들은 인색한 부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

다”가 58.9%, “그렇다”가 24.7%로 인색한 부자는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721. 터키인들은 존경 받는 일이라면 돈을 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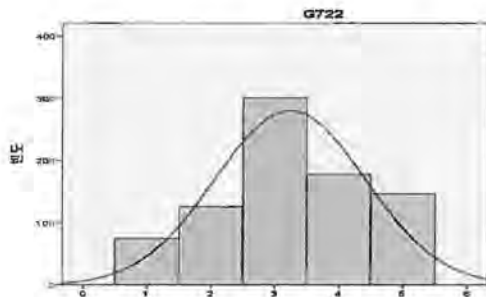
그래프 86 <G721>

G721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6	11.2	11.5
	2	133	15.5	27.4
	3	216	25.1	53.3
	4	197	22.9	75.9
	5	193	22.5	100.0
	합계	835	9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4	2.8	
	합계	859	100.0	

도표 86 <G721>

아랍인들은 돈으로 명예를 사곤 했다. 본 질문은 명예를 돈으로 살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빈도수는 거의 평형이지만 “매우 그렇지 않다”가 23.1%, “그렇다”가 23.6%이다. 돈으로 명예를 사지 않는다는 빈도수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이 고민하는 형이다.

G722. 터키인들은 색깔 중에 원색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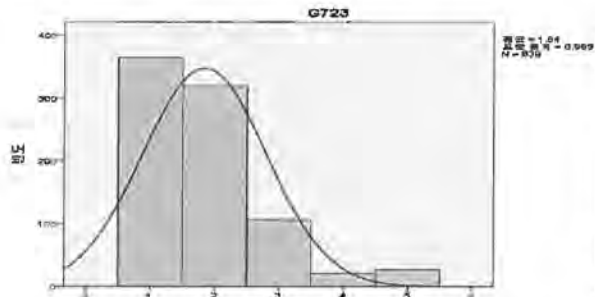
그래프 87 <G722>

G722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5	8.7	9.1
	2	126	14.7	24.3
	3	301	35.0	60.7
	4	178	20.7	82.2
	5	147	17.1	100.0
	합계	827	96.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2	3.7	
	합계	859	100.0	

도표 87 <G722>

아랍인들은 원색을 좋아한다. 그들은 중간 색이 없다. 항상 검은색과 회색으로 세계의 길모습만 본다. 본 질문에서 “중간이다” 라고 답한 터키인들이 36.4% 이다. 그러나 “매우 그렇지 않다”가 17.8%, “그렇다”가 21.5% 라고 답한 터키인들이 원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약간 기울었다.

G723. 터키인들은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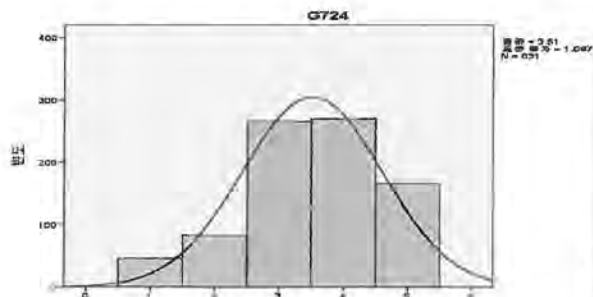
그래프 88 <G723>

G72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65	42.6	43.5	43.5
2	319	37.1	38.0	81.5
3	107	12.5	12.8	94.3
4	21	2.4	2.5	96.8
5	27	3.1	3.2	100.0
합계	839	97.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0	2.3		
합계	859	100.0		

도표 88 <G723>

본 질문은 진리와 관련된 질문이다. 진리도 어떤 환경에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매우 그렇다”가 43.5%, “그렇다”가 38%로 터키인들은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함을 볼 수 있다.

G724. 터키인들은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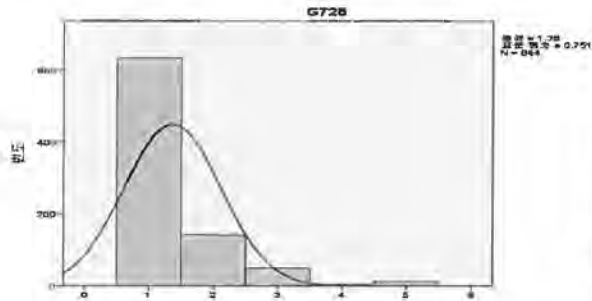
그래프 89 <G724>

G72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6	5.4	5.5	5.5
2	83	9.7	10.0	15.5
3	266	31.0	32.0	47.5
4	270	31.4	32.5	80.0
5	166	19.3	20.0	100.0
합계	831	96.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8	3.3		
합계	859	100.0		

도표 89 <G724>

아랍인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터키인들에게 질문을 해보았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매우 그렇지 않다”가 20%, “그렇지 않다”가 32.5%로 터키인들도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G725. 터키인들은 옛날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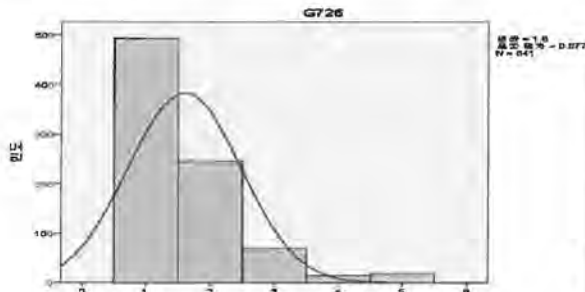
그래프 90 <G725>

G725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635	73.9	75.2
	2	142	16.5	92.1
	3	50	5.8	98.0
	4	4	.5	98.5
	5	13	1.5	100.0
	합계	844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	1.7	
	합계	859	100.0	

도표 90 <G725>

본 질문은 G724 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사회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옛날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매우 그렇다”가 75.2% 로 터키인들은 옛날 일을 자랑하면서 산다.

G726. 터키인들은 모험적이고 개척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프 91 <G726>

G726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93	57.4	58.6
	2	248	28.6	87.9
	3	69	8.0	96.1
	4	15	1.7	97.9
	5	16	2.1	100.0
	합계	841	97.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	2.1	
	합계	859	100.0	

도표 91 <G726>

본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58.6%, “그렇다”가 29.3% 로 터키인들은 모험적이고 개척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으로 이동을 하면서 움직인 민족들이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동한 민족이었기에 모험적이고 개척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볼 수도 있다.

G727. 터키인들은 외부인이 자신의 마을에 오는 것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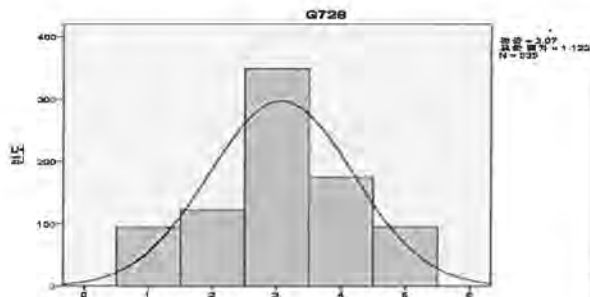
그래프 92 <G727>

G7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46	51.9	53.0	53.0
2	252	29.3	30.0	83.0
3	106	12.3	12.6	95.6
4	19	2.2	2.3	97.9
5	18	2.1	2.1	100.0
합계	841	87.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	2.1		
합계	859	100.0		

도표 92 <G727>

터키인들은 외부인이 자신의 마을에 오는 것을 좋아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53%, “그렇다”가 30% 이다. 터키인들은 여행자들을 좋아하며 가능하면 그들을 도우려고 한다.

G728. 터키인들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프 93 <G728>

G72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94	10.9	11.3	11.3
2	122	14.2	14.6	25.9
3	349	40.6	41.8	67.7
4	175	20.4	21.0	88.6
5	95	11.1	11.4	100.0
합계	835	8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4	2.8		
합계	859	100.0		

도표 93 <G728>

터키인들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질문에 “중간이다”가 41.8% 이다. 물론 “매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각각 11.3%, 11.4%이다. “중간이다”가 많지만 10 명중 1, 2 명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터키인들은 실제로 외국인을 좋아하고 그들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터키인들은 좋은 일은 신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내 환경이 어려워
도 손님은 잘 대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잘 도와 준다. 끝난 일일 때에
는 집에 머물면서 도와 준다. 좋은 일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할려 주
기를 원한다. 외부인이 마을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손님을 좋아한다. 외국인

다.
터키인들은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옛날 일을
자랑하고 좋아한다. 사회의 변화는 싫어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모험적이고 개척
적인 것을 좋아한다. 좋은 것이 있다면 전율이 바뀌어도 좋아한다. 아랍인은
원색을 좋아하지만 터키인들은 원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시아권 사람들에
비해 배우자에게 사랑표현을 잘하는 편이다.

않지만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을 쓴다.
터키인들은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도 한다. 이슬람은 이것을 하얀 거
짓말이라고 표현한다. 좋은 일도 생각해보고 하며 한편으로는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남이 주는 것은 거절 없이 받는 편이고 인색한 부자는 좋아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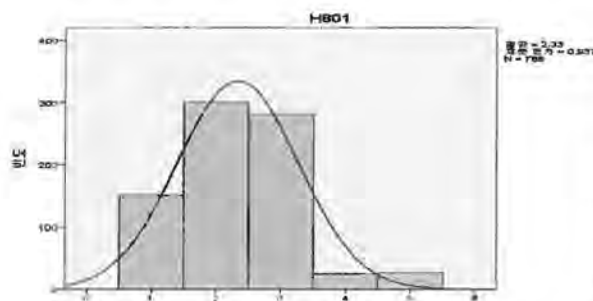
위의 28 개의 질문을 통한 응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터키인
들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행한다. 특별히 가족의 원인이 명예
를 훼손하면 용납하지 않는다.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에게는 욕을 한다. 터키
인들은 사회의 여론을 따라간다. 가족보다는 자신이 더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존경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보다 경제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아도 위축되지
않지만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을 쓴다.

들도 좋아하며 외국인과의 결혼을 선호한다는 응답이다.

5.8. 한국과 터키

한국과 터키와의 관계는 고대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현대에 와서는 1950 년 한국전쟁 때 한국에 도움을 줌으로 정치적으로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러나 국민들은 서로를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다. 이번 7 개의 질문들은 터키와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한 질문들이다.

H801. 한국은 분단이라는 악조건에서도 강인한 민족으로써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나라이다.



그래프 94 <H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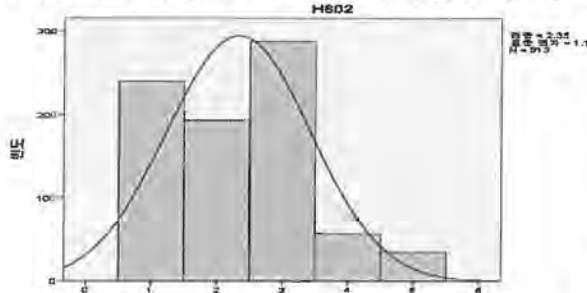
H80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61	17.8	19.2	19.2
2	301	35.0	38.3	57.5
3	282	32.8	35.9	93.4
4	25	2.9	3.2	96.6
5	27	3.1	3.4	100.0
합계	788	91.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3	8.5		
합계	868	100.0		

도표 94 <H801>

한국은 한국전쟁 후 분단이라는 악조건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다. 이에 대한 터키인들의 반응을 물어본 것이다. “아주 그렇다”가 19.2% 이지만 “그렇다”가 38.3%, “중간이다”가 35.9%인 반면 “그렇지 않다”와 “아주 그렇지 않다”는 총 6.6%로 전무하다. 터키인들은 한국을 어

려운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앞으로 기대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H802. 한국인들 보다는 터키인들이 더 친절하고 겸손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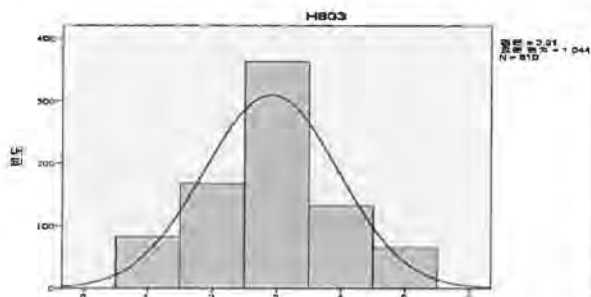
그래프 95 <H802>

H802				
유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240	27.9	29.5	29.5
2	193	22.5	23.7	53.3
3	268	33.5	35.4	88.7
4	57	6.6	7.0	95.7
5	35	4.1	4.3	100.0
합계	813	94.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6	5.4	
합계	859	100.0		

도표 95 <H802>

터키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상대적인 친절 평가를 질문 해보았다. 터키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친절하다고 말하며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H803.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래프 96 <H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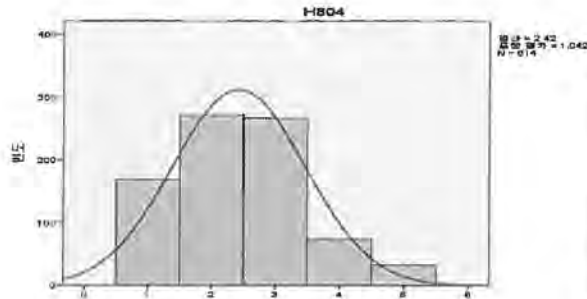
H803				
유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	82	9.5	10.1	10.1
2	168	19.8	20.7	30.9
3	383	42.3	44.8	75.7
4	132	15.4	16.3	92.0
5	65	7.6	8.0	100.0
합계	810	94.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9	5.7	
합계	859	100.0		

도표 96 <H803>

한국과의 교류 문제에 대한 응답은 “중간이다”가 44.8%이다. 한국과의 교류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 한국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도 교류를

활발하게하기를 원하고 있다.

H804. 1950년 한국전쟁 때 터키인들이 한국을 도와주어 더 친근한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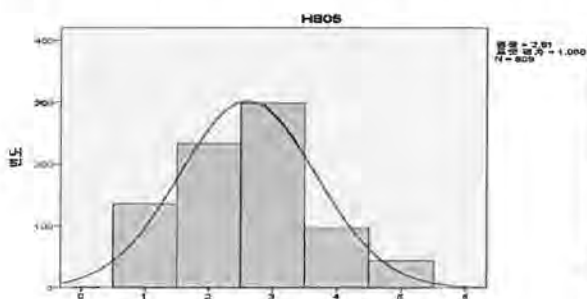
그래프 97 <H804>

		H80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69	19.7	20.8	20.8
	2	271	31.5	33.3	54.1
	3	267	31.1	32.8	86.9
	4	74	8.6	8.1	95.9
	5	33	3.8	4.1	100.0
합계		814	94.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5	5.2		
합계		859	100.0		

도표 97 <H804>

역사적으로 터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있었을 때, 한국 하고는 고구려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대에 와서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더 친근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H805. 한국인을 만나면 이웃과 같이 느껴진다.



그래프 98 <H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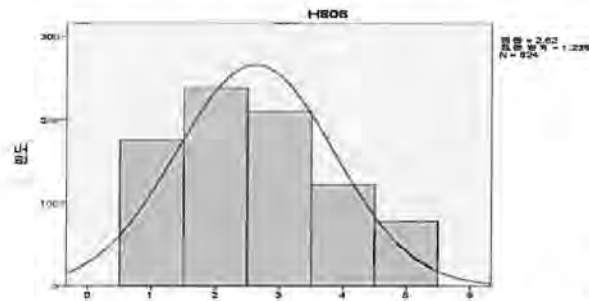
		H80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36	15.7	16.7	16.7
	2	234	27.2	28.9	45.6
	3	299	34.8	37.0	82.6
	4	97	11.3	12.0	94.6
	5	44	5.1	5.4	100.0
합계		809	94.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0	5.8		
합계		859	100.0		

도표 98 <H805>

터키인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이웃과 같이 느낀다는 질문에 답한 빈도수를 보면 “아주 그렇다”가 16.7%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

가 28.9%, “중간이다”가 37%로 제일 빈도수가 높으며 “중간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터키인들은 한인들을 이웃처럼 생각한다.

H806.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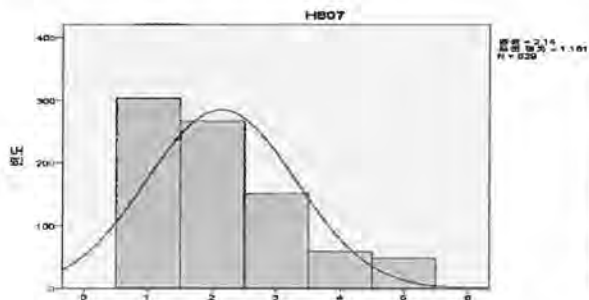
그래프 99 <H806>

H80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178	20.5	21.4	21.4
2	238	27.7	28.9	50.2
3	210	24.4	25.5	75.7
4	122	14.2	14.8	90.5
5	78	9.1	9.5	100.0
합계	824	95.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5	4.1		
합계	859	100.0		

도표 99 <H806>

터키인들에게 한국어의 관심도를 질문하였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어를 배우기 원한다는 질문에서 “아주 그렇다”가 21.4%, “그렇다”가 28.9%로 나왔다. 터키인들은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H807.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프 100 <H807>

H80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303	35.3	36.6	36.6
2	267	31.1	32.2	68.8
3	161	17.8	18.2	87.0
4	59	6.9	7.1	94.1
5	49	5.7	5.9	100.0
합계	829	96.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0	3.5		
합계	859	100.0		

도표 100 <H807>

터키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지 질문을 해보았다. 그들의 응답 중 “매우 그렇다”가 36.6%, “그렇다”가 32.2%이다. 터

키인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

위의 7 개 질문을 통하여 한국과 터키 관계의 응답을 정리하였다. 터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국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하여는 한국이 분단의 악 조건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앞으로 기대가 되는 나라로 말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 교류를 원하고 있다. 한국과 더 가까워진 것은 한국전쟁으로 터키 사람들이 한국에 파병되어 도움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배우기를 원하고 한국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이웃처럼 느낀다고 했다.

6. 연구 방법론의 평가와 결론

6.1. 연구 방법론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평가

연구자가 타국에서 현지인들의 정신세계를 조사연구를 한다는 것이 자국의 보안문제도 있어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한 대학교를 선정 했는데 선정 한 대학교에서 도청과 관할 경찰청의 허가를 원하였다. 연구자가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와, 관할 도청과 경찰청의 허가를 받고 설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며 극히 정상적이라고 평가한다.

설문조사를 연구자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허가를 받고 학교의 학생 담당 교수와 단과대학 학장, 강의 담당 교수, 매점의 관계자, 학교 경비 모든 직원들이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859명을 설문조사 할 수 있었다.

설문을 하는 동안 분위기도 좋았다. 학생이 설문에 응답을 하는 동안 학과 담당 교수의 요청으로 강의 시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교제를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한국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했고, 답을 하면서 할 수 있었다. 매점에서도 학생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어떤 교수는 직접 설문지를 돌리면서 학생들에게 터키에 관한 자존심이니 진지하게 응답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터키인들이 한국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인 평가와 관계가 되는 것이지만 문항이 100 문항이나 되어 각

정을 했다. 그런데 오히려 설문지의 문항이 분류 되어 있고 자세하여 많은 문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 조사의 내용이 진지하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 모두 진지하게 신실한 답을 해주는 것을 보았다.

부정적인 평가

보통 설문은 한번에 15 에서 20 문항을 기준으로 해야 응답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번 연구 상황은 특수 상황이라 8 가지의 주제를 8 번에 걸쳐서 할 수 없었다. 특히 종교와 전통에 관한 문항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100 문항을 한번에 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100 문항을 모두 응답 하기 위한 긴 시간을 갖는 점이 어려웠다. 다행히 다행히 응답자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기쁘게 응답함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 연구자도 어떤 설문이든지 성실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설문의 내용이 지식인이 아니면 답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있어 대학생 수준이어야 응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어려움을 주었다. 본 설문에서는 종교의 범위를 넘어 신앙에 관한 문항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어려웠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설문을 신앙인이 아니면 응답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종교적인 문항 중 대상이 종교심이 강한 터키인들이었기에 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

“터키인들의 세계관 연구를 위한 설문지” 아래 부제로 “다음 여러 가

지 질문은 한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게 될 터키의 문화와 세계관 연구를 위한 설문입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한국과 관계된 질문이 적다는 터키인들의 평이 있었다. 터키와 한국에 관련된 질문이 적은 것은 전체적인 문항 수가 많아 그 부분을 많게 할 수 없었음을 밝혀두고 싶다. 제한된 기간동안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음을 밝혀둔다.

6.2. 본 연구의 가치와 현실적 기여도

본 연구의 가치는 터키를 비롯한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세계관들을 분석하고 제공하였다. 현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자들이 수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에 있어서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7,300 만 인구 국가의 81 개의 도 중에서 한 도를 선정하고, 도의 한 도시를 선정하여 제한하였다. 선택한 대학의 81 개도에서 모인 6,224 명의 학생들 가운데 859 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신뢰도 95%로 플러스마이너스 3.5%오차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플러스마이너스 3.5%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 결과를 통하여 중동과 터키를 향한 문화와 종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문헌적인 연구와 차이가 있는 내용도 있음을 밝혀둔다. 이것은 터키인들의 변화이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기를 열망하는 표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현실 환경의 기여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중

지리적 환경에 대한 터키인들의 의식구조 안에 1,000 년을 아람파 북 아프리카와 유럽 원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람과 동원시 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국경지역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를 것이 그들에게는 장점이다. 그들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주변국가들과도 같은 만큼 그렇게 신하게 느끼지 않고 주변국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중앙아시아에서의 전통을 다 시 찾고 중앙아시아국들과 함께 교류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아시아 문화

6.3. 본 연구가 제시한 세계관을 사용하기 위한 제안

다.

물이어야 한다. 정의와 사람과 겸손이 서로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이 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의사소 수용자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물론 전달자는 존익을 계산하겠지만 전달하여야 메시지를 변질되지 않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전달자는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내용이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 하여 메시지를 변질되지 않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전달자는 문히 이해하는 것이다. 전달자의 입장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의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송 기인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중동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할 수 있을 통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참 활용만 한다면 터 코적인 측면에서 중동권의 사람들과 터키인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의사소

와 유럽 문화를 함께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관광과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하여 경제를 더 발전 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투자 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터키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원하는 의사소통을 하려면 전달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가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외교와 국제문화에 대한 터키인들의 의식구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은 원하지 않고 있다. 터키 젊은이들은 현대 열강들이 왜 열강이 되었는지 배우기를 원한다. 외국에 대한 열망은 강하며, 외국어를 배우기 원한다.

터키 젊은이들에게 현대 열강이 어떻게 열강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열강 나라의 언어에 대한 교육으로 다가서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문제에 대한 터키인들의 의식구조 안에는 외국과 문화 교류를 하면 종교도 유입될텐데 종교는 경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종교가 경제와는 관계가 없고 비록 종교와 문화가 달라도 경제 대국과 외교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서구의 종교는 기독교가 주를 이루고, 현재 터키의 종교는 이슬람이 주를 이루어 서구와 터키의 종교는 다르지만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 산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터키인들은 가족의 연대감을 자랑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들에게 표에 대한 사상과 성과 윤리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 필요가 있다.

지 전략자는 세물지만 좋은 전물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화제로 의사소통을 다. 이것은 터키인들과 교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메시 있기도 하다. 또한 좋은 전물이 아니라면 버리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 그러나 요즘은 많은 병원을 건축하고 최신 장비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를 판하고 있다. 병이 있을 때는 병원보다 전문적인 민간 요법을 더 선호한다. 하고 말한다. 이것은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 적 미용하다.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¹과 긴 옷은 종교인에게만 적용이 타당 아들을 위하여 부인을 둘째 두려고 하지는 않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 이 무너지고 있다. 주거 양식의 개조는 원하지 않지만 해가죽을 원하고 있다. 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효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성, 윤리 도덕 터키인들의 가족과 전통에 대한 의식구조는 가족의 연대감을 자랑한

렇다면 터키에는 이슬람이 아닌 종교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요하다. 경제와 종교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외교관계로 경제 성장이 이 제 성장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투자에 관해 세심한 확인이 필 터키인들은 외교관계와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경

그들의 자선감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배움 점이 무엇인가를 더 찾아야 한다. 그들은 권위주의적이다. 그들이 변혁을 좋아하지 않음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전향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상관 없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터키인들에게 무엇이 되고,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내용으로 대화

의적인 사람이다.

한자가 빈한자를, 화벌이 있는 사람들이 화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개 부끄러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참사는 사람이 못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증성을 했던 사람도 상대가 잘못을 하면 충성하지 특이 없으면 쉽게 나누어진다고 한다. 친구가 믿어주지 않으면 먼저 단절할 수도 있는 간섭을 찾아하며 평정히 개인적이다. 그들은 동업을 하다가도 자신에게 이익을 소유한 소수 민족의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들은 지극히 타인도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다른 종교의 후예들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인을 좋아하고 매우 친절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셀주크의 오스만 제민족과 국가 사회에 대한 터키인들의 의식구조 안에서 그들은 외국

를 전향하면 좋을 것이다.

좋은 전통이 아니라면 버리고 새로운 것도 전통이 될 수 있음을 그들은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필요한 것

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변질되지 않게 전달해야 한다. 그 메시지에는 터키인들이 인정하는 권위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터키인들의 민족과 종교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종교관은 행위신앙이지만 선한 행위의 부족으로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적은 불안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죄를 담당할 중재의 신앙은 가지지 못하고 있다. 원죄 의식은 부족하나, 어려움이 임할 때는 신 앞에 불복하지 않을 수 없는 원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성공은 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성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과 종교 중 터키인들은 종교보다는 민족을 더 생각하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과 가족 인원 중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인정하며,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옛날 중앙아시아에서의 민족 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만 다른 종교가 들어올 경우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신뢰도는 아직도 적다. 타종교의 대한 신뢰도는 17.1%, 타종교도 성장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로 타종교도 그들 속에서 함께 공유될 수 있음이 아직도 적다고 볼 수 있다.

터키인들의 의식구조 안에서 그들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가족이 명예를 훼손하면 용납하지 않

는다.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에게는 욕을 한다. 터키인들은 사회의 여론을 따라간다. 가족보다는 자신이 더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존경받는 것도 좋아한다. 나보다 경제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아도 위축되지 않지만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존경 받는 일이더라도 돈을 줄 수는 없다는 응답이 23.1%이다. 터키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한다. 이슬람은 이런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한다. 그들은 옳은 일도 생각해보고는 한편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남이 주는 것은 거절 없이 받으며 인색한 부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터키인들은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옛날 일을 자랑하고 좋아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모험적이고 개척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랍인들은 원색을 좋아하지만 터키인들은 원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통이 바뀌어도 좋은 것은 좋아한다. 다른 아시아권 사람들에 비해 배우자에게 사랑표현을 잘하는 편이다. 터키인들은 좋은 일은 신의 이름으로 한다. 그들은 본인 환경이 어려워도 손님을 잘 대접한다. 또한 터키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잘 도와 준다. 급한 일에는 집에 함께 머물면서까지 도와 준다. 좋은 일을 발견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기를 원한다. 외부인이 마을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손님을 좋아하며 외국인들도 좋아한다.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들과 같이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터키 관계에 대하여 터키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친절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하여는 한국이 분단의 악 조건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앞으로 기대가 되는 나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와의 교류도 원하고 있다. 한국과 더 가까워진 것은 한국전쟁 때 터키인들이 한국에 파병되어 도움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배우기를 원하고 한국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이웃처럼 느낀다고 했다.

한국인들에게 친절한 터키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쟁의 참전을 이야기 하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메시지를 전달 할 수도 있다.

6.4. 계속적인 연구 내용과 미래의 연구방향

본 연구자는 위의 연구를 통해 터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의식구조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으며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이어서 연결되는 터키 세계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는 지금 하나이다. 북미와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은 자유 외교 통상을 통하여 앞으로 자유롭게 경제와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은 경제를 위하여 동남아와 아랍의 경제범(스쿠크범)을 끌어드리려 했지만 종교계의 반론과 역설로 결국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만큼 한국과 중동과의 관계는 많은 교류를 원하면서도 어려운 관계이다.

세계관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부분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문헌적 터키의 미래가 있다. 터키인들과의 좋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들의

6.5. 결론

지 모른다.

그들은 지금 유럽 연합 가입을 앞두고 있다. 그들이 언제 유럽 연합에 가입될 터키 민족은 이동한 민족이다. 그들은 또 어떻게 이동 할 수 있다.

교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이 된다. 종 셋째, 터키인들의 종교의식은 그들이 이슬람을 받아 들이고 큰 제국

고 있다. 그러나 터키는 다른 이슬람 문화권과는 달리 일부일치제이다.

서구와 일관적인 가족 형태를 지닌 나라들로부터 이슬람 문화권은 질타를 받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슬람의 가족 형태가 일부 다처제라는 이유로 전통을 버려야 미래에 바람직하게 이끌 수 있는지는 터키인들이 먼저 결정 둘째, 터키인들의 민족과 전통을 연구 중 어떤 전통을 살리고 어떤

있기 때문이다.

예나하면 현실과 조금 다른 것은 그런 의식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판단되 현재의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미래의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밝히준다. 를 것으로 기대를 갖는다. 앞서도 말했지만 본 연구의 터키인들의 의식구조는 어떤 연구가 터키인들과의 관계 맺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

본 연구는 창의적 접근 지역의 세계관 연구이기에 연구를 통한 메시지와 전환 사역의 전략을 전개함에 있어서 용어를 일관적인 용어로 바꿔 사용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1.3. 기존의 연구 검토와 용어 정의에서 언급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터키인들의 세계관 연구 것이다.

그들의 삶 자체를 이해할 때 성공적인 메시지 전달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에 현장 수용자들을 그들의 문화와 더불어 이해하고는 자신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은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을 갖는 것이다. 특히 현장의 메시지 전달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은 모언어를 배워야 한다.

메시지 전달자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현장의 문화와 관습, 습관과 전략을 연구하는 것 보다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다. 현장에서 일하는 메시지 전달자에게 있어서 세계관 연구는 본 사역의 기현장에 간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를 놓고 가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회, 문화, 전통, 가족, 의식 구조 등의 연구 없이 다른 문화권의 문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문화권에 전달하고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한 그들의 바를 세계관을 알고 있으면 그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할 인 연구와 설문 조사를 통하여 검증되고 조급은 다르지만 설문 조사 자료로

를 통하여 터키를 향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터키를 향하여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전략은 우선 터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일이다. 앞으로 터키의 젊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계속되는 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그들과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문화적으로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상식적인 교류 위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메시지는 변하지 않게 전달하며 늘 의사소통의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메시지 전달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수용자들과의 접촉점을 찾는 일이다. 대부분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한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터키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다. 터키인들의 경우에는 먼저 찾아오기 때문에 접촉점을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전달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친절해야 한다. 메시지를 전달 할 때 터키인들에게 힘이 되도록 전달하려 해야한다.

셋째, 터키인들과의 교류는 단기적이고 속성의 전략이 적용되는 지역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터키인들이 한번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잘 바뀌지 않는다. 이런 점을 기억하며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전달자의 의욕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메시지가 터키인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지, 그들이 메시지를 수용함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넷째, 터키인들은 역사적으로 오스만 제국이라는 대 제국을 이루었던 민족이다. 지금도 G20 에 속한 국가로써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다. 그들의 역사를 바로 알고 그들의 자존심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인정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을 통해 인정해주는 사람도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때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메시지 전달에 힘을 가할 수 있다.

다섯째, 터키인들은 민족과 종교에 있어서 종교보다는 민족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터키인들에게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는 종교적 행위를 거스리는 일보다 더 치욕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종교를 떠나 터키 민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려고 할 때 그들은 주저함 없이 찾아 온다.

여섯째, 그들에게는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서구적인 사고들이 잠재하고 있다. 그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의식구조만을 가지고 다가서기 보다는 중동지역의 의식구조에 서구를 지향하는 의식구조를 함께 동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터키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또는 현장에 있는 모든 메시지 전달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잡아야 할 것이 있다. 현장과 현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그들과의 신뢰가 필요하다. 현지인들

을 존중하며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에 함께 해야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록

터키인들의 세계관 연구를 위한 설문지

다음 여러 가지 질문은 한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게 될 터키의 문화와 세계관 연구를 위한 설문입니다. 본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이름 성별 (남, 여) 나이

종족(고향) 종교 학력

※신상에 대한 정보가 누출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보기> 터키는 아나톨리아 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보스포로스 해협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이다.



②

③

④

⑤

① 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A1. 지리적 환경

A101. 터키는 동서로 긴 반도와 여러 나라와 접경으로 인해, 동서남북 각 지역의 풍습과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A102. 제1차 세계 대전 후 많은 지역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인근 나라와 이질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많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A103. 터키를 아랍의 문화와 전통이 비슷한 나라로 대우하는 것은 반갑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A104. 터키 민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유입되었는데 1,000년이 지난 지금 중동 문화에 많이 접근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105.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형적 조건과 천연의 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터키는 외국의 자본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적절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106.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유럽 문화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A107. 중동으로 진입하기 전 중앙아시아에서의 좋은 전통을 찾기를 원한다.

- ① ② ③ ④ ⑤

A108. 터키는 현재 주변 국가보다 중앙아시아 국가(카작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튀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와의 문화의 교감이 더 쉽다.

- ① ② ③ ④ ⑤

A109. 터키는 주변의 그리스, 불가리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르메니아, 그루지아의 문화를 이해하기 원한다.

- ① ② ③ ④ ⑤

A110.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현재 오스만 제국의 영화는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B2. 외교와 국제 문화

B201. 중동에서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 ① ② ③ ④ ⑤

B202. 현대 서구의 열강에 대하여 왜 열강이 되었는지 배우기를 원한다.

- ① ② ③ ④ ⑤

B203.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원한다.

- ① ② ③ ④ ⑤

B204. 외국에서 살 수만 있다면 외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 ① ② ③ ④ ⑤

B205.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언어든지 배우기를 원한다.

- ① ② ③ ④ ⑤

C3. 경제 문제

C301. 터키가 시장 경제를 택한 이상 보다 많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위해 국가차원의 경제사업보다는 개인 차원의 경제 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 ① ② ③ ④ ⑤

C302. 터키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제 관계만큼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C303. 터키가 중동으로부터 유럽화 하려는 것은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C304. 세계 문화 개방과 더불어 타 종교가 유입되면 터키에 경제 발전이 있을 것이다.

- ① ② ③ ④ ⑤

C305. 터키의 미래 경제를 위하여 첨단 산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C306. 터키는 앞으로 거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 ① ② ③ ④ ⑤

C307. 터키의 활발한 시장 교류를 위하여 외교관계를 원활하게 허용해야 한다.

- ① ② ③ ④ ⑤

C308. 종교와 경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D4. 가족과 전통

D401. 가족의 강한 연대감은 터키의 자랑이다.

- ① ② ③ ④ ⑤

D402. 전통적인 '효'의 사상이 빠른 개방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 ① ② ③ ④ ⑤

D403. 몇 세대가 같은 집에서 사는 터키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 ① ② ③ ④ ⑤

D404. 앞으로는 대가족 제도 보다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살림살이가 바람직하다.

- ① ② ③ ④ ⑤

D405.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적, 윤리적 도덕성이 없어지고 있다.

- ① ② ③ ④ ⑤

D406. 아들을 얻지 못하면 둘째 부인을 얻어서라도 꼭 아들을 얻어야 한다.

- ① ② ③ ④ ⑤

D407. 터키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다산하는 것이 좋다.

- ① ② ③ ④ ⑤

D408. 터키의 여성의 지위는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D409. 종교에 관계없이 여자는 머리에 히잡을 쓰고 긴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D410. 병이 나면 병원보다는 전통적으로 전수되는 민간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낫다.

- ① ② ③ ④ ⑤

D411. 만약 제 2외국어를 정하여 2세들에게 가르친다면 그 언어는 영어가 될 것이다.

- ① ② ③ ④ ⑤

D412. 옛날 전통이라도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 ① ② ③ ④ ⑤

E5. 민족과 국가 사회

E501. 터키인들은 처음 대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E502. 터키인 하면 셀주크, 오스만 제국을 이어온 민족으로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503. 국토와 국권수호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504. 터키의 소수 민족들 사이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505. 터키는 세속주의 공화국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506.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507. 나는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E508. 나는 한번 충성한 사람에게는 그가 잘못을 했어도 계속 충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E509. 나는 타인의 간섭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E510. 나는 친구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먼저 관계를 끊어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E511. 터키인들은 외국인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E512. 터키인들은 한 사람이 조직(단체, 정치)을 계속 집권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E513.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6. 민족과 종교

F601. 터키인들은 터키어보다 아랍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F602. 오스만 제국 시대의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것보다 현재의 분리는 바람직하다.

- ① ② ③ ④ ⑤

F603. 가족이 다른 동교를 믿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 ① ② ③ ④ ⑤

F604. 인간관계에 있어서 종교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F605. 중앙아시아에서의 민족 신은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

- ① ② ③ ④ ⑤

F606. 터키에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슬람 이외의 종교는 없는 것이 좋겠다.

- ① ② ③ ④ ⑤

F607. 터키에서 다른 종교들도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

- ① ② ③ ④ ⑤

F608. 성실한 사람이더라도 절대적인 신의 존재나 알 수 없는 힘이 돕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 ① ② ③ ④ ⑤

F609. 사람은 죽은 후 자신의 착한 행동에 따라 보상을 받아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 ① ② ③ ④ ⑤

F610. 나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다.

- ① ② ③ ④ ⑤

F611.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전쟁이나 기아 등 형벌을 받고 있다.

- ① ② ③ ④ ⑤

F612. 초자연적인 힘을 믿기에 악마를 무서워하므로 신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F613.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희생을 함으로써 갚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614. 다른 희생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함으로 실수나 죄를 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F615. 터키인들은 타 종교에 호의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616. 타종교인도 신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617. 나는 죄보다 선을 많이 행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G7. 의식구조

G701. 터키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G702. 터키인들은 큰일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G703. 터키인들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G704. 터키인들은 가족의 일원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용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G705. 터키인들은은 사회의 여론을 따라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G706. 터키인들은 경우에 따라 거짓말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G707. 터키인들은 다른 사람이나 가족보다 내가 잘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G708. 터키인들은 옳은 일도 생각해보고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G709. 터키인들은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G710. 터키인들은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을 보면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G711. 터키인들은 배우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G712. 터키인들은 존경 받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G713. 터키인들은 전통이 바뀌어도 좋은 것이라면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G714. 터키인들은 남이 주는 것은 거절 없이 바로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G715. 터키인들은 나보다 경제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면 위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G716. 터키인들은 물건을 살 때 반드시 흥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G717. 터키인들은 남이 어떻게 볼찌 신경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G718. 터키인들은 좋은 일은 신의 이름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G719. 터키들은 본인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손님은 잘 대접한다.

① ② ③ ④ ⑤

G720. 터키인들은 인색한 부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G721. 터키인들은 존경 받는 일이라면 돈을 줄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G722. 터키인들은 색깔 중에 원색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G723. 터키인들은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G724. 터키인들은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G725. 터키인들은 옛날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G726. 터키인들은 모험적이고 개척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G727. 터키인들은 외부인이 자신의 마을에 오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G728. 터키인들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H8. 한국과 터키

H801. 한국은 분단이라는 악조건에서도 강인한 민족으로써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나라이다.

- ① ② ③ ④ ⑤

H802. 한국인들 보다는 터키인들이 더 친절하고 겸손한 편이다.

- ① ② ③ ④ ⑤

H803.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 ① ② ③ ④ ⑤

H804. 1950년 한국전쟁에 터키인들이 한국을 도와주어 더 친근한 나라이다.

- ① ② ③ ④ ⑤

H805. 한국인을 만나면 이웃과 같이 느껴진다.

- ① ② ③ ④ ⑤

H806. 기회만 주어진다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 ① ② ③ ④ ⑤

H807. 기회만 주어진다면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

- ① ② ③ ④ ⑤

-----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

TÜRKLERİN DÜNYA GÖRÜŞLERİ HAKKINDA BİR ANKET

Kore'nin iyi ilişkiler kurduğu ülkelerden birisi olan Türkiye'nin kültür ve dünya görüşleri hakkında bir ankettir. Bu sorulara içtenlikle cevap vererseniz teşekkür ederiz.

Adı: Soyadı: Yaşı:
Cinsiyeti: Memleket: Dini:
En son mezun olduğunuz(simdi) okul:

Bu soruları yanıtlamak zorunlu değildir.

Örnek:

Türkiye'nin Asya ve Avrupa'yı birbirine bağlayan ve denize kıyısı olan güzel bir ülkedir.

●

②

③

④

⑤

①Cok dođru

②Dođru

③Orta

④Yanlıř

⑤Cok yanlıř

A1. COĞRAFYASI

A101. Türkiye'nin mozaik yapısından dolayı farklı kültür ve karakteri vardır.

①

②

③

④

⑤

A102. řu anda Türkiye'nin 1.Dünya Savařından sonra Osmanlı İmparatorluđundan ayrılıp bağımsızlığını kazanan ülkelerle problemleri vardır.

①

②

③

④

⑤

A103. Türkiye'nin Arap ülkeleriyle kültür ve geleneklerinin aynı olduğunu düşünülmesinden memnun deđilim.

①

②

③

④

⑤

A104. Türkler'in Orta Asya'dan Anadolu'ya göç ettikten 1000yıl sonra çevresindeki Arap ülkelerinden etkilenmiştir.

①

②

③

④

⑤

A105. Türkiye'nin Asya'yı Avrupa'ya bağlayan, dođal zenginliđi olan ve turizm açısından önemli bir ülke olmasından dolayı yabancı ülkelerin yatırımına uygundur.

①

②

③

④

⑤

A106. Türkiye'nin Avrupa'ya yakın bir ülke olmasından dolayı Avrupa'nın kültüründen etkilenmiştir.

①

②

③

④

⑤

A107. Türkler'nin Orta Asya'dayken iyi olan gelenek ve göreneklerini bilmek istiyorum.

①

②

③

④

⑤

A108. Türkiye'nin Orta Asya'daki kültürünü anlamak Türkiye'nin řu andaki komřu ülkelerin kültürünü anlamaktan daha kolaydır.

①

②

③

④

⑤

A109. Türkiye'nin komřu ülkeri Yunanistan, Bugaristan, Suriye, İran, Irak, Ermenistan, Gürcistan'ın kültürünü bilmek istiyorum.

①

②

③

④

⑤

A110. 1.Dünya Savaşı olmasaydı Osmanlı'nın varlığı devam ederdi.

① ② ③ ④ ⑤

B2. ULUSLARARASI İLİŞKİ

B201. Ortadoğu Ülkelerinde ve başka ülkelerde savaş olmamalıdır.

① ② ③ ④ ⑤

B202. Günümüzde güçlü olan Batı ülkelerinin neden güçlü olduğunu öğrenmek istiyorum.

① ② ③ ④ ⑤

B203. Türkiye'nin Avrupa Birliğine girmelerini istiyorum.

① ② ③ ④ ⑤

B204. Yabancı ülkelerde yaşama fırsatı bulursam yaşamak isterim.

① ② ③ ④ ⑤

B205. Yabancı dil öğrenme fırsatım olursa öğrenmek istiyorum.

① ② ③ ④ ⑤

C3. EKONOMİ

C301. Türkiye'nin pazarı dış ülkelerle faaliyet içerisinde olan bir ülkedir. Bunu geliştirirse daha iyi olur.

① ② ③ ④ ⑤

C302. Türkiye'nin ekonomisi daha iyi olması için Avrupa ve Amerika ile daha iyi ilişkiler kurması gerekir.

① ② ③ ④ ⑤

C303. Türkiye'nin Avrupa Birliği'ne girmek istemesinin sebebinin ekonomi olduğunu düşünüyorum.

① ② ③ ④ ⑤

C304. Küresel Dünya'da Türkiye'ye farklı dinden olan ülkeler gelirse ekonomisi gelişir.

① ② ③ ④ ⑤

C305. Türkiye'nin ileride ekonomilerini geliştirmeleri için teknolojiye daha çok önem verirse iyi olur.

① ② ③ ④ ⑤

C306. Türkiye'nin ileride ekonomilerinde büyük gelişme olacak.

① ② ③ ④ ⑤

C307. Türkiye'nin pazarının daha iyi olması için daha çok ülkelerle daha çok girişimde bulunması gerekir.

① ② ③ ④ ⑤

C308. Dinin ekonomi ile alakası olduğunu düşünüyor musunuz?

① ② ③ ④ ⑤

D4. AİLE VE GELENEK

D401. Türk toplumun birbiriyle olan sıkı ilişkilerinden gurur duyuyorum.

① ② ③ ④ ⑤

D402. Türk aile yapısının gittikçe bozulduğunu düşünüyorum.

① ② ③ ④ ⑤

D403. Türkiye'de çekirdek ailenin ebeveynleriyle birlikte yaşamasının değişmesi gerekir.

① ② ③ ④ ⑤

D404. Çekirdek ailenin birlikte yaşaması ebeveynleriyle birlikte yaşamasından daha iyidir.

① ② ③ ④ ⑤

D405. Dünya'nın hızla gelişmesinden dolayı gençler sosyal yapıyı bozmaktadır.(Cinsel ilişki gibi)

① ② ③ ④ ⑤

D406. Ailenin erkek çocuğu olmadığına kuma getirip erkek çocuk sahibi olması gerekir.

① ② ③ ④ ⑤

D407. Türkiye'de ekonomik durumu iyi olan kişilerin gereğinden fazla çocuk sahibi olmaları iyidir.

① ② ③ ④ ⑤

D408. Türkiye'de kadınlara verilen haklar başka ülkedeki kadınlara verilen haklara göre daha yüksektir.

① ② ③ ④ ⑤

D409. Türkiye'ye gelen gayrimüslim kadınların baş örtüsü takması gerekir.(İranda olduğu gibi)

① ② ③ ④ ⑤

D410. Rahatsızlanıldığında hastaneye gitmek yerine geleneksel yöntemlerle tedavi etmek daha iyidir.

① ② ③ ④ ⑤

D411. Çocuklara verilen en iyi yabancı dil İngilizcedir.

① ② ③ ④ ⑤

D412. Günümüzde uygun olmayan gelenek ve göreneklerin kullanılmaması gerekir.

① ② ③ ④ ⑤

E5. ÜLKE HALKININ KARAKTERİ

E501. Yabancı insanlar Türkler'in nazik ve iyi olduğunu düşünüyor.

① ② ③ ④ ⑤

E502. Türkler geçmişinden gurur duyarlar.(Selçuklular, Osmanlılar gibi)

① ② ③ ④ ⑤

E503. Ülkeyi korumak için fedakarlık yapmam gerekirse yaparım.

① ② ③ ④ ⑤

E504. Türkiye içinde bulundurduğu etnik yapının kültürünü kabul etmesi gerekir.

① ② ③ ④ ⑤

E505. Türkiye laik ve demokratik bir ülke olarak dinlere karşı özgür olduğunu düşünüyorum.

① ② ③ ④ ⑤

E506. Ben başkasının yardımı olmadan ayakta kalabilirim.

① ② ③ ④ ⑤

E507. Ben bir iş kurmak istediğimde ortak bir iş kurmak istiyorum.

① ② ③ ④ ⑤

E508. Güvendiğim bir insan güvenimi kırsa bile ona yine de güvenirim.

① ② ③ ④ ⑤

E509. Başka insanların işime karışmasını sevyorum.

① ② ③ ④ ⑤

E510. Arkadaşımın bana güvenmediğini anladığım zaman arkadaşlığımı hemen keserim.

① ② ③ ④ ⑤

E511. Türk insanları yabancı insanları severler.

① ② ③ ④ ⑤

E512. Türk insanları herhangi bir organizenin başkanlığını yapan kişileri sürekli başkanlık yapmalarını ister.(grup veya politika)

① ② ③ ④ ⑤

E513. Zengin insanlar fakir insanları ezerler.

① ② ③ ④ ⑤

F6. HALKI VE DİNİ

F601. Türk insanı Arapça'yı Türkçe'den daha önemli buluyor.

① ② ③ ④ ⑤

F602. Şu anki laik sistem Osmanlı zamanındaki sistemden daha iyidir.

① ② ③ ④ ⑤

F603. Aile içinde dini açıdan farklılığa saygı gösterilmelidir.

① ② ③ ④ ⑤

F604. İnsanlar arasındaki ilişkide din önemlidir.

① ② ③ ④ ⑤

F605. Orta Asya'dayken var olan dini inanç günümüzde de devam ediyor.

① ② ③ ④ ⑤

F606. Türkiye'de dini özgürlük olduğu halde müslümanlıktan farklı bir dine hoşgörü ile bakmak istemiyorum.

① ② ③ ④ ⑤

F607. Türkiye'de başka dinler de gelişebilir.

① ② ③ ④ ⑤

F608. Dini açıdan yetersiz olan iyi insanların Allah'ın yardımını olmadan tek başına bir iş yapamazlar.

① ② ③ ④ ⑤

F609. İnsanların kendi davranışlarına göre Cennet ve Cennhnnem'e gideceğime inanıyorum.

① ② ③ ④ ⑤

F610. Ben ölürsem direk Cennet'e gideceğime inanıyorum.

① ② ③ ④ ⑤

F611. İnsanların bizim bilmeden yaptığımız suçlardan dolayı savaş veya açlıktan ölerək cezalandırdığını düşünüyorum.

① ② ③ ④ ⑤

F612. İnanılması güç olan dini inanışlardan korktuğum için Allah'a sığınıyorum.(Şeytan gibi)

① ② ③ ④ ⑤

F613. Daha önce yaptığı bir suçu başkası fedakarlık ederek silebilir.

① ② ③ ④ ⑤

F614. Daha önce yaptığı bir suçu başkası maddi olarak ödediğinde o suç hafifler.

① ② ③ ④ ⑤

F615. Türkler diğer dinlere hoşgörü ile davranıyor.

① ② ③ ④ ⑤

F616. Farklı dinlere inanan kişilerin dini bütün yaşadığını düşünüyorum.

① ② ③ ④ ⑤

F617. Ben kötülüğü iyilikten daha çok yaptığımı düşünüyorum.

① ② ③ ④ ⑤

G7. DÜŞÜNCE SİSTEMİ

G701. Türklerin zor durumda kalanlara yardım ettiğini düşünüyorum.

① ② ③ ④ ⑤

G702. Türklerin zor durumda veya acele işi olan insanlara onların evinde kalarak yardım ederler.

① ② ③ ④ ⑤

G703. Türkler törelerini korumak için her şeyi göze alırlar.

① ② ③ ④ ⑤

G704. Türkler kendi içlerinde törenin bozulmasını kabul etmezler.

① ② ③ ④ ⑤

G705. Türkler toplumsal değerleri önemserler.

① ② ③ ④ ⑤

G706. Türkler duruma göre yalan söyleyebilirler.

① ② ③ ④ ⑤

G707. Türkler başka insanlardan daha üstün olmak isterler.

① ② ③ ④ ⑤

G708. Türk insanı doğru olan bir şey olsa bile düşünerek hareket ederler.

① ② ③ ④ ⑤

G709. Türk insanları çabuk sinirlenirler.

① ② ③ ④ ⑤

G710. Türk insanların törelerini bozan kişilere kayıtsız kalmazlar.

① ② ③ ④ ⑤

G711. Türk insanları eşlerine sevgi gösterirler.

① ② ③ ④ ⑤

G712. Türk insanları başkalarından kendisine saygı gösterilmesinden hoşlanırlar.

① ② ③ ④ ⑤

G713. Türk insanları gelenek ve görenekleri değişirse bile eğer bu iyi birşey ise kabul ederler.

① ② ③ ④ ⑤

G714. Türk insanları kendisine verilen hediye kabul etmeyi severler.

① ② ③ ④ ⑤

G715. Türk insanları kendisinden her yönden üstün insanlar karşısında kendilerini küçük görürler.(bilgi, ekonomik gibi)

① ② ③ ④ ⑤

G716. Türk insanları alış veriş yaparken mutlaka pazarlık yaparlar.

① ② ③ ④ ⑤

G717. Türkler başkalarından kendisini nasıl gördüğünü önemserler.

① ② ③ ④ ⑤

G718. Türkler iyi işlerini Allah'ın adıyla yaparlar.

① ② ③ ④ ⑤

G719. Türk insanları zor durumda olsa bile karşısındakine misafirperverdir.

① ② ③ ④ ⑤

G720. Türkler cimri olan zenginleri sevmezler.

① ② ③ ④ ⑤

G721. Türk insanları saygı görmek için para da kullanabilir.

① ② ③ ④ ⑤

G722. Türk insanları kapalı olan renkleri severler.

① ② ③ ④ ⑤

G723. Türk insanları iyi işe yarayan bir bilgiyi başkalarıyla paylaşmayı severler.

① ② ③ ④ ⑤

G724. Türk insanları sosyal yapısının değişmesi hoşlarına gider.

① ② ③ ④ ⑤

G725. Türk insanları geçmişlerinden gurur duyarlar.

① ② ③ ④ ⑤

G726. Türkler bir şeyleri keşfetmekten hoşlanırlar.

① ② ③ ④ ⑤

G727. Türkler farklı yerlerdeki vatandaşlarını aralarına almayı severler.

① ② ③ ④ ⑤

G728. Türk insanları yabancılarla evlenmeyi severler.

① ② ③ ④ ⑤

H8. G.KORE VE TÜRKİYE

H801. G.Kore ve K.Kore ayıldığı halde G.Kore kendi bütünlüklerini koruyup kendilerini geliştiren bir ülkedir.

① ② ③ ④ ⑤

H802. Türklerin G.Kore'li insanlardan daha nazik ve sıcak olduğu düşünüyorum.

① ② ③ ④ ⑤

H803. Asya ülkeleri arasından en çok G.Kore ile ilişki kurmak istiyorum.

① ② ③ ④ ⑤

H804. 1950'de Kore Savaşı sırasında Türk askerilerinin yardımından dolayı kendimi G.Kore'ye daha yakın hissediyorum.

① ② ③ ④ ⑤

H805. G.Koreli biriyle tanıştığım zaman farklı ülkelere göre kendimi onlara daha yakın hissediyorum.

① ② ③ ④ ⑤

H806. Fırsat olursa G.Korece öğrenmek isterim.

① ② ③ ④ ⑤

H807. Fırsat olursa G.Kore'ye gitmek isterim.

① ② ③ ④ ⑤

İlginiz için teşekkür ederim.

참고도서

법전, 경전, 사전

- 1980 各國憲法資料集, 서울: 社團法人 國際問題調查研究所. 土耳其 憲法
1961年 5月27日 制定.
1981 한역 꾸란, 김용선역, 서울: 어학사.
1982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2005 성경, 한글개역개정.
2005 TÜRKÇE SÖZLÜK, Ankara: TÜRK DİL KURUMU.

한글서적

공일주

- 1997 이싸냐? 예수냐?,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2000 아랍교화에 부흥이 있으라, 서울: 예루살렘.
2004 아브라함의 종교 유재교/기독교/이슬람교, 서울: 살림

김아영

- 2004 민속 이슬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손주영외 지음

- 2000 20세기 중동을 움직인 50인, 서울: 가람 기획.

송흥국

- 1984 기독교와 세계의 종교,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수요역사연구회

- 2002 곁에 두는 세계사, 서울: 석필.

안점식

- 2009 세계관과 종교, 서울: 조이선교회.

이만석

- 2011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서울: 4HIM.

이상호 외 5인

- 1980 세계의 종교들,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이혜령외 8인

- 1996 문화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희수

- 2000 터키史,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이희철

- 2006 터키, 서울: 리수.

전재옥

- 2003 기독교와 이슬람(문화의 경계를 넘어 만난 이슬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전호진

- 1989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정형남

2009 *이슬람과 메시아 왕국 이슈*, 서울: CLC.

최영길,

2000 *이슬람문화*, 서울: 알림.

최한우

2003 *중앙아시아 연구(상)*, 서울: 퍼내기.

2004 *중앙아시아 연구(하)*, 서울: 퍼내기.

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6 *이슬람은*, IslamHouse.com.

2009 *이슬람의 세계관*, 후세인 크르테미라 번역, IslamHouse.com.

한상복, 이문웅, 이광익

1994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번역서적

가브리엘, 마크 A.

2006 *끝나지 않은 2000년의 전쟁(THE UNFINISHED BATTLE)*, 서울: 통크.

김민선

2008 *인간 커뮤니케이션 비서구적관점(Non-Western Perspectives on Human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범기수 박기순
우자수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데오츠, 야마오리

2004 *삼일 만에 읽는 세계의 종교(MIKA DE WAKARU SHUKYO)*, 이제성
옮김, 서울: 서울문화사.

도드, 칼리 H.

2008 *문화를 초월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임현만 역, 서울: 그리심.

뤼넨, 개린 뱅

2000 *선교학 개론(Missions)*, 홍기영 홍은표 옮김, 서울: 서로사랑.

리테나워, 프리츠

1982 *무엇이 다른가(So What's The Difference)*, 서울: 생명의 말씀사.

모우캐리, 쇼캣

2003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아람 그리스도인이 본)*, 한국이슬람연구소
옮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바시르, 안와르

1994 *무슬림에게 복음을*, 서울: 예루살렘.

버드, 잭

2003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중동선교회 옮김, 서울: 예루살렘.

보쉬, 데이비드 J.

- 2009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선교 신학의 패러다임 변천(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김병길, 장훈태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사모바, 래리 A. / 포토, 리처드 E.
2007 *문화간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정현숙외 4일 공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사이어, 제임스
198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헝크, 월버트
2003 *선교의 새로운 영역(Changing Frontiers of Mission)*, 장훈태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쉬이크, 발퀴스
1992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 박양미 옮김, 인천: 임마누엘.
- 시니어, 도날드 / 슈톨필러, 캐럴
2003 *선교의 성서적 기초(The Biblical Foundation for Mission)*, 최성일 옮김, 서울: 다신글방.
- 크라프트, 찰스 H.
2007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APPROPRIATE CHRISTIANITY)*, 김창영 편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기독교 문화인류학(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안영권·이대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파살, 필
2003 *무슬림 전도의 새로운 방향(New Paths in Muslim Evangelism)*, 채슬기 옮김, 서울: 예루살렘.
- 포코크, 마이클 / 리넨, 가린 밴 / 메코넬, 더글라스
2008 *변화하는 내일의 세계선교(CHANGING FACE OF WORLD MISSIONS)*, 박영환, 백종윤, 전석재, 김영남 옮김, 인천: 바울.
- 피어슨, 폴
2009 *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선교 운동사(The Dynamics of Christian Mission: History through a Missiological Perspective)*, 임윤택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하마디, 사니아
2000 *아랍인의 의식구조*, 손영호 옮김, 서울: 큰산.
- 헌팅턴, 새뮤얼
2010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옮김, 경기: 김영사.
- 헤셀그레이브, 데이비드

- 1999 *선교 커뮤니케이션론(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2nd ed.>*, 강승삼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 홀, 에드워드
2009 *침묵의 언어(The Silent Language)*, 최효선 옮김, 경기: 한길사.
- 히버트, 폴 G.
2004 *선교문화 현장의 이해(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 2005 *선교와 문화인류학(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홍호 옮김,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 히버트, 폴 G. / 메네시스, 엘로이스 히버트
2004 *성육신적 선교사역(Incarnational Ministry)*, 안영권 이대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Lewis, Bernard
1998 *중동의 역사(THE MIDDLE EAST)*, 이희수 옮김, 서울: 까치글방.
- Cheilik, Michael
1987 *서양 고대사개론(Ancient History, A Barnes & Noble Outline Series: 1969)*, 고려대 대학원 고대사연구실 역, 서울: 지양사.

외국어서적

- Edmonds, G. Anna
1998 *TURKEY'S RELIGIOUS SITES*, Istanbul: Damko.
- Ete, Ahmet
2007 *OSMANLI TARİHİ ANSİKİL OPEDİSİ*, Ankara: Akçağ.
- Kafesoğlu, İbrahim
1998 *TÜRK MİLLİ KÜLTÜR*, İstanbul: Ötükrn.
- Kara, Kemal
1996 *GENEL TÜRK TARİHİ 2*, İstanbul: Önde Yayıncılıkı.
- 1997 *Liseler için GENEL TÜRK TARİHİ 3*, İstanbul: Önde Yayıncılıkı.
- 1999 *Liseler için GENEL TÜRK TARİHİ 2*, İstanbul: Önde Yayıncılıkı.
- Mert, Yüksel / Açıkgoz Cengiz
2010 *ATATÜRKün Liderlik sırları*, Ankara: Tutku Yayınevi.
- 2010 *BÜYÜK TÜRK MİLLETİ*, Ankara: Tutku Yayınevi.
- Turan, Ahmet Nezihi
2004 *TARİH EL KİTABI SELÇUKLULAR'DAN BUGÜNE*, Ankara: Grafiker.
- Wilson, Neil
1995 *DISCOVER TURKEY*, Oxford: Berlitz.
- Yılmaz, Burhan
2011 *TÜRKLERİN KÜLTÜREL VE KOZMİK KÖKENKERİ*, İstanbul: Neden.

기타

이승열

1994 가족의 상호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M.A.

이승열

2008 이슬람과 기독교의 접촉의 역사와 21세기 터키 선교 연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A.

외교통상부

2010 터키개황 2010, 서울: 외교통상부 유럽국 중유럽과.

웹사이트

<http://100.naver.com/100.nhn?docid=713751> (2011.11.15)

<http://100.naver.com/100.nhn?docid=830306> (2012.01.10)

http://dic.paran.com/dic_ency_view.php?q=&kid=13174400 (2011.11.23)

http://en.wikipedia.org/wiki/Adnan_Menderes (2011.11.23)

http://en.wikipedia.org/wiki/Mahmud_II (2012.01.03)

http://en.wikipedia.org/wiki/Risale-i_Nur (2011.11.23)

http://en.wikipedia.org/wiki/Said_Nurs%C3%AE (2011.11.22)

http://en.wikipedia.org/wiki/Selim_II (2012.01.03)

<http://en.wikipedia.org/wiki/Tanzimat> (2012.01.03)

http://kcm.kr/dic_view.php?nid=39304 (2012.03.12)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D%99%94> (2012.02.24)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B%94%94%EC%8B%9C%EC%96%B4>
(2012.01.30)

<http://ko.wikipedia.org/wiki/%ED%84%B0%ED%82%A4> (2011.11.02)

<http://ko.wikipedia.org/wiki/%ED%84%B0%ED%82%A4#.EC.96.B8.EC.96.B4>
(2011.11.02)

http://ko.wikipedia.org/wiki/%ED%84%B0%ED%82%A4#.EC.9D.B8.EA.B5.AC_.ED.98.84.ED.99.A9 (2011.11.02)

<http://ko.wikipedia.org/wiki/%ED%9E%8C%EB%91%90%EA%B5%90> (2011.11.25)

http://missionmagazine.com/main/php/search_print_page.php?idx=773&img=undefined&diaryDate=%7BdiaryDate%7D (2011.11.06)

<http://salih.kr/entry/%EC%BC%80%EB%A7%90%EB%A6%AC%EC%A6%98Kemalizm-Atat%C3%BCrk%C3%A7%C3%BCI%C3%BCk-Kemalism-%EC%97%AC%EC%84%AF%EA%B0%9C%EC%9D%98-%ED%99%94%EC%82%B4> (2011.11.20)

http://tr.wikipedia.org/wiki/Ali_R%C4%B1za_Efendi (2011.11.22)

http://tr.wikipedia.org/wiki/Latife_U%C5%9F%C5%9Faki (2011.11.22)

http://tr.wikipedia.org/wiki/Mustafa_Kemal_Atat%C3%BCrk (2011.11.22)

http://tr.wikipedia.org/wiki/Z%C3%BCbeyde_Han%C4%B1m (2011.11.22)

<http://unitedns.blogspot.com/2011/12/2010-3-kemal-ataturk.html> (2012.01.03)

<http://www.ak-der.org/soru-ve-cevaplarla-kadinin-insan-haklari-2010--1-.gbt> (2011.11.15)
http://www.allaboutturkey.com/ata_prensip.htm (2011.11.20)
<http://www.delinetciler.net/forum/turkiye-hakkinda-hersey/140317-turkiyeve-gelen-turist-sayilari-2004-2011-a.html> (2012.01.10)
<http://www.diyenet.gov.tr/turkish/dv/default.aspx> (2011.12.16)
<http://www.diyanetvakfi.org.tr/> (2012.12.16)
<http://www.dur.ac.uk/sgia/imeis/risale/> (2011.11.23)
<http://www.erisale.com/> (2011.11.23)
<http://www.rischool.co/> (2011.12.9)
<http://www.sabah.com.tr/Ekonomi/2012/01/25/turizmde-veni-rekor-31456076>
(2012.01.30)
<http://www.tuik.gov.tr/PreHaberBultenleri.do?id=8486> (2011.11.10)
http://www.tuik.gov.tr/PreIstatistikTablo.do?istab_id=1335 (2011.11.10)
<http://www.turkcebilgi.com/ataturk/> (2012.01.30)

약력

이 름: 이승열 (남)

생년월일: 1956 년 8 월 25 일

학력

- 1983.2 안양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졸업 (B.A)
- 1992.3 안양대학교 신학과 졸업 (B.A)
- 1994.2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M.A)
- 2008.2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A)
- 2012.5 Grace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D.Miss)

저서

- 1994 家族의 相互 理解를 위한 프로그램開發研究,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2004 감바도기아에서 만난 예수님, 서울: 미션미디어
- 2008 이슬람과 기독교의 접촉의 역사와 21 세기 터키 선교연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 2012 *Analytical Study Based on Research of the 21st Century Turkish Worldview For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the Turkish*, Grace Theological Seminary, D. Miss